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의 ‘한국아동패널’모형 개발, 2007년도의 예비조사 실시에 이어 2008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해 이루어지는 일반조사에 더해,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일부 패널에 대한 심층조사를 수행하였고, 3차년인 2010년도에는 4~8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횡단적인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고,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3차년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중치 작성 방법, 4차년도일반조사의 목적,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4차년도에는 3차 조사 이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내용과 유아기에 중요한 사회성 변인을 추가하였고, 경제 관련 변인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미시체계인 육아지원기관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의 발달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KICCE 국제 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 발달 리플렛 제작, 홍보 책자 발간,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개정 및 브로슈어 제작 등, 한국아동패널 연구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 수행한 사업을 소개하였다.

본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적인 틀의 제시에 기여하고, 행복한 아동기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에 활발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과 그를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수행하는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단연구가 필수적임.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패널을 구축, 매해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3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4차년도 연구를 완료하였음.
- 한국아동패널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 기대효과를 가짐.
 - 매년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영유아 관련 국가 정책의 수립과 재정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함.
 -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원활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논문공모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논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귀중한 초석을 마련함.

2. 한국아동패널 2011 연구의 목표

- 2008년에 출생한 패널 대상 아동들이 만 3세가 되는 4차년도인 올해에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범위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미시체계인 육아지원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영역인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자료를 두 가지 통로를 - 육아지원기관이라는 미시체계 안에서 아동이 보이는 사회성에 대한 교사의 관찰과 가정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자료 - 통해 구축하고자 함.
- 아동의 발달 특성에 관한 자료를, 다른 아동들과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지표가 제공되는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하고자 함.
- 유아기는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언어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Early Childhood -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사용하여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지난 3년 동안 구축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 아동패널관련 책자(가칭: 한국아동패널 자료 시리즈)를 발간하여 비전공자들도 용이하게 연구결과에 접근하게 하고자 함.
- 육아정책연구소 자체에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책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적인 의제인 저출산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2011년에는 국제 세미나 및 제 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외 아동패널과 관련된 패널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National Children's Study(NCS)를 수행하고 있는 바텔(Battelle)연구소 방문을 통해 한국 아동패널 연구와 향후 공동 연계하여 상호협력 증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한국아동패널 2011의 실시를 통해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육아정책과 그에 관련된 연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음.
 -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실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에 관해 수집되는, 방대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제반 사회적 현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실제적으

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비전공자들을 위한 자료집 발간, 정책세미나 개최 및 정책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목표 달성의 효과가 기대됨.

3. 해외패널 연구사례

- National Children's Study: 미국 전역에서 여러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 10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는 대규모의 종단 연구임. 유전인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연구결과를 통해 차세대 아동 건강의 증진, 질병 예방에 대한 중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 장애아 또는 고위험군아동들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의 시작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이며, 2004년 12월에 마지막 면접이 완료되어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음.

4. 한국아동패널 개요 및 진행경과

- 전체 연구기간
 - 2008~2020년(2015년까지는 매년 조사 이후 2017년, 2020년 조사 실시 계획)
- 조사 대상
 - 모집단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표본은 2008년 4~7월에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임.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표본 유지율: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완료 패널은 2,078명, 2차년도 1,904명, 3차년도 1,802명, 4차년도 1,754명임. 4차년도 표본 유지율은 전년 대비 97.3%, 1차년도 대비 84.4%, 예비표본 대비 68.5%임.

□ 조사 진행 현황

- 2006년도: 한국아동패널 모형개발
- 2007년도: 예비조사 실시
- 2008년도: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2009년도: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제1차 심층조사 실시
- 2010년도: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 2011년도: 4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조사 유형 및 시기

- 일반조사
 -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로 우편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 개별수행검사 및 웹조사(4차년도부터 실시)로 이루어짐.
 - 패널 아동이 0~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이후에는 9세, 12세 때 각각 1회씩 실시 계획.
- 심층조사
 - 표집 대상의 10% 가량을 대상으로 전체 연구기간 내 총 3회(대상아동이 1.5세, 4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함.
 - 2009년 제1차 심층조사 완료함.

□ 조사 내용

- 아동특성: 개별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발달 특성
- 부모특성: 부부간의 특성, 부모됨의 특성 및 양육 특성
- 가족특성: 가족 내 역할 및 관계
-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육아지원기관과 개인대리양육서비스, 각종 학원, 선교원과 같은 유사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향후 이용계획
-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의 육아관련정책과 재원을 포함한 각종지원,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체계
- 육아지원정책특성: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5. 한국아동패널 1·2·3차년도 일반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의 내용

-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 정책 특성의 6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일반조사 내용이 구성됨.

일반 조사 방법

- 조사 도구: 어머니 대상 질문지, 아버지 대상 질문지, 면접조사용 질문지, K-ASQ 및 한국형 덴버 II.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CAPI) 프로그램) 와 우편조사 병행 실시함.
- 검사: K-ASQ, 한국형 덴버 II를 실시함.

6. 제1차 심층조사

심층조사 내용

- 발달 전반: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 사용
- 애착: Q-set 사용
- 기질: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사용
- 어머니 특성: 성격평가질문지 사용

심층조사 절차 및 방법

- 제1차 심층조사는 2009년 2차년도 일반조사인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완료한 패널 가구 중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icce.re.kr/panel>)를 통해 심층 조사를 신청한 220명을 선정하였고 206명이 조사를 완료함.
-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 자문, 심층조사 수행 및 총괄, 검사자 모집·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함.

- 훈련을 받은 전문 검사자들이 상주하는 권역별 지정 검사 장소로, 조사대상자인 아동과 주양육자(어머니)가 내왕하여 검사를 받음.

7.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 제3차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함.
 - ‘한국아동패널2008’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특성 및 경향을, 이후에 출생한 아동들의 특성 및 추이와 비교하고자 함.
 -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내용
 - 신생아 특성: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 아동성별, 출생 시 몸무게와 키, 머리둘레, 출생서열 등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특성 등으로 구성됨.
 -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직업계획, 산전 정서 상태 등으로 구성됨.
 - 임신 및 출산 특성: 임신관련특성과 출산관련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함.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의 방법
 - 2010년 4월~7월에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한국아동패널 2008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집틀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을 표집함.
 - 조사방법은 출생 시 면접조사 및 4개월 후의 전화조사임.

8.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

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제시하였음.

- 매해 일반조사가 완료된 후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다시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하므로, 올해에는 3차년도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9.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내용

- 국내외 영유아대상 관련 패널연구들의 최근 동향과 변화 추이 및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간행물을 고찰함.
- 4차년도(2011년) 일반 조사 실시를 위해 3차년도(2010년) 일반조사 이후 기존 문항 중 제외 또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 내용을 확정하여 CAPI 프로그램을 개발함.
- 질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질문지를 웹 질문지로 개발함.
- 3차 조사 이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들에 관한 인지도,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과 반일제 이상 학원의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참여,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아동의 발달에 따른 행동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행동 문항으로 이전 문항들을 수정함.
- 경제 관련 변인들을 수정, 보완, 추가함.
- 패널 대상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직업관련 문항 등은 CAPI상에서 지난해의 자료를 연동하여 전년도 정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구현되도록 로직을 구성함.
- 아동의 언어 발달을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으로 측정함.
- 아동의 가정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10.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방법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패널연구 문헌, 관련 웹사이트 및 간행물을 통해 패널 연구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함.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와 보고서의 소논문 작성을 위해 2008년 1차년도 일반조사 변인 및 2010년 부가조사의 변인들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실시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발달 검사 관련 협의회, 언어검사 관련 협의회 및 워크숍, 유아교육 관련 협의회, 경제 문항 관련 협의회 등을 개최함.

설문조사

- 면접조사: CAPI를 이용하여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 우편설문조사: 어머니와 아버지 대상 질문지를 우편으로 실시함.
- 웹 조사: 웹 조사를 선호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웹을 통해 질문지를 실시함.

발달검사

- 언어발달검사: 패널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REVT를 개별적으로 실시함.
- 사회성 발달: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 포함됨.

가정환경검사: 가구방문 면접 시 EC-HOME을 부모에게 실시함.

4차년도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조사

- 웹 조사: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담당강사 대상 웹 조사를 실시함.

3차년도 일반조사 자료 처리 및 가중치 부여

- 3차년도 자료의 횡단적 에디팅 및 1·2차년도 자료와의 종단적 에디팅 실시함.

- 표본추출확률 계산, 무응답자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을 통한 가중치 생성 및 자료 보완작업을 실시함.
- KICCE 국제 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
 - 2011년 8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함.
 -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관련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들의 논문 29편이 발표됨.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의 영문 질문지를 공개함.
- 정책세미나 개최 및 육아지원정책 포럼에서 발표함
- 발달 리플렛 제작, 홍보 책자 발간,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개정 및 브로슈어 제작함.
-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의 2011년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및 해외출장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함.

11. 향후 추진 계획

- 4차년도 자료 구축 및 기초 분석
- 4차년도 자료 처리 및 1·2·3·4차년도 종단자료 처리
- 4차년도 자료 가중치 산출 및 부여
- 2차년도 자료 대중 공개
- 5차년도 조사 준비 및 실시
- 패널관리 및 추적
-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4. 해외패널 연구사례	12
5. 보고서 구성	16
II. 한국아동패널 개요 및 진행경과	18
1. 한국아동패널 개요	18
2. 한국아동패널 1·2·3차년도 일반조사	20
3.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22
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24
5. 가중치 작성 및 추정	27
III.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일반조사	33
1. 4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33
2. 4차년도 일반조사 방법	56
3. 4차년도 일반조사 절차	59
4. 조사성공률 및 원표본 유지율	64
5. 홈페이지 개편	68
6. 향후 추진 계획	71
참고문헌	73
부 록	77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11년도 일반조사 안내문	79

부록 2.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80
부록 3. 한국아동패널 2011 발달 리플렛	82
부록 4.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브로슈어	84
부록 5. NCS 기관방문 사진	86
부록 6.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화면	88
부록 7. 2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91

표 차례

〈표 I-5-1〉	보고서 구성 및 내용	17
〈표 II-1-1〉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18
〈표 II-1-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19
〈표 II-3-1〉	제1차 심층조사 내용, 도구 및 자료수집방법	23
〈표 II-4-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권역별 참여가구	25
〈표 II-4-2〉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병원면접용	26
〈표 II-4-3〉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전화조사용	26
〈표 II-4-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중 전화조사 완료 수	27
〈표 II-5-1〉	3차년도 아동패널가구 응답여부 가구 분포	29
〈표 II-5-2〉	3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결과(2010년 자료 기준)	31
〈표 II-5-3〉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중치 적용	32
〈표 III-1-1〉	일반조사 발달검사용 도구별 특성	36
〈표 III-1-2〉	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질문지 변경 내용	42
〈표 III-1-3〉	기관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44
〈표 III-1-4〉	2008~2011 일반조사 문항의 변경사항	48
〈표 III-2-1〉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방법	58
〈표 III-3-1〉	조사원 교육의 내용과 일정	60
〈표 III-4-1〉	1차년도 및 2·3·4차년도 패널의 표본 유지율	64
〈표 III-4-2〉	패널 조사 거절 이유	65
〈표 III-4-3〉	기관에 다니는 패널 아동 현황	66
〈표 III-4-4〉	기관조사 현황(2011년 11월 30일 기준)	66
〈표 III-4-5〉	4차년도 권역별 패널 유실률	67
〈표 III-4-6〉	4차년도 지역규모별 패널 유실률	68

그림 차례

[그림 II-2-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21
[그림 II-3-1]	심층조사 진행절차	24
[그림 III-4-1]	연도별 참여패널 수 및 전년 대비 유지율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에서의 형식적인 육아지원 및 비형식적인 개별 육아지원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수혜 받는 육아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 보는 연구는 바람직한 양육 및 효과적인 육아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 조기교육 열풍 등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정과 사회, 육아지원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현상이 시급한 국가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역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아동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시점에서 제한된 변인들만을 고려한 횡단적·단편적인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이 태어나 성장해 나가면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인 환경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 나가는지에 따라 발달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생태학적인 관점이 아동 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아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요인들이 주로 주목받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아동도 양육자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기질과 같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연구의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가족이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미시체계 뿐만 아니라 미시체계간의 상호관계, 즉 부모와 교사간의 관계, 형제관계와 같은 중간체계나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와 같은 외체계,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같은 거시체계,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으로서의

시간체계와 같은 보다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수행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단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고자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 매해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발달과 그들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을 전국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특성과 생활특성, 각 시기에 발생하는 부모의 양육실태와 요구, 가정환경의 특징, 공식적·비공식적인 육아지원의 기능과 영향에 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 1·2·3차 일반조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4차년도 일반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009 연구에서는 일부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아동패널 2010 연구에서는 매해 이루어지는 2008년도 출생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 외에 2010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를 시행하여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일반조사는 동일한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매해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연구 전체의 목적과 필요성을 매해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 및 그에 따른 환경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므로 매해 이루어지는 일반조사는 각 연도별로 아동의 발달과 연령에 따른 세부 연구 목표 및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나. 한국아동패널 2011 연구의 목표

4차년도인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는 4차년도인 올해가 2008년에 출생한 패널 대상 아동들이 만 3세가 되는 시기라는 것과 관련이 된다. 만 3세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므로 패널 아동의 대부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 중의 하나로 등장한 육아지원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아동패널연

구의 범위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미시체계인 육아지원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체계 중 출생 후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아동의 발달에 가정 다음으로 중요하게 대두된 육아지원기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특성, 가정과의 연계, 교사의 특성, 패널 대상 아동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일상생활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둘째,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영역인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목표 중 하나이다. 패널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자료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수집되었다. 하나는 육아지원기관이라는 미시체계 안에서 아동이 보이는 사회성에 대해 교사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교사가 인지하는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성 발달 자료의 수집이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육아지원기관에 다니지 않는 패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자료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이 처한 미시체계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육아지원기관에서 교사가 인지하는 사회성과 가정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사회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4차년도에는 아동의 발달특성에 관한 자료를, 다른 아동들과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지표가 제공되는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패널 아동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어머니 보고식의 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K-ASQ, 허계형·Squires·이소영·이준식, 2006)와 아동의 수행 검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한국형 Denver-II(신희선·한경자·오가실·오진주·하미나, 2002)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발달 검사 도구는 모두 선별검사로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아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기능을 한다. 이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의 34~35쪽에 기술된 검사도구 선정의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표준화 발달 검사를 검토하였으며, 이 검토 결과는 아래의 네 번째 목표와 연결이 된다.

넷째, 유아기는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그 동안 선별검사를 통해 미흡하게 이루어진 아동의 언어 발달을, 언어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만 3세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시판 중인 표준화 발달 검사의 검토 및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이하 REVT)를 이용하여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가정환경에 대한 관찰과 어머니 면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Early Childhood -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Caldwell & Bradley, 2003;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 이하 EC-HOME 또는 HOME)를 통하여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계획 단계부터 HOME의 실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시도하지 못하였다. 첫째, 1차년도 일반조사 시에는 아직 패널 대상 가족과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일반 면접 조사원을 통하여서 가정에서의 관찰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HOME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2차년도 일반조사와 제1차 심층조사가 계획되어 있었던 2009년에 HOME 실시 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하였다. 그러나 심층조사에서는 패널 아동의 부모님들이 지정된 장소로 와서 베일리 발달 및 애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방문을 포함한 연구 설계를 구성하여 진행하기에는 시간 및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HOME을 조사에 포함할 수 없었다. 올해는 패널 대상 가정을 연속적으로 매해 방문한 면접 조사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 모두 패널 가정과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며, 덴버 발달 검사의 실시 등으로 표준화된 검사 진행에도 익숙해져 있어서 HOME의 관찰문항을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HOME을 일반조사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섯째, 지난 3년 동안 구축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이용, 아동패널관련 책자(가칭: 한국아동패널 자료 시리즈)를 발간하여 비전공자들도 용이하게 연구결과에 접근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의 시도로서, 올해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육아정책연구소편, 2011)를 발간하여, 2008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1세경이 되었을 때의 가족특성, 부모특성, 아동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을, 도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일곱째,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육아정책연구소 자체에서 정책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제1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들 중 다수의 논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적인 당면 문제인 저출산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후속출산과 관련한 두 개의 연구 논문을 육아정책포럼을 통하여 발표하여 국가적인 의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여덟째, 2011년에는 국제 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며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헤크먼(Heckman) 교수와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런던 버벡대학 멜휘시(Melhuish)교수 초청되어 영유아기 및 조기투자의 중요성에 관한 기조 강연을 해주었다. 두 석학은 모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단연구는 물론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관심을 크게 표명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의사를 시사하였다. 미국 거주 한국계 교수들, 외국의 영유아 교육·보육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구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고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홉째, 국외 아동패널과 관련된 패널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National Children's Study(NCS)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 미국 듀럼(Durham)에 있는 바텔(Battelle)연구소 방문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와 향후 공동 연계하여 상호협력 증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NCS에서는 최근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환경학적인 변인들에 관한 방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루어질 한국아동패널 심층조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변인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한국아동패널 2011의 실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매년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영유아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과 재정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원활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국가수준의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논문공모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논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귀중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달로 연결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육아정책과 그에 관련된 연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실시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에 관해 수집되는, 방대한 자료는 관련 학계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위한 이론적 틀의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반 사회적 현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실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전공자들을 위한 자료집 발간, 정책세미나 및 정책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목표 달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첫째, 국내외 관련 패널조사 및 영유아 대상 관련 패널조사들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패널조사의 출현뿐만 아니라 기존 패널조사들을 계속 추적함으로써 연구 경향과 변화 추이 및 결과를 파악하였다.

둘째, 4차년도(2011년) 일반 조사 실시를 위해 3차년도(2010년) 일반 조사 이후 기존 문항 중 제외 또는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 내용을 확정하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특성, 및 육아지원정책특성이 포함되었다.

셋째, 질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질문지를 웹 질문지로 개발하였다.

넷째, 3차년도 조사 이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들에 관한 인지도,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패널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 및 반일제 이상 학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동의 발달에 따른 행동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행동 문항으로 이전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4차년도에는 경제학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경제 관련 변인들을 수정, 보완, 추가하였다. 그

밖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 여겨지는 패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직업관련 문항 등은 CAPI 상에서 지난해의 자료를 연동하여 전년도 정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구현되도록 로직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한국아동패널 2011의 연구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패널 대상 아동들이 만 3세가 되는 시기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올해에는 패널 아동들이 공식적으로 유치원에 등록 가능한 시기이므로, 패널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 및 반일제 이상 학원의 담당교사 또는 강사를 통하여 아동의 또래놀이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및 하루 일과, 교사의 특성, 기관의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참여,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교사의 교수효능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섯째, 가정에서 보이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또래놀이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곱째, 아동의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는 유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 관한 수행검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덟째,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연구 방법¹⁾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국내외 관련 패널 연구들의 최근 경향을 문헌이나 관련 웹사이트 및 간행물을 통해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4차년도 일반조사와 발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문지의 문항 구성 및 발

1) 연구방법 중 조사방법과 검사 등 측정도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보고서의 부록 7에 수록된 도구프로파일을 참조할 것.

달검사 선정에 관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가로부터 지문을 구하였다. 4차년도 전문가 협의회는 발달검사 관련 협의회, 언어검사 관련 협의회 및 워크숍, 유아교육 관련 협의회, 경제 문항 관련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 설문조사

1) 4차년도 일반조사

한국아동패널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1년 6월 셋째 주부터 11월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에 따라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부모 이외에 주양육자 및 기타 가구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우편설문조사는 지필식 질문지이며, 어머니 대상과 아버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대상은 64문항, 아버지 대상은 22문항이며, 각각의 소요 시간은 20~30분, 5~10분 정도이다.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에, 2011년 본 조사에 대한 안내(부록1 참조)와 함께, 부모용 질문지를 패널의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가구방문 면접원이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 시 회수하였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면접조사원이 패널 가구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하였다. 면접은 98문항으로 이루어진 CAPI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30~40분이었다.

2) 4차년도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 조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이나 영어 학원, 놀이학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 또는 학원의 담당강사를 통하여 기관의 물리적 환경,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사 효능감, 또래 상호작용, 부모참여, 패널 아동의 일과 등에 관한 자료를 웹 질문지로 수집하였다. 일반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가구방문 시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 또는 학원의 강사를 통한 자료 수집에 대하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더불어 해당 육아지원기관(또는 학원)의 장에게 한국아동패널 연구와 기관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의 협조를 구하였다.

라. 발달검사

1) 언어발달검사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각 가구방문 시 언어발달을 측정하는 개별검사인 REVT를 실시하였다.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검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어휘력 검사(김영태 등, 2009)이다.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 각각 18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를 받는 아동의 능력에 따라 검사소요 시간이 다르지만, 4차년도 조사에서 REVT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REVT 검사의 정확한 수행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통해 REVT 검사 개발자 및 언어치료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구에 대한 이해와 실습의 기회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서 조사원별로 REVT 검사를 실제 수행한 초기의 검사 결과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조사원 전체 및 개별 지침을 새롭게 작성하여 배포하여 숙지하도록 하였다.

2) 사회성 발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33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가정환경검사

한국아동패널의 부모를 대상으로 EC-HOME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검사인 EC-HOME은 CAPI로 제작되었으며 가구방문 면접 시 부모에게 실시되었다. EC-HOME은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및 수용성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5문항이다. 면접 및 관찰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바. 자료 처리 및 가중치 부여

3차년도(2010년)의 일반조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데이터 에디팅(data

edit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에서 수집된 횡단적 데이터 상호간의 비일관성에 대한 에디팅과 1·2차년도 자료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종단적 에디팅도 함께 실시하였다. 표본추출확률 계산을 통한 설계가중치 생성, 무응답자 조정을 통한 가중치 생성 및 사후층화 조정을 거쳐 3차년도 최종 횡단 가중치 값을 산출하였다.

사. 한국아동패널 연구 성과 확산 및 홍보

1) KICCE 국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KICCE 국제 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2011년 8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는 후속 출산, 아버지 변인, 영아 기질과 양육, 영아 발달, 영아 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취업관련 변인, 자녀양육행동 및 육아지원 서비스라는 주제에 대하여 2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에 관련된 연구자의 수는 57명이었으며, 학술대회 참여자의 수는 340여명이었다. 학술대회 일정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질문지의 영문본²⁾ 공개하였으며, 2차년도 자료 공개 시 제공될 사용자 매뉴얼, 코드북 및 도구프로파일을 제작 중에 있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질문지, 코드북 및 도구프로파일의 영문판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2) 정책세미나 개최 및 육아지원정책 포럼 발표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한 육아정책 세미나가 '자녀 양육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2011년 4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후속출산 증진과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11월에 개최한 육아지원정책 포럼을 통해 후속출산의도 및 계획과 관련된 논문을 두 편 발표하였다.

2)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kicce.re.kr/panel>) 메인화면의 질문지 바로가기를 통해 볼 수 있음.

3) 발달 리플렛 제작, 홍보 책자 발간,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개정 및 브로슈어 제작

4차년도 조사 시점의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의 연령인 만36개월경에 나타나는 아동의 발달적 특징들을 소개하는 발달 리플렛³⁾을 제작하여 한국아동패널 참여자 가정에 배포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⁴⁾ 라는 육아정책연구소편(2011)의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였다. 각 변인특성별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결과를 서술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족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관련 특성, 남편의 양육참여,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자원
- ② 부모특성: 어머니의 근로 특성, 임신과 출산, 부모의 정신건강, 부부관계, 양육특성
- ③ 아동특성: 아동의 건강 특성, 아동의 발달, 기질, 기초생활습관
- ④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서비스 이용 현황, 개인대리양육, 어린이집
- ⑤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시설, 공공여가와 문화시설, 치안 및 안전, 전반적인 육아적절성, 위탁가구의 지역사회
- ⑥ 육아지원 정책 특성: 일과 가정 양립정책,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이러한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도모하였다.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정하였으며 패널 대상 가정을 위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올리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브로슈어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며, 부록 4에 수록하였다.

4) SRC(D(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발표 및 해외 출장을 통한 자료수집

3) 본 사업보고서의 부록 3에 수록하였음.

4)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kicce.re.kr/panel>) 발간자료에 탑재되어 있음.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와 심층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결과물 두 편을 SRCD 2011년 학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하였다. 포스터의 제목은 Predictors of Infant Mental Development: Maternal Value of Children,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Temperament, Parental Style, and Attachment(Kim, Wang, Song, & Lee, 2011)와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Developmental Delay in Infancy: Role of Marital Satisfaction(Lee, Kim, Song, & Wang, 2011)이다.

SRCE 학회에서의 포스터 발표 후, 최근 국외 아동관련 패널 연구 중 대규모로 진행 중인 NCS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 미국 북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듀럼(Durham)에 위치하고 있는 바텔(Battelle)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표본 구축과정에서부터 조사 진행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4. 해외패널 연구사례

한국아동패널조사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로 참고한 네 개의 패널조사(한국 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복지패널조사 및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네 개의 영유아 종단연구(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Birth Cohort, 및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는 그 주요 내용이 시사점과 더불어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2010년 사업보고서(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 외, 2010)에서는 2006년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패널연구 및 종단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외와 국내로 나누어 패널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사업보고서에서는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고찰한 사례연구들에 대한 최근 정보를 추가하였고⁵⁾, 종결된 패널 연구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특별히 2011년 4월 초에는 NCS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바텔 연구소를 방문하여 혈

5) 연구의 최신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업데이트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 외, 2010)의 내용을 참고할 것.

액, 타액, 소변, 질 분비물 등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요인 및 집안의 먼지와 수도물 등과 같은 환경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 및 절차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 National Children's Study(NCS)⁶⁾

NCS는 아동들의 건강과 발달에 관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종단 연구로, 여러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연구함으로써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목적 하에 차세대 아동 건강의 증진, 질병예방에 대한 중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두연구(Vanguard Study)와 주 연구(Main Study)의 두 단계로 구성된 MCS는 2009년 1월에 선두 연구의 조사대상 모집을 시작하였다. 선두연구 단계에서는 다단계 확률표본(multistage probability sample)을 사용하였으며, 두·세 단계로 표집이 이루어져, 2025년 이후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연구 조사원이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아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의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자료수집,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지역아동센터(study center) 방문 등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NCS에서는 “환경”을 폭넓게 정의하여 공기, 물, 소리, 집안의 먼지와 같은 요인들, 식습관, 가족의 역동성, 보육 특성, 거주 지역과 문화적 영향 등의 자연적 또는 심리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최초 조사 시점에서는 임신부의 식습관, 환경,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정서적 스트레스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기적으로 혈액, 소변, 침, 질 분비물 등과 같은 생물학적 샘플과 공기, 물, 먼지와 같은 환경적 샘플을 집에서 채취한다. 혈압, 신장, 몸무게를 측정하며 참여자에게 식단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⁷⁾.

조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⁸⁾.

-
- 6) <http://www.nationalchildrensstudy.gov/Pages/default.aspx>와 What You Should Know About Joining the National Children's Study(2011.4.4. NCS 수행연구기관인 바텔 연구소 방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음.
 - 7) NCS에 포함된 조사 내용 중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혈액, 오줌, 질 검사 도구와 환경적인 요인 중 하나인 먼지 채취과정에 관한 사진내용이 부록 5에 수록되어 있음. 이 사진들은 바텔연구소의 허가 하에 한국아동패널의 연구진이 찍은 것임.

- 임신 결과: 포도당 신진대사의 손상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 염증매개물에 대한 자궁내의 노출로 인한 조산 위험의 증가; 모성의 무증상 갑상선저하증과 신경발달 지체/유해한 임신 결과
- 신경발달과 행동: 잔류성분이 없는 농약과 신경행동 및 인지 기능; 태내 감염과 신경발달 장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행동; 태내 및 출생전 후기 감염과 정신분열증
- 아동 건강과 발달: 가족, 이웃, 지역사회, 미디어의 노출, 사회 기관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천식: 아동기 천식에 있어 출생 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전의 역할; 실내와 실외 공기 오염에 대한 노출, 공기 중 알레르겐과 천식 위험; 식품 항산화제와 천식 위험; 천식 차이에 대한 사회 환경적 영향; 미생물의 구조적 성분과 생성물에 대한 조기 노출과 천식의 위험 저하; 유전과 환경적 노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천식의 위험 증가
- 비만과 성장: 비만과 모성의 포도당 신진대사의 손상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 비만과 자궁내 성장제한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 모유수유와 낮은 수준의 비만 및 인슐린 저항 위험; 섬유질, 통곡식, 고당지수(high glycemic index) 및 비만과 인슐린 저항; 유전 및 환경적 노출과 1형 당뇨
- 부상: 경증이지만 반복되는 뇌 부상과 인지신경 발달; 행동적 노출, 유전 및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공격성 시작; 선행사건과 아동기의 외상적 생활 사건에 대한 탄력성
- 생식기관 발달: 호르몬 생성 환경 인자와 생식기관 발달

나.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 (NEILS): A National Study of Infants, Toddlers, and Their Families Receiving Early Intervention Services⁹⁾

NEILS의 조사대상은 3,338명의 장애아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들과 그 가족으로, 조기 개입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추적하는 중

8) National Children's Study Scientific Areas of Interest (2011. 4. 4. NCS 수행연구기관인 바텔 연구소 방문으로부터 얻은 자료임.)

9) <http://www.sri.com/neils/>를 참고하였음.

단적 연구이다. 1997년 9월부터 1998년 11월 사이에 연구대상을 모집하여 조사가 완료된 이 연구의 다섯 가지 연구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NEILS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기개입은 지체 또는 장애로 인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인식은, 조개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 관해 받은 진실이고 받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지체 또는 장애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아동들은 중증의 장애를 가졌으며 학교생활 내내 특수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던 아동들 중 상당수가 유치원을 다닐 연령 즈음에는 더 이상 지체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셋째, '조기개입은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인식과 달리, 어떤 아동들은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고 "고쳐졌다." 그러나 조기개입으로 인해 고쳐진 것인지 아니면 아동들 스스로 좋아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넷째, '이전에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아동들 중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경제선상"에 있으며 수년 내에 특수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IEP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많은 아동들이, IEP가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만큼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었다. IEP를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추후에 IEP가 필요할 거라는 증거는 없었다. IEP가 받지 않는 아동들도 학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또래아이들과 동일해 보였다.

다섯째, '조기개입 서비스는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돕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어떤 조기개입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이 밝혀졌다. 받고 있는 조기개입 서비스가 무엇이든,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직접적인 조기개입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개입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 서비스 연계(service coordination), 특수교육/아동발달, 언어치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10) Hebbeler와 Spiker(2011)를 참고하였음.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은 평균 연령은 4.1세이고, 대부분의 가족(76%)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서비스를 받은 시간의 중위값은 일주일에 1.5시간이었으며, 약속한 또는 계획한 서비스의 약 23%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해로 4차년도 of 조사를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는 대상 아동이 만 3세가 됨으로써 그 발달을 고려하여 언어 발달과 사회성 관련 변인을 추가하였고, 연구 범위를 대상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내용의 확대에 대한 논의 - 생물학적, 환경적 샘플의 채취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 - 가 본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외국의 다른 패널연구가 나아가는 방향을 참조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기간을 연장, 전 생애를 포함하는 패널연구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시사점이라고 사료된다.

5. 보고서 구성

2011년에 발간되는 한국아동패널 관련 보고서 총 3종으로,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 201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보고서』(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김지형, 2011)이다.

사업보고서와 기초분석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에디팅에 소요되는 1여년 정도의 시간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조사내용 및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당해 연도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이 동일한 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으로 하나의 보고서에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의 기초분석보고서가 같이 수록되기에는 내용과약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의 방대함에 따른 기초분석보고 내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분리해서 발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협의되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는 전년도 12월에 조사가 완료되었고, 부가조사의 내용과 절차는 일반조사와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개의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어동패널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 <표 I-5-1>과 같다.

<표 I-5-1> 보고서 구성 및 내용

보고서	구성 및 내용
한국어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 총 4장으로 구성. - 1장. 한국어동패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및 방법, 선행 연구, 보고서 구성 - 2장. 한국어동패널 개요, 1·2·3차년도 일반조사, 제1차 심층조사,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3장. 4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방법, 절차, 조사 성공률 및 원표본 유지율, 홈페이지 개편, 향후 추진 계획 - 4장. 부록(한국어동패널 2011년도 일반조사 안내문,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어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한국어동패널 2011 발달 리플렛, 한국어동패널 국문 및 영문 브로슈어, NCS 기관방문 사진, 한국어동패널 홈페이지 화면, 2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한국어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 총 3장으로 구성. - 1장. 3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분석 개요로서,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과 표본특성 - 2장. 3차년도 일반조사 자료의 기초분석 내용(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 관련 특성) - 3장. 부록(3차년도 기초분석 질문지)
한국어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 총 4장으로 구성. - 1장. 부가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 2장. 일반조사와 부가조사의 연구 대상, 내용 및 방법의 특성 비교 - 3장. 부가조사의 분석 내용 - 4장. 부록(부가조사 면접용 질문지, 전화용 질문지, 조사참여자 선물)

II. 한국아동패널 개요 및 진행경과

1. 한국아동패널 개요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6년 모형개발,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에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조사기간은 13년으로, 패널대상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패널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20년까지이다. 패널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15년까지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표 II-1-1 참조).

<표 II-1-1>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일반조사										심층조사	비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등1)	9세 (초등3)	12세 (초등6)			
2008년	1차												조사 완료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일반조사완료.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2011년				4차									
2012년					5차								2차
2013년						6차							
2014년							7차						
2015년								8차					3차
2017년									9차				
2020년											10차		

주: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연구(장명림 외, 2006, p.63)의 표를 매해 업데이트하고 있음.

한국아동패널의 일반조사, 심층조사 및 부가조사를 요약한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 <표 II-1-2>와 같다.

〈표 II-1-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연도	주요 사업		주요 내용
2006	한국아동패널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패널조사 모형 개발의 기초 탐색 - 조사설계 - 표본설계 - 조사영역 및 항목 1차 선정
2007	예비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동패널 표본설계 확정 - 1차년도 조사내용 및 도구 확정 - 1차년도 연구방법 확정
2008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구축 (2,078 신생아 및 가구) - 1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면접조사원 교육 - 1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1차년도 자료구축 사전 작업 - 2차년도 조사 준비
2009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자료 처리 및 기초분석 - 2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면접조사원 교육 - 2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3차년도 조사 준비
		제1차 심층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심층조사 변인 및 측정 방법 확정 -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센터 설치 - 제1차 심층조사 대상자 모집 - 제1차 심층조사 실시
2010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년도 자료 처리 및 기초분석 - 3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면접조사원 교육 - 3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4차년도 조사 준비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질문지 확정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원 교육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실시
2011	4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년도 자료 처리 및 기초분석 - 4차년도 일반조사 질문지 확정 및 CAPI 프로그램 개발 -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CAPI 프로그램 개발 - 가정환경자극검사(EC-HOME) CAPI 프로그램 개발 - 4차년도 육아지원기관 교사대상 웹 질문지 개발 - 면접조사원 교육 - 4차년도 일반조사 실시 - 5차년도 조사 준비

2. 한국아동패널 1·2·3차년도 일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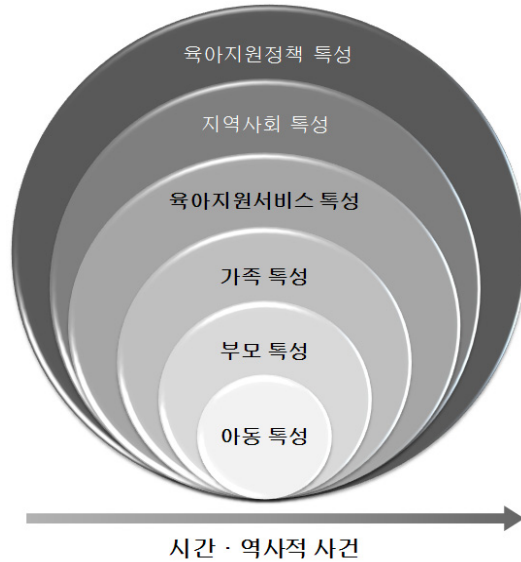
가. 일반조사 대상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도부터 기초적인 준비를 통해 2008년도에 표본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향후 다년간 추진될 장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모형에서 계획된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2,078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1차년도 일반조사를 완료하였다(조복희 외, 2009). 2009년도에는 총 1,904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2차년도 일반조사를 실시하였고(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 2010), 2010년도에는 1,80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3차년도 일반조사를 수행하였다(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 2011).

나. 일반조사 내용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 조사로서 패널 아동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9세와 12세 때 각각 1회씩 실시하게 된다. 일반조사에는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 외에 아동의 발달을 측정하는 검사(항목)가 포함되며, 이러한 검사 문항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 및 변인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들이 매년 수정되거나 새로운 검사가 추가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로 삼아,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 하여 조사 영역을 조직하였다. 조사 영역은 출생 후 지속되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아동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으로 밝혀진 부모, 가족 및 육아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또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위해 각 아동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거시적인 체계를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하였다(그림 II-2-1 참조).



[그림 11-2-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자료: 장명립 외(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66.

다. 일반조사 방법

일반조사의 경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CAPI 방식으로 조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된다.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한다.

위의 두 가지 조사방법과 더불어, 4차년도부터는 웹 조사가 추가되었다. 이는 패널대상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담당강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방법이다. 각 육아지원기관 또는 학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과 우편조사 방법의 저조한 회수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우편으로 발송되던 어머니와 아버지 대상 질문지의 경우, 응답의 편리를 위하여 4차년도부터 원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웹 조사가 제공된다.

위의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조사 대상 또는 조사 변인 등에 따라 전화조사 등을 병행한다. 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개별 수행검사는 가구방문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조사 시에 실시한다.

3.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¹¹⁾

한국아동패널에서는 2009년, 2012년, 2015년의 3차례에 걸쳐, 아동의 발달을 깊이 있게 조사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아동기는 신체 및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모든 발달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지는 일반조사로는 아동들이 발달해 가는 양상을 포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주변 인적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심층조사 대상

제1차 심층조사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일반조사가 수행된 2009년에 실시되었고, 전체 패널 중 약 10%인 부/모-아동 206쌍¹²⁾이 참여하였다.

나. 심층조사 내용

제1차 심층조사에서는 아동의 발달 전반, 애착, 기질 및 어머니의 성격을 측정하였으며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 I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1) 심층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발간된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보고서』(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이숙 외, 2010)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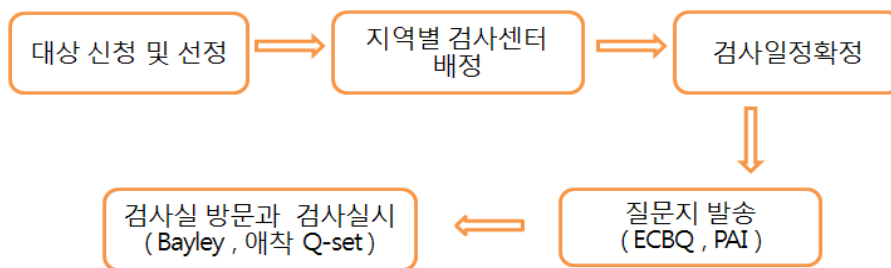
12) 애착과 기질에서 각 1쌍이 아버지가 응답하였음.

〈표 II-3-1〉 제1차 심층조사 내용, 도구 및 자료수집방법

변인	하위	도구	자료수집방법	비고
발달 전반	- 인지, 동작, 행동평정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 검사 제2판 (박혜원·조복희, 2006)	아동 수행검사	검사실 방문
애착		한국판 애착 Q-set (이영·박경자· 나유미, 1997)	부/모 면접	검사실 방문
기질	- 활동수준(Activity Level/Energy) - 주의집중(Attentional Focusing) -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ing) - 밀착성(Cuddliness) - 불편감(Discomfort) - 두려움(Fear) - 분노 좌절(Frustration) - 강한 기쁨(High-intensity Pleasure) - 충동성(Impulsivity) - 억제 통제력(Inhibitory Control) - 낮은 기쁨(Low-intensity Pleasure) - 활동성(Motor Activation) -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 - 접근 기대(Positive Anticipation) - 슬픔(Sadness) - 부끄러움(Shyness) - 사회성(Sociability) - 반응진정성(Soothability)	ECBQ (Putnam, Garstein, & Rothbart, 2006)	부/모 대상 질문지	유치 조사
성격	- 타당성 척도 - 임상척도: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 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 분열병, 경계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문제, 약물사용 - 치료고려 척도: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 - 대인관계 척도: 지배성, 온정성	성격평가질문지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김영환·김지혜· 오상우·임영란· 홍상환, 2001)	어머니 대상 질문지	유치 조사

다. 심층조사 방법

심층조사는 아동의 발달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료 수집에 있어 일반조사와는 달리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므로 권역별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심층조사 진행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II-3-1]과 같다.



[그림 II-3-1] 심층조사 진행절차

주: 이정림 외(2010).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 17의 간략형임.

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¹³⁾

앞에 기술한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 및 심층조사와는 별도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이하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부가조사의 목적은 첫째, 출생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과 부모의 특성 및 태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2008년도 제1차 한국아동패널조사(조복희 외, 2009)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들과 비교하는 것과 둘째, 2009년에 도입 또는 확대 실시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인식여부, 이용여부 및 도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13) 부가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발간된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이정림 외, 2011)를 참고할 것.

가. 부가조사 대상

부가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에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다. ‘한국아동패널 2008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표본추출방법인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과 표집 틀을 이용하여, 전국의 6개 권역(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산부인과에서 1,00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집하였다.

권역별 병원조사에는 표집된 신생아 1,000가구가 참여하였고, 병원조사 4개월 후에 이루어진 전화조사에 참여한 가구 수는 다음의 <표 II-4-1>과 같다.

<표 II-4-1>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권역별 참여가구

단위: 가구

구분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합계
병원조사	160	308	126	137	173	96	1,000
전화조사	127	242	88	74	132	68	731

자료: 이정립 외(2011).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7, p.8.

병원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한 후, 각 조사의 응답자에게 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아기용 그림책을 증정 또는 발송하였다.

나. 부가조사 내용

부가조사에서 수집되는 조사내용 중 출산 직후 면접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신생아 특성, 어머니 특성, 임신 및 출산의 세 영역이었다. 부가조사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도움 여부, 분만 형태 및 과정, 분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이수 방법 등 임신관련특성과 출산관련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과, 태교 필요성 인식 여부, 태교 경험 및 태교방법, 태교에 대한 정보 제공, 태교시작 시기, 태교 받지 않은 이유 등 태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임산부들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태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 임산부의 태내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임신 중 산모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자 한 것, 그리고 임산부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여부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배우자와의 갈등, 시댁 또는 친정과의 갈등, 이혼, 실직, 가족의 죽음,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임신 중 겪은 사건이 있는지 여부

와,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느꼈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2008년도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1차 자료의 분석 결과 '여아를 남아보다 더 선호한다.'로 보도되었던 내용이 부가조사 대상 어머니의 자녀성별 선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것도 부가조사 내용의 특징이다.

4개월 후에 실시한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한 문항은 정책내용 인지여부와 수혜여부 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가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II-4-2>, <표 II-4-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4-2>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병원면접용

영역	변인
일반적 특성	신생아와 산모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임신 및 출산	임신 관련 특성, 출산 관련 특성, 분만 교육, 태내 환경, 태교
어머니 특성	취업/학업상태, 계획, 심리적 특성
부모 특성	양육 특성
가족 특성	가족생활사건

자료: 이정림 외(2011).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2.

<표 II-4-3>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조사내용: 전화조사용

영역	변인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기질
임신 및 출산	태교, 후속 출산 계획
어머니 특성	인구학적 특성, 부모됨, 양육 효능감, 남편의 양육참여, 우울, 직업계획,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육아지원정책

자료: 이정림 외(2011).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2.

다. 부가조사 방법

부가조사는 출산 직후 수행된 면접조사와 4개월 후 실시된 전화조사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면접조사는 관련 학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부가조사를 위해 훈련받은 면접원이 출산 후 입원 중인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인 신생아 가구의 산모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행하였

다. 면접원이 2010년 4월과 8월 사이에 주 2회 병원을 방문하여 이 기간 동안에 출산한 모든 산모를 접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면접 장소는 해당병원의 입원실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일인당 약 20~30분이었다. 면접 질문지가 모두 수거된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편칭에러를 검토하였고 병원방문 면접조사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둘째, 전화조사는 면접조사 실시 4개월 후인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병원에서의 면접 시 4개월 이후 실시되는 전화조사에 응하겠다고 동의한 795가구를 위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31가구(91.9%)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표 II-4-4 참조).

〈표 II-4-4〉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중 전화조사 완료 수

단위: 가구, %

구분	서울권	경인권	충청/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	전체
병원표본수	160	308	126	137	173	96	1,000
전화조사 동의자수	138	282	98	66	137	74	795
성공률	92.0	85.8	89.8	112.1 ¹⁾	97.1	91.9	91.9

주: 성공률은 병원조사 표본가구를 모두 연락하여 성공한 사례수가 포함됨.

자료: 이정립 외(2011).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8.

5. 가중치 작성¹⁴⁾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이 구축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14) 가중치 부여방법은 한국아동패널연구에 매해 조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됨. 각 연도별로 가중치의 보정 시 설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 가중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할 것.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설계된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②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③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보정 등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아동패널과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조사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도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 2차년도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09년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가 매년 수행됨에 따라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나. 3차년도 가중치 보정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2010년) 조사결과 패널 가구 응답여부에 따른 분포는 <표 II-5-1>과 같다. 1차년도 원 패널 2,078가구 중에서 2차와 3차년도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가구는 1,704가구로 1차년도 패널 기준 원 패널 표본 유지율은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374가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와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48가구,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2차년도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3차년도 조사에 다시 참여했던 39가구, 1차년도 조사에만 참석하였던 187가구로서, 이는 1차년도 조사 참여 기준으로 이후의 조사 참여를 살펴보았을 경우이다. 한편,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새로 52가구가 한국아동패널에 추가로 참여하였고, 이들 가구 중 39가구는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13가구는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차년도에 새로 20가구가 참여하여 3차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802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II-5-1〉 3차년도 아동패널가구 응답여부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2008년 참여 여부	2009년 참여 여부	2010년 참여 여부	가구수	비율(%)
원패널-조사 성공	○	○	○	1704	79.3
원패널-3차년도 탈락	○	○	X	148	6.9
원패널-2차년도 탈락	○	X	○	39	1.8
원패널-2, 3차년도 탈락	○	X	X	187	8.7
2차년도 신규참여	-	○	○	39	0.6
2차년도 신규-3차년도 탈락	-	○	X	13	1.8
3차년도 신규참여	-	-	○	20	0.9
합 계				2,150	100.0
(3차년도 조사 성공가구)	-	-	-	(1,802)	

2차와 3차년도 조사까지는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에서 해당 연도의 표본으로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4차년도 조사부터는 3차년도 조사에서 최종으로 구축된(예비표본 중 최소한 1차, 2차, 3차 조사 중 한번 이상 참여한 가구) 2,150 가구 외에 더 이상 표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차, 2차, 3차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4차년도 자료의 구축만으로는 종단적 연구의 의미가 없고, 이미 3차년도 조사까지 참여하지 않은 패널의 참여를 유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더불어서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신규패널로 인해 매해 다소 다른 기준의 패널 수(예, 1차년도 2,078, 2차년도 2,130, 3차년도 2,150)로 가중치 작업을 새롭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3차년도 이후부터는 2,150가구가 가중치 산출 시 기준패널 수로 적용될 예정이다.

1차년도와 3차년도 응답 현황을 비교해 보면, 권역별로는 대구/경북,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 순서로 표본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학업중인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취업중인 어머니가 미취업 어머니보다 표본 탈락률이 더 높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표본 탈락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응답 현황에서 나타났던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표본 탈락률이 높고 대구/경북지역이 탈락률이 높지 않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다. 또한 1차년도와 2차년도 응답 현황에서 취업모 어머니가 표본 탈락률이 더 높았던 양상과는 다소 달랐다. 지난해의 표본 탈락률이 높았던 지역의 경우, 3차년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사 조사팀에서 탈락률이 높았던

던 이유를 분석하고 유실률을 줄이기 위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실행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원 표본 패널 유지율, 권역별 패널 유실률 및 지역규모별 패널 유실률은 <표 III-4-1>, <표 III-4-5>와 <표 III-4-6>에 제시하였다.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은 3차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원패널 표본 중 조사에 성공한 1,704가구와 2차년도 조사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3차년도 조사에는 성공한 39가구, 2차년도 신규 참여 가구 중 3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39가구와 3차년도 신규 참여 가구 20가구를 포함한 전체 1,802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최종 가중치는 1차년도 패널 중 3차년도 무응답 335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 보정 후, 통계청의 2010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과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 하였다.

우선 1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위해,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해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했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3차년도(2010년)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2008년 조사 변수들 중 가구 및 조사대상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거주지, 성별, 어머니 취업여부, 아동출생순위, 어머니 최종학력, 어머니 연령, 월평균가구소득)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모형을 기초로 응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통계적인 변수선택방법을 통해 추출했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2차년도 응답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로지스틱 분석결과 패널 가구의 응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 특별한 유의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해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던 거주지, 출생순위 및 어머니 취업여부의 세 가지 항목은 여전히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인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에도 동일한 변수들을 무응답 조정 계급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은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대 둘째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

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한국아동패널의 최종 가중치는 통계청의 2010년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권역별로 2세 남녀 아동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 2010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0년 한국아동패널 가중치의 기술 통계는 <표 II-5-2>와 같다. 최종 가중치의 평균은 255.17, 표준편차는 144.24, 최소값은 33.05, 최대값은 82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2> 3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결과(2010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255.17	144.24	1,802	33.05	822.04

다.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 \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패널조사의 경우 횡단면(cross-sectional)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아직 종단면 분석을 할 정도로 연도별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 횡단면 가중치만을 조사 자료와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조사 완료된 1,904가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 횡단면 가중치를, 2010년 조사 완료된 1,802 가구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2010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생아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통계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표 II-5-3 참조).

〈표 II-5-3〉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중치 적용

구분	가구수	2008년 횡단면 가중치 적용	2009년 횡단면 가중치 적용	2010년 횡단면 가중치 적용
2008년 1차조사	2,078	O	X	X
2009년 2차조사	1,904	X	O	X
2010년 3차조사	1,802	X	X	O

Ⅲ.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일반조사

1. 4차년도 일반조사 내용

한국아동패널의 조사영역은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의 6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일반조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 조사를 위해 구성된 설문 내용을 기초로 하여 1년 단위로 조사가 거듭될 때마다 패널인 대상 아동의 연령 증가, 아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등 변화 요인을 참작하여 부적절한 설문 항목의 삭제 및 필요한 문항의 추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병원 조사가 실시되었던 1차년도 조사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특성이 포함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항은 삭제되었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성과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문항들은 추가되었다. 2010년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교육 관련 문항, 육아지원 정책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인 K-ASQ와 한국형 덴버Ⅱ는 4차년도부터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발달 영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4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언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패널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을 알아볼 수 있는 언어발달검사인 REVT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아동 발달특성을 알아보는 기질 및 기초생활습관 등의 척도들은 매년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적절한 문항으로 교체되었다.

올해 만 3세가 된 패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의 특성(실내·외 환경,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간), 가정과의 연계(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교사-부모 의사소통), 교사 특성(일반적 경력 사항, 교사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 특성(또래 상호작용, 기관에서의 일상생활, 교사 선호도)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시하였고,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아래에서 4차년도 일반조사에서 삭제 및 수정된 내용과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술하고자 한다.

가. 발달특성 변인과 검사 선정

1) 발달특성 변인 선정 배경

한국아동패널이 4차년도가 되는 올해는 대상 아동들이 만 3세가 되어 유아기로 접어들므로, 영아에서 유아로 성장하는 발달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관찰·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도 1차 조사부터 2010년도 3차조사까지 K-ASQ와 한국형 덴버II를 사용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두 발달검사 모두 표준화된 검사로서 국제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구이므로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에서 아동 발달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으로 사용되어왔다.

K-ASQ와 덴버II 검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별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패널 표집 당시 정상발달을 보이고 있는 아동들을 표집하였고, K-ASQ와 덴버II 검사가 3년 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선별 검사는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두 검사 모두 발달지수(developmental quotient)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실제 생활 연령과 발달 연령의 정도를 측정하여 전체 아동들 간의 개인차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4차년도 실제 조사 시작에 앞서 패널 아동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발달특성 변인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었다.

2) 발달특성 변인 선정과정

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K-ASQ와 덴버II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들을 검토하였다. 아동의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있다면, 그런 도구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만 3세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거의 모든 도구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검색한 검사들과 전문가들이 추천한 검사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였다.

- ①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발달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가, 아니면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가?
- ② 선별검사보다는 진단평가도구에 해당하는가? 검사결과상 발달지수를 제공하여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4차 자료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 ③ 심리측정학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로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최근에 표준화가 되었는가?
- ④ 한국아동패널연구가 한국 아동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서 타 국가와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도구인가?
- ⑤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도구인가? 검사자가 아동의 수행을 직접 검사하여야 하는 도구인 경우라면, 검사자 훈련과 검사의 표준화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전국 단위의 대규모 패널조사의 실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가?
- ⑥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 대상인 만 3세(24~36개월) 아동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인 만 6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가?

여러 가지 검사도구 중 이상의 기준을 가장 근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 발달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아동발달검사(김정미·신희선(2006);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 언어발달에 해당하는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등, 2009);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사회적 발달을 측정하는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김옥기, 1995; Social Maturity Scale), 지능을 측정하는 한국판 카이제-코스 정신발달검사(여광응·김영환·김춘일·문태영, 1996; Korean-Kohs Mental Developmental Test: K-K-MDT)를 선정하고, 이 네 가지 도구들의 특성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검사를 한국형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 및 영유아 심리측정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관련 도구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각 도구의 특성과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일반조사 발달검사용 도구별 특성

고려 준거	K-CDI (김정미· 신희선, 2006)	REVT (김영대 등, 2009)	사회성숙도 (김승국· 김옥기, 1995)	K-K-MDT (여광웅 등, 1996)
검사 영역	발달 전체	언어	사회성	지능
표준화 여부	O	O	O	O
발달지수 제공 여부	O	O	O	O
아동수행 여부	X	O	X	O
국제비교 가능 여부	O	X	O	O
만 3세 포함 여부	O	O	O	O
만 6세 사용 여부	O	O	O	X

K-CDI의 경우 표준화된 검사이고 잠재적인 위험군 집단을 발견해주는 선별적인 기능 이외의 발달지수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동이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평정하는 검사이므로 발달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아동 패널연구의 3차년도까지 사용했던 K-ASQ 역시 부모의 보고를 통해 발달자료를 수집하는 검사이므로, 새 검사 도구로써 부모가 평정하는 K-CDI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주응답자인 어머니가 면접용 질문지인 CAPI와 어머니용 질문지도 응답해야 하므로 또 다른 부모 대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부담감을 더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REVT는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화된 언어 발달 검사로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를 측정한다. 이 검사는 어휘발달 연령을 제공하므로 생활 연령과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일 연령대의 아동과 상대적인 어휘능력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어휘능력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제공되며, 검사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넓어 패널조사에 유용하므로, 언어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 3세 유아의 언어 발달을 검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REVT의 단점은 검사 실시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검사자 훈련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사회성 발달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검사 문항을 행동 영역 별로 검토하여 아동의 영역별 적응행동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수행이 아닌 부모가 평정하는 검사이므로 부모의 판단에 따라 아동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검사의 목적이 대상의 치료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과 장애 판별이므로,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K-K-MDT는 비언어적 능력검사로 언어적 요인이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일반적 지능을 잘 나타낼 수 있으나 만 6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도구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장단점 분석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에서 사용될 발달특성 변인은 언어발달 검사인 REVT가 최종 선정되었다. REVT는 만 3세 유아에게 실시할 수 있고, 점수화 하여 각 대상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같은 도구를 매년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어 패널연구의 특징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REVT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언어 발달은 각 나라별로 문법적, 혹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언어 발달 이외의 발달 영역은 심층조사에서 보완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REVT를 2011년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일반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발달특성 변인 도구 실행가능성 검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REVT의 활용이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일반조사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바, 대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REVT검사를 개발한 전문가와 임상 현장에서 이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첫째로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의 경우 일반 실사업체의 조사원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므로 전공자가 아닌 이들이 훈련을 통해 REVT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논의되었다. REVT 검사에서는 기초선(base line)과 최고한계선(Ceiling)을 설정하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2011년도 아동패널 조사의 경우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3세이므로 기초선(base line)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첫 문항부터 실시하여 연습 문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고한계선 설정의 경우에도 검사 도중 오답 개수에 대해 불분명하다면 후속 문항을 몇 개 더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두 번째로 가구방문조사의 경우 CAPI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므로, 면접조사처럼 CAPI 방식을 이용하여 REVT를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타진되었다. 그 결과 REVT는 최고한계선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오답 개수를 판단해야 하고 오답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므로, 먼저 면접으로 PAPI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CAPI에 후속 입력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 실시를 위해 조사원의 훈련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REVT는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로 나뉘어 있어 두 영역에 대한 이해와 검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요구되어 여러 번의 수행 연습을 반복하여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조사원 훈련 내용 및 과정, 검사 결과 입력, 그리고 검사 해석, 응답에 대한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수차례에 걸친 협의회 및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REVT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일반 조사에 발달검사로 포함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4) 발달특성 변인 도구 특성

REVT는 김영태 등(2009)에 의해 개발된 언어 발달 검사로서 수용어휘력 검사와 표현어휘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일차적으로 정상발달, 약간 지체, 어휘능력발달 지체로 크게 나누어 어휘능력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연령 집단별로 백분위수에 따른 수용 어휘능력 점수와 표현 어휘능력 점수를 산출하여 어휘능력 발달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제공한다.

나.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

1) 검사 선정 배경과 과정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환경 변인으로써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1차년도 부터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HOME을 사용하지 못 하였다. 올해는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이 유아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로, 4차년도 실사에 앞서 한국아동패널의 연구내용과 조사 변인을 재검토하는 과정 중에 아동의 가정환경을 검사하는 EC-HOME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루어졌다.

EC-HOME은 가정에서 아동에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가정에서 아동 양육 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의 다각적인 측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아용, 유아용, 학령기용 등 연령별로 척도가 구분되어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접과 관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자의 민감성이 요구되나 다른 복잡한 검사 도구보다는 비교적 쉬운 교육과정을 거쳐 실시할 수 있어 본 패널조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될 수 있는 도구로 생각되었다.

EC-HOME을 한국아동패널연구에 포함시키기 전에 도구의 타당도를 연구한 전문가 등과 협의하였고, 아직 한국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이므로 문항 번역 등에 지문을 구하였다.

2) 실행가능성 검토

EC-HOME은 조사원이 관찰, 면접, 관찰 또는 면접 문항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검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 시에는 EC-HOME의 사용자 지침서에 있는 대로 효과적인 검사 실시를 위한 질문을 통해 연결된 여러 문항의 응답(예를 들어, 관찰 문항과 면접 문항 각각의 연결 문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EC-HOME은 CAPI 방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검사 문항을 CAPI로 구현하였고, 검사 완료 후에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구성하였다. 문항을 건너뛰거나 무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CAPI 구현 시 hard check를 설정하여 조사원의 관찰 또는 부모의 응답을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검사 특성

Caldwell과 Bradley가 1984년에 개발한 HOME 도구는 2003년에 만 0~3, 3~6, 6~10, 10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정판 네 종류가 개발되었고, 한국아동패

년 4차년도 조사에서는 만 3~6세용인 EC-HOME을 사용하였다. HOME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조사원의 관찰, 면접 혹은 관찰과 면접을 통해 학습자료, 학습자극, 언어자극, 모방학습, 물리적 환경, 다양성, 반응성, 수용성으로 8개 요인의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질문지 변경내용

아동이 만 3세가 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 대상 질문지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변화를 주었다. 어머니 대상 질문지의 경우 아동의 발달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육아지원기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를 고려하여 부모 참여 문항이 첨가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즉, 질문구성의 배열과 질문 문항내용의 추가와 삭제를 통해 보다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질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표 III-1-2 참조).

1) 어머니 대상 질문지

가) 추가 내용

아이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들인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에 대한 문항 내용을 아동의 발달에 맞는 문항으로 대체하였고,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관한 문항 24개를 새롭게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4차년도에는 아동이 만 3세가 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 아동들이 육아지원기관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닐 것으로 예상하여, 기관에의 부모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참여 형태, 부모 참여프로그램의 실태, 참여도, 참여 경험, 만족도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또는 학원 및 교사 또는 강사를 좋아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양육 행동에서는 통제적 양육 행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나) 삭제 또는 이동 내용

음주와 흡연 습관에 관한 항목 중 음주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흡연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질문 문항만 유지하고 중독과 관련된 나머지 세 문항은 삭

제하였다. 실제로 이전의 자료 분석에서 어머니의 흡연 중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신념 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문항은 1·2·3차년도의 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격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에 관한 문항 두 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부모들의 응답이 크게 달라지는 조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양육특성 중 양육지식 척도는 1·2·3차년도의 조사 분석 결과, 이후의 조사 항목에서 삭제되었다. 1차년도에는 정답의 비율에서 50~75%가 45.8%로 가장 많았고, 2차년도에는 75%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3차년도에는 75% 이상 정답을 알고 있는 비율이 5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아동 특성 항목에서 질문했던 수면시간과 낮잠시간, 하루 활동 내용과 아동의 사고나 중독 경험, 입원, 장애 판정과 질환, 예방접종에 관한 질문들 13문항은 응답자의 편의와 응답의 정확성¹⁵⁾을 위해서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서 면접조사용 질문지로 이동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중 이사 여부, 가족과 종교에 관한 질문 네 개 문항도 동일한 이유로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서 면접조사용 질문지로 이동하였다.

2) 아버지 대상 질문지

가) 추가 내용

4차년도 아버지 질문지는 3차년도와 달리 추가된 내용이 많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3차년도까지는 어머니에게만 실시하였던 양육 스트레스, 자녀 양육 협조에 관한 자녀양육 특성 항목,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우울 등 자신의 평소 느낌과 생각에 관한 심리적 특성 항목 및 육아정책에 관한 항목 등을 아버지 대상 질문지에 추가하였다.

나) 삭제 또는 이동 내용

어머니 대상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문항은 격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에 관한

15) 면접조사용 질문지는 CAPI 로직을 사용하여 응답자에게 해당되지 않은 문항을 건너뛸 수 있으며, 시간과 같이 숫자로 입력하는 문항의 경우, 응답범위를 벗어나는 응답에(예: 하루 24시간을 넘는 경우) 대해 제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두 문항은 삭제되었다.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국적, 이사 여부, 가족과 종교에 관한 질문 네 개 문항도 응답자의 편의와 응답의 정확성을 위해서 아버지 대상 질문지에서 면접조사용 질문지로 이동하였다.

〈표 III-1-2〉 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질문지 변경 내용

구분	추가내용		삭제 또는 이동 내용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비고
어머니 대상 질문지	임신과 출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출산계획에 영향을 끼친 사람	음주와 흡연	흡연	삭제
	자녀	딸·아들 구분, 자녀에 대한 태도	양육신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격년마다 실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삭제
	자녀 양육특성	양육 행동	자녀양육 특성	양육지식	삭제
	아동 특성	기본생활습관, 또래 상호작용	아동 특성	수면시간, 낮잠시간, 하루활동 내용, 사고, 중독, 입원, 장애 판정, 질환여부, 예방접종	면접 조사용 질문지로 이동
부모참여	부모참여프로그램 형태, 실태, 참여도, 참여 경험, 선호도	인구학적 특성	국적, 이사 여부, 동거 가족, 종교	면접 조사용 질문지로 이동	
아버지 대상 질문지	자녀 양육특성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양육 협조	양육신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격년마다 실시
	심리적 특성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우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삭제
	자녀	자녀에 대한 태도	인구학적 특성	국적, 이사 여부, 동거 가족, 종교	면접 조사용 질문지로 이동

라. 기관용 질문지

1) 기관용 질문지 선정 배경 및 관련 변인

패널 아동이 성장하면서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과 학원(놀이, 영어, 미술 학원 등)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 2세가 된 3차년도 조사의 분석 결과, 45% 정도의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에는 아동이 만 3세가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들이 육아지원기관에 다닐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기관이용 경험이 아동의 발달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환경 변인 중 하나인 기관 특성 변인을 4차년도 일반조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2011년에 만 3세가 되는 패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양한 학원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들 중에서 패널 아동이 주로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기관 특성, 교사 및 강사 특성, 가정과의 연계, 기관에서의 유아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관 관련 특성 변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학술지 논문들 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배경으로 하는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유아가 기관에서 하는 경험들 중 만 3세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초기 적응, 기본생활습관, 자기통제, 자아인식, 상호작용 등과 같은 변인들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변인들 중에서 만 3세 시기에 측정되는 것이 이후 패널 아동의 발달이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또래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효능감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는 질문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관의 유형 및 특성, 기관의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교사의 특성으로 교사의 연령 및 경력 등을 조사하였다. 가정과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부모의 상호작용 방법, 기관에서의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기관에서의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변인들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표 III-1-3>과 같은 조사 변인 및 하위변인을 확정하였다.

〈표 III-1-3〉 기관 특성 변인 및 도구 목록

영역	변인	하위변인	도구명 또는 참고문헌
기관의 일반적 특성	환경 및 프로그램	기관의 일반적 특성	서문희 외(2009).
		교사의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 및 놀이 환경	
가정과의 연계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형태	김은설·최 진· 조혜주·김경미 (2009)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에서 부모역할, 참여정도	
	교사-부모 의사소통	교사-부모의 의사소통 방법	서문희 외(2009)
교사 특성	교사 효능감	교수 자기효능감	TSES ¹ (Bandura, 2006)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ECOI ² (Holloway & Reichhart, 1988)
유아 특성	또래 상호작용	놀이 방해	PIPPS ³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놀이 상호작용	
		놀이 단절	
기관에서의 패널 아동 일상		등·하원 시간 및 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일상	

주: ¹ TSES: Teacher Self-efficacy Scale

² ECOI: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

³ 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2) 도구 선정 과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와 같은 조사 내용 및 변인들이 선정 된 후 이에 관한 측정 도구들이 모색되었다. 이들 변인 중 특히 유아와 교사 특성 관련 변인들 즉, 또래 상호작용, 교수 자기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가장 핵심이 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해당변인들의 도구들이 선정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인가?

둘째, 질문지를 응답하는 교사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도구인가?

셋째, 패널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도구인가?

교사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도구로 제한한 이유는 패널 아동이 다니고 있는 개개의 기관에 검사자나 관찰자가 방문하여 객관적인 검사나 관찰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질문지 응답의 객관성을 높이고, 교사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간편한 도구로 한정하여 검토한 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도구 선정의 준거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도구로 기관에서의 유아 특성 관련해서는 또래 상호작용(Fantuzzo, et al., 1998;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척도, 교사-유아 상호작용(Holloway & Reichhart, 1988;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 ECOI) 척도와 TSES(Bandura, 2006; Teacher Self-Efficacy Scale, TSES) 척도 중 교수 자기효능감 요인을 선정하였다. PIPPS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놀이 방해, 놀이 상호작용, 놀이 단절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하였다. ECOI의 경우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도구이기에 선정하였다. 기관에서의 유아의 생활이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교수효능감의 경우도 기존의 교수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특정한 영역의 교수효능감, 예를 들어 과학 교수효능감(Riggs & Enochs, 1990;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 척도를 수정하여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교사의 일반적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TSES 척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구들은 교사,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연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4차년도 기관용 질문지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또래 상호작용(PIPPS)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이 1995년에 제작하고 1998년에 수정 보완한 PIPPS를, 최혜영·신혜영(2008)이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척도의 요인 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자료와 Brassard와 Boehm(2007)가 제시한 척도를 비교하여 최혜영·신혜영(2008)의 척도에서 빠져있는 ‘놀이에서 다른 아이들을 주도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여 33개 문항을 예

비조사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용 질문지에 추가하였던 ‘놀이에서 다른 아이들을 주도한다.’는 문항은 예비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어떤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이 문항을 삭제한 후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PIPPS는 세 가지 관찰 범주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하는 평정척도이다. 놀이방해 하위범주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에 관한 내용이고, 놀이 상호작용 하위 범위는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 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부정적 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교사 자기효능감(TSES)

본 연구에서는 Bandura(2006)의 TSES를 김연하·김양은(2008)이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TSES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유능하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30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 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에 대한 2문항, 교재교구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능력을 묻는 1문항, 교수 능력에 대하여 묻는 9문항, 유아를 훈육하는 능력에 대한 3문항, 유아들의 학습에 얼마나 부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 묻는 3문항, 유아들의 효율적 학습을 위하여 지역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4문항, 그리고 안전하고 협력적이며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묻는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하위 영역에서 교수 능력에 대하여 묻는 9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Bandura(2006)는 TSES를 10점 평정척도(0-100까지 10단위)로 소개하였으나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김연하·김양은(2008)이 도구를 타당화하면서 수정한 5점 척도 형식을 사용하였다.

다) 교사-유아 상호작용(ECOI)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Holloway와 Reichhart(1988)의 ECOI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구의 문항은 5점 서열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에 4점, 가장 부정적인 응답에 0점을 주었으며, 부정문 형태로 서술된 문항은 역산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걸쳐 변경된 조사 내용과 특성을 요약하여 다음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4차년도부터 조사를 실시한 육아지원기관 및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성 관련 조사 내용은 위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이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III-1-4〉 2008~2011 일반조사 문항의 변경사항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아동 특성	<p>1차년도 (200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출생순위 • 건강특성 :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긴 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 임신 : 산모 신장, 체중, 임신방법, 제태 기간 • 출산 :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 K-ASQ :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 해결, 개인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특성 : 병력, 장애, 만성질환, 회귀난치성 유전병 • 임신 : 산모신장, 체중, 제태기간 • 출산 :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특성 : 아동의 두위 	
	<p>발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덴버II :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 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SQ • 한국형 덴버II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아동 특성 (계속)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질 : 정서성, 활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질 :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T : 수용·표현 어휘력 • 사회성 : 또래상호작용
	일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습관 : 수면, 수유, 배변/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습관 :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 낮잠·밤잠 습관, 아동의 하루 중 많이 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습관 : 아동의 놀이와 사회적 활동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생년월일, 결혼상태, 결혼시기(비동거 부모 포함) • 건강특성 : 흡주, 흡연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부모됨 양육특성 아버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관련 특성 : 임신 및 출산관련 느낌, 계획된 임신 여부 · 임신/출산관련 태도 : 기대성별,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 임신/출산관련 교육 : 교육여부, 교육내용 · 부모됨의 태도 : 자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관련 특성 :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 임신 및 출산관련 느낌, 현재 임신의 계획 여부 · 임신/출산관련 교육 : 교육여부, 교육내용,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관련 특성 : 만5세 공통과정 시행여부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신념, 자녀기대, 양육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타일(일부 추가) · 양육신념 중 부모의 책임(격년) · 양육지식 · 양육신념 중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근로시간 ·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시간 	

부모 특성 (계속)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부모 특성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획 : 출산 시 직업/학업 계획, 출산 후 직업/학업 상태 • 직업특성 - 취업도 : 휴직여부, 근로 복귀 시기, 근로 중단 이유, 근로시간, 직업/직무만족도, 향후 직업계획 • 직업특성 - 학업도 : 휴학여부,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학업중단이유, 학업시간, 향후 학업계획 • 직업특성 - 미취업/미학업도 : 취업/학업 경험여부, 중단 시기, 중단이유, 향후 직업/학업계획 •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특성 - 취업도 : 휴직시기, 휴직사유, 휴직기간, 출산 후 근로 복귀시기 • 직업특성 - 학업도 : 휴학사유, 휴학기간, 학업 복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획 : 구직문항 • 직업특성 - 취업도 : 직장 및 직위변동여부, 일을 하는 이유, 현 직장의 근로소득, 출산 전/후의 소득변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 도구적, 정서적, 여가적, 정보적 지원 • 조사대상 오염 : 검사결과보고서 조화여부 (조사 후 코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특성- 미취업/미학업도 : 취업 및 학업중단일
부부관계				
사회적지원				
기타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가족 특성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별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근로시간, 학력, 종교, 건강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별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귀화 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근로시간, 종교 		
	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경제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지출, 자산,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경제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소득활동여부, 양육에 대한 비대가성 지원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경제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모두를 위한 지출, 소득 세분화(근로·사업 소득, 이직 소득, 자산 소득, 기타소득) 	
	역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 • 환경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형태, 가구원 소유의 추가 주택여부 			
	사회보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여부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검사: EC-HOME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주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 이용 여부 • 육아지원 이용 이유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낫시간 주 대리양육자 •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주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양육 도우미 : 이용 여부, 인원 수 • 비급여 양육 도우미 특성 : 아이와의 관계, 동거여부, 거주거리, 지원시간 	
	개인 대리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리양육자 특성 : 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특성 :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대리양육 이용 만족도 • 어린이집 특성 : 유형, 입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양육자 교체횟수 • 개인대리양육 비용 부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리양육 : 변경여부(전년도 비교), 변경 이유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서비스 특성 :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이용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비용 부담도 •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 프로그램 수, 선택여부, 비용지불여부, 강사, 비용, 이용시간,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계속)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 시간, 이용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기관/시설 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내 영어 학습 : 영어 학습자료, 최초 이용 시기, 영어 학습을 돕는 사람, 자료 구입, 이용 비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내 영어 학습
	최초 대리양육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대리양육 유형, 시작시기 			
지역사회 특성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재지 : 시/도, 도시규모 (조사 후 코딩) 거주기간 : 주양육자의 현거주지 전입 시기 			
	물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 동네 주변 특성 			
	육아관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질성 : 여가시설, 문화시설, 치안, 안전 			

영역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변경사항	3차년도 (2010년) 변경사항	4차년도 (2011년) 변경사항
육아지원 정책	정책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아버지대상 질문지에 추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 모성 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무상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아버지대상 질문지에 추가)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의 방향, 육아관련 재정지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출산계획 및 재정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외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 수혜 경험 : 수혜 경험 여부, 현금지원 금액, 현물지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이용 만족도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필요성 	

주: 2·3·4차년도 변경사항 중 배경색이 있는 셀은 추가사항을 의미하며, 배경색이 없는 셀은 삭제사항을 의미함.

2. 4차년도 일반조사 방법

가. 조사 도구

1) 어머니 대상 질문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 새롭게 포함된 조사내용은 대상 아동의 사회성 - 또래상호작용 - 척도이다. 자녀가 육아지원기관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어머니들에게는 부모참여 형태 및 행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아버지 대상 질문지

최근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 정책의 시행, 남편의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적,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로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4차년도 조사에서부터 아동이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아버지 역할의 측정변수들을 확대하고 어머니와의 비교연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대상 질문지의 문항을 확장하였다.

3) 면접조사용 질문지

4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에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구직 활동에 대한 문항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따로 질문하였고, 이직, 출산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변화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조사 이후 새롭게 수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들에 관한 인지도,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4)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수용어휘력검사(REVT-R) 185문항, 표현어휘력검사(REVT-E) 185문항의 총 2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EC-HOME (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가정환경자극 검사(HOME)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조사원의 관찰, 면접 혹은 관찰과 면접을 통해 학습자료, 학습자극, 언어 자극, 모방학습, 물리적 환경, 다양성, 반응성, 수용성으로 8개 요인의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4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2003년에 개정된 HOME의 만 3~6세 대상으로 개발된 EC-HOME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6) 교사 대상 질문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이나 영어 학원, 놀이학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고 있는 패널 아동들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 및 학원의 담당강사를 통하여 기관의 물리적 환경,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사 효능감, 또래상호작용, 부모참여, 패널 아동의 일과 등에 관한 자료를 웹 질문지로 수집하였다.

나. 조사 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면접조사와 우편조사, 웹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웹 조사는 어머니와 아버지 대상 질문지와, 4차년도부터 실시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 대상 질문지로 시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가구 방문을 약속한 시간에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아동의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CAPI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편조사는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조사원이 가구 방문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수거하였다.

우편용 질문지 발송과 함께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의 해당 연령인 만 3세 이후 아동의 발달과 그에 적합한 양육 방식을 소개하는 발달 리플렛(부록 3 참조)과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 및 2010년도 출생아 가구 부가조사 분석 결과가 보도된 신문 보도자료, 개편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문(부록 1 참조)이 발송되었다.

2) 검사

한국아동패널 일반조사에서는 각 년도 조사에서 아동 연령에 맞는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발달 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된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문항이 해당 연령에 맞게 새롭게 구성되거나 새로운 검사가 사용된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REVT 검사를 통해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요소인 '가정환경' 자극에 대한 정보를 EC-HOME을 통해 수집함으로써 아동의 객관적인 환경적 발달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REVT: 조사원교육을 통해 REVT 실시방법을 훈련받은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한다.
- EC-HOME: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 대상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관찰과 면접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한다.

4차년도 일반조사의 조사방법은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방법

도구	주요대상자	자료 수집 방법	비고
어머니대상 질문지	어머니	우편조사 또는 웹 조사	발달 리플렛, 신문 보도자료, 개편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안내문을 함께 발송.
아버지대상 질문지	아버지	우편조사 또는 웹 조사	
면접조사용 질문지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	가구방문 면접조사	
육아지원기관 교사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 강사대상 질문지	교사 또는 강사	웹 조사	패널아동의 육아지원기관(또 는 학원) 이용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4차년도 조사부터 기관에서 관찰되는 패널아동 의 발달특성을 조사함.
REVT	아동	수행검사	4차년도에 새롭게 실시.
EC-HOME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	면접, 관찰, 질문	4차년도에 새롭게 실시.

3. 4차년도 일반조사 절차

가. 조사 일정

2011년 6월 13일자(조사대상 아동이 생후 만 3세 이후 시점부터)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월 19일에 완료하였다. 조사 완료를 10월 말경으로 계획하였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다. 그 이유로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특성상 면접 대상인 주양육자(대부분 어머니임)와 발달 검사 대상자인 아동을 모두 만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가능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많은 패널 아동들이 육아지원기관(또는 학원)에 다님으로 인하여 아동의 하원이후에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전에 비해 조사가 전반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었다. 협조적인 어머니의 경우는 본 조사를 위하여 조사당일에 아동을 육아지원기관에 등원시키지 않고 기다렸다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열의를 보이시는 분도 계셨지만 취업 중인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오후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약속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검사 지연의 요인으로 새롭게 추가된 수용 및 표현 어휘력 발달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이전의 덴버 발달 검사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패널 탈락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패널조사를 거부하지 않는 패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조사의 경우는 먼저 패널 아동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패널 가정방문 면접조사가 완료된 후에 교사(또는 강사)와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정 방문 면접 조사 이후 1개월여 이후인 7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2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나. 조사 준비 과정

3차년도 질문지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4차년도 질문지를 확정하였으며 1·2·3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을 통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4차년도 CAPI 문항 간 로직 설정 및 3차년도 응답과 4차년도 응답 내용 간 로직을 설정하여 면접조사를 위한 CAP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패널아동의 담임교사(또는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웹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이에 관한 문항

간 로직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본 조사 실시 이전에 4차년도 조사에 질문지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 및 수정된 문항에 대해 동일 연령대 자녀를 가진 어머니와 육아지원기관(또는 반일제 학원)의 교사(또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진행할 면접 조사원을 대상으로 질문지 문항 설명 및 CAPI 활용방법, EC-HOME 및 REVT 검사 실시에 대한 훈련을 1박 2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3-1 참조).

1) 조사원 교육

신생아기부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은 연구의 특성상 조사 방법으로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개별검사 수행 및 웹 조사법이 포함된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은 매해 조사원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4차년도 조사에는 REVT와 EC-HOME 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였다. 첫째, REVT의 저자 중 한 명을 초청하여 REVT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원 교육 시간을 1박 2일로 연장하였다. 셋째, 지방 실사 팀에 소속되어 있는 조사원들을 포함하여 미디어 리서치 서울 본사에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넷째, 실습이 보다 강조된 조사원 교육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REVT 검사의 경우 조사원의 정확한 검사 수행이 중요하므로 실습 외에도 조사원 당 세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퍼비전을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표 II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3-1> 조사원 교육의 내용과 일정

날짜	시 간	일 정	비고
6월 2일	13:00 - 13:10	연구진 소개 및 인사말	
	13:10 - 15:10	면접용 질문지 교육	
	15:10 - 15:20	휴 식	
	15:20 - 15:50	면접용 CAPI 설명	
	15:50 - 16:50	면접용 CAPI 실습 I	조별 실습
	16:50 - 17:10	면접용 CAPI 질의응답	
	17:10 - 17:20	휴 식	
	17:20 - 17:50	어머니/아버지 질문지 교육	
	17:50 - 18:30	가정환경검사(HOME) 설명 및 실습	
	18:30 -	교육 첫째 날 종료	

날짜	시 간	일 정	비고
6월 3일	- 10:00		
	10:00 - 11:30	발달검사(REVT) 설명	홍경훈 (나사렛대 교수, REVT 원저자)
	11:30 - 12:40	면접용 CAPI 실습 II	조별 실습
	12:40 - 13:40	점 심 식 사	
	13:40 - 14:00	라포 형성 교육	
	14:00 - 15:50	발달검사(REVT) 실습 I	조별 실습. 언어병리사 배치
	15:50 - 16:00	발달검사(REVT) 질의응답	
	16:00 - 16:10	휴 식	
	16:10 - 16:25	발달검사(REVT) 정리 및 주의사항	
	16:25 - 16:40	발달검사(REVT) 입력	
	16:30 - 17:00	조사원 윤리교육 - 사후질문지 설명 - 조사원 설문	
	17:00 -	교육 둘째 날 종료	

다. 실사 과정

각 대상 패널별로 본 조사 시작 시점 2주 전에 어머니대상, 아버지대상 질문지 및 한국아동패널 조사 안내문 1부, 발달검사 홍보 리플렛 1부를 동봉하여 패널 거주지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1주일 후 질문지 수령 여부 및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조사원이 패널 아동의 주양육자와 개별연락을 취하였다. 이후 방문 일정이 정해진 각 패널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휘력(REVT) 검사 조사 진행상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응답 문항 수와 관련하여 아동의 대부분이 예상했던 문항 수보다 더 많은 문항을 응답함에 따라 조사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둘째, 집에서 어휘력(REVT)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형제·자매들의 방해, TV 소리, 장난감, 조사 진행 중 어머니의 개입 등등 산만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아동이 검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다소 있었다. 이에 관한 대처 방안으로 아동이 집중하지 못할 때, 아동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같이 산책하는 등 아동에게 휴식을 준 후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원에게 스티커를 추가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사팀의 연구원 한명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한명이 면접

원과 동행하여 REVT 검사를 진행하는 데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실제 조사현장 점검을 통하여 조사 완료 후 해당 면접원과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였다.

REVT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4차년도 아동패널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면접원(38명)의 초반 REVT 데이터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에게 송부하도록(8월 1일) 하여 조사원 실습 교육을 담당하였던, 언어치료사 1급 자격증소지자이며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언어치료 전문가들에게 면접원들의 REVT 검사 결과 자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제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서 1차적으로 전체 면접원들 대상으로 유의하여 할 사항들을 정리한 'REVT 지침서1'을 작성하여 실사 본사팀에 전달하였고, 이 내용은 각 지역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전체 면접원들에게 제공지 되었다(8월 2일 배부). 이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서 2차로 'REVT 면접원별 지침서'를 작성하였고, 이 내용은 슈퍼바이저를 통해 전체 면접원들에게 제공지 되었다(8월 16일 배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기관조사의 경우는 실사 사무소 본사에서 전화로 패널 아동의 교사에게 기관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후 웹을 이용한 기관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절차를 상술하면, 먼저 기관조사에 동의한 패널 아동의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한국아동패널 2011 기관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교사의 이메일(또는 팩스)를 확인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조사협조 공문과 기관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한국아동패널 2011 기관조사」 참여를 허락한 교사에게 기관조사용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메일에는 웹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주소에 대한 안내와 웹 질문지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웹 질문지 내용을 첨부하였다.

기관조사 진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다.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 외에 각 기관 원장이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원장이 교사의 경력, 학력 및 근무시간 등의 항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기관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처하였다. 첫째, 패널 대상이 알려준 기관전화번호에 일부 오류(결번, 기관이 아닌 다른 곳)가 있을 경우, 인터넷에서 기관 검색(기관

명·지역 변수 활용)을 하거나 해당 패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웹 조사가 불가능한 기관일 경우, 팩스나 이메일(설문지 파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실사팀 본사에서 웹으로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기관조사를 거절하는 교사는 실사팀의 슈퍼바이저가 다시 연락하도록 하였다. 기관조사 메일 발송 후 해당 교사에게 '메일 발송 문자'를 보냈으며, 메일 발송 후 미완료된 패널의 경우 전화(문자)로 계속 권장하였다.

기관조사 진행의 저조함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실사 담당 팀과 논의를 거쳐 기관조사 불참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패널대상 아동의 어머니/주양육자는 기관조사의 참여를 동의하였으나 기관에서 거절한 경우는 안내문과 함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은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홍보용 책자를 기관으로 발송하였다. 우편물 발송 일주일 이후 기관과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조사의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서 참여를 유도하였다. 둘째, 기관에 다니는 패널 중에서 기관조사를 동의하지 않은 패널에게 안내문을 작성하여 패널 가정으로 발송하기로 하였다. 우편물 발송 일주일 이후, 패널에게 일반조사 완료에 대한 감사 인사 및 기관조사 참여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접촉을 시도하였다. 패널대상 어머니/주양육자가 동의하여 기관조사를 완료한 경우는 감사편지를 발송하였다.

4차년도 일반조사를 완료한 패널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해서 해당 경품을 패널 가정으로 배송하였다. 경품 당첨자는 총 82명으로 10월 31일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kicce.re.kr/panel/>)를 통해 공지되었고, 경품 당첨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였다.

라. 조사원 간담회 실시

4차년도 조사 진행시의 어려웠던 점 및 5차년도 조사 진행을 위해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 간담회를 12월에 두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4. 조사성공률 및 원표본 유지율

가. 4차년도 표본 유지율

병원조사 시 구축했던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2,078명,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1,904명, 3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 수는 총 1,802명이었다. 3차년도 조사 완료 패널 중 발달검사에서 덴버 II는 1,688명, K-ASQ는 1,707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2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약 94.6%로,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조사 성공률 9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4-1, 그림 III-4-1 참조). 1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 86.2%였고, 예비표본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86.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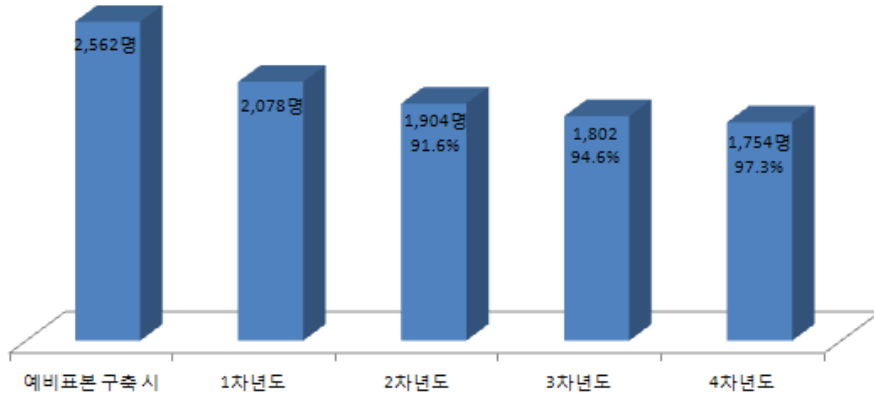
4차년도 조사 성공 패널 수는 1,753명이었다. 4차년도 조사 완료 패널 중 가정환경검사(HOME)는 1,729명,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는 1,737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97.3%,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조사 성공률 91.6%와 2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 성공률 94.6%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 대비 4차년도 조사 성공률 84.4%였고, 예비표본 대비 4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68.5%였다.

〈표 III-4-1〉 1차년도 및 2·3·4차년도 패널의 표본 유지율

단위: 명, %

조사년도	참여패널 수	예비표본 대비 유지율	전년 대비 유지율
예비표본 구축 시	2,562	-	-
1차년도	2,078	81.1	-
2차년도	1,904	74.3	91.6
3차년도	1,802	70.3	94.6
4차년도	1,754	68.5	97.3

주: 예비표본 중 2차년도에 52가구, 3차년도에 20가구가 포함됨.



[그림 III-4-1] 연도별 참여패널 수 및 전년 대비 유지율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거절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았다. 패널대상 아동들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육아지원기관 및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그냥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4차년도에는 31.0%로 낮아졌다(표 III-4-2 참조).

<표 III-4-2> 패널 조사 거절 이유

단위: %(명)

조사 거절이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그냥 귀찮아서	49.2(217)	37.6(164)	31.0(80)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17.2(76)	34.6(151)	40.3(104)
매년 이렇게 연락오는 것이 싫어서(지겨워서)	8.8(39)	13.8(60)	9.7(25)
조사(또는 조사원)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서	0.2(1)	0.5(2)	2.3(6)
남편, 시부모님 등 가족들이 싫어해서	2.0(9)	3.2(14)	3.5(9)
아동의 컨디션(건강)이 나빠서	0.5(2)	0.7(3)	.6(4)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0.9(4)	2.3(10)	8.1(21)
기타(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외국 체류 등)	21.1(93)	7.3(32)	3.5(9)
계	100.0(441)	100.0(436)	100.0(258)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육아지원기관 조사는 11월 30일자 기준으로 532명의 패널 아동 담임교사 및 강사들이 참여한 상태이다. 기관조사는 패널 아동 중 육아

지원기관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동의 하에 교사가 기관조사에 참여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패널 아동 중 육아지원기관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은 4차년도 조사 완료된 전체 패널 1,754명 중 1,374명이었다(표 III-4-3 참조). 기관 또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패널 아동 1,374명을 대상으로 11월 30일 기준으로 조사 완료된 532명의 기관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III-4-4 참조).

〈표 III-4-3〉 기관에 다니는 패널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에 다님	기관에 다니지 않음	전체
서울/경인권	587	222	809
경남권	257	42	299
경북권	191	19	210
충청/강원권	188	55	243
전라권	161	32	193
계	1,374	370	1,754

〈표 III-4-4〉 기관조사 현황(2011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기관에 다니는 아동				총합계
	부모 동의			부모 거절	
	전체	조사완료	기관거절		
서울/경인권	381	219	162	206	587
경남권	178	100	71	79	257
경북권	142	71	77	49	191
충청/강원권	87	58	29	101	188
전라권	160	84	76	1	161
계	948	532	416	436	1,384

나. 4차년도 표본 유실률

1) 권역별 표본 유실률

3차년도 기준으로 4차년도의 표본 유실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패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충청/강원권의 유실률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경인 지역(3.6%)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권과 전라권은 3차년

도 대비 패널 유실률이 0%이었다(표 III-4-5 참조). 권역별 패널 유실률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는 전년 대비 지역 간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역별로 패널 유실률 결과를 고려하면, 충청/강원권의 유실률이 가장 많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충청/강원권의 패널 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강원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패널은 11명이었고, 충청/강원권으로 진입한 패널은 8명으로 3명이 충청/강원권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패널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충청/강원권 지역 총 패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적은 사례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실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표 III-4-5〉 4차년도 권역별 패널 유실률

권역 구분	예비표본	1차년도 성공	2차년도 성공	3차년도 성공	4차년도 성공	4차년도 유실률
서울/경인권	1,236	992	879	839	809	3.6%
경남권	437	349	320	307	299	2.6%
경북권	296	240	221	210	210	0.0%
충청/강원권	316	271	271	253	243	4.0%
전라권	277	226	213	193	193	0.0%
계	2,562	2,078	1,904	1,802	1,754	2.7%

2) 지역규모별 표본 유실률

4차년도 패널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표본 유실률의 차이를 보면, 중소도시 지역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유실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읍/면 지역은 4차년도에 오히려 패널 유지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권역별 표본 유실률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지역 간 이동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표 III-4-6〉 4차년도 지역규모별 패널 유실률

지역규모	예비표본	1차년도 성공	2차년도 성공	3차년도 성공	4차년도 성공	4차년도 유실률
대도시	1,072	830	751	687	686	0.4%
중소도시	983	834	757	748	699	6.6%
읍/면	507	414	395	367	369	-0.5%

5. 홈페이지¹⁶⁾ 개편

가. 홈페이지 개편 필요성

한국아동패널 2008년도 1차 조사부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대상패널들에게는 조사일정안내, 발달검사 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자들에게는 학술대회에 대한 공지, 연구 성과물, 데이터 등을 공개하여 왔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지내용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패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패널 유지 효과와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첫째로 패널 유지는 패널 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조사 일정 안내, 발달검사 결과 확인, 조사 참여 감사 인사, 경품 행사 과정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패널 탈락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으로 패널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패널이 직접 연구진에게 연락하여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을 알려주면 소정의 동화책을 발송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만일 홈페이지 상에서 패널이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횟수가 높아지면서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패널 대상 가구의 부모가 조사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조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패널로서의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16)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주소: <http://www.kicce.re.kr/panel/>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이 타진되었다.

둘째로 한국아동패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별 연구자로서는 수집이 어려운 국가 수준의 대규모 변인이 포함된 자료를 학계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2차 자료로 제공하는데 있다.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 공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료 공개는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 개편 이전에는 연구 과제의 대표 이메일로 연구계획서를 받아 데이터 사용에 대한 승인 이후 유의사항과 그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자가 데이터 사용 신청자에게 보내고, 다시 전달 받는 복잡하면서도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패널 연구진과 자료 이용자들 모두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조사 연차가 쌓여 가면 자료가 더 방대해질 것이고, 절차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조사 자료 이용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 질문지를 함께 제공받는 과정이 한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에도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 기능 추가, 영문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나. 홈페이지 개편 과정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 2011년 1월부터 홈페이지 제작 업체 몇 군데에 의뢰하여 한 곳을 선정한 후 개발 및 기능 정의, 콘텐츠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상에서 제기하였던 홈페이지 개편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신축하여 오픈하는 과정은 4개월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3개월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홈페이지 메인과 서브화면 디자인 변경 및 게시판 수정 등의 추가 요청으로 인해 홈페이지 개편 기간이 1개월여 정도 더 연장되었다. 국문 홈페이지의 경우 2월경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시작하여 6월 13일에 신축된 홈페이지(부록 6 참조)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후 약 한달 간 기능 및 내용 수정 및 버그 작업을 거친 후 확정되었다. 영문 홈페이지(<http://kicce.re.kr/panel/eng/>)는 6월 27일에 오픈하여 마찬가지로 약 한달 간의 기능 및 내용 수정 및 버그 작업을 거쳤다.

다. 홈페이지 개편 내용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편된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패널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와 패널 가구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방 카테고리를 개발하였다. 즉 패널 탈락을 막기 위해 패널의 부모가 홈페이지 상에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자가 그 정보를 받아 패널에게 감사 선물을 발송함으로써 변경 정보를 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방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패널자료를 통해 보도된 기사나 소식을 알리고, 조사하는 기간과 조사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정보와 육아관련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패널 대상들이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패널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개별 연구자들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물을 다양하게 공개¹⁷⁾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신청 및 활용 카테고리의 개발로 사용자 지침서, 코드북, 도구 프로파일, 질문지는 홈페이지 상에서 내려 받아 바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가 공개된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내려 받고자 할 때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내용의 계획서를 서술한 후, 계획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홈페이지 상에서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이 개발되어 포함되었다.

셋째로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하였다. 3·4차년도 일반 조사의 변경 변인과 질문지 내용 및 발달 검사 정보를 추가하였고, 심층조사와 부가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조사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하였는데, 로그인 방식 변경과 영문 홈페이지의 개설이다. 기존 회원가입 방식에서 실명인증을 위한 대체 방식 중의 하나인 I-PIN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는 자료의 활용적인 면이나 개인 정보 변경 등의 기능적인 측면의 개발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I-PIN 기능은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도 가능한 방법¹⁸⁾으로 대체할

17)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자료집 등은 개편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며, 세미나 및 관련 자료 게시판과 데이터 활용 논문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임.

18)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신원확인수단이 없으면 신원보증인 대신 신원확인용 받아 아이핀 발급이 가능함.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영문 홈페이지 개설은 한국의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한국아동패널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제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한국아동패널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홈페이지 상에서도 영문으로 된 사용자 지침서, 코드북, 도구 프로파일, 질문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구진에게 신청해서 받도록 하였다.

6. 향후 추진 계획

가. 4차년도 자료 구축

어머니대상, 아버지대상 질문지, 주양육자가 응답하는 CAPI 본 조사, 가정환경자극검사 및 아동의 어휘능력검사, 기관용 질문지들로부터 얻은 자료의 응답값들을 코딩 및 편칭한 후 자료 클리닝 및 에디팅을 수행하여 4차년도 자료를 구축한다.

나. 2차년도 자료 대중 공개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된 올해 8월의 학술대회용으로 공개하였던 2차년도 자료에 대한 최종 에디팅 작업을 수행한 후, 코드북, 도구 프로파일,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대중에게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 4차년도 자료 처리 및 종단자료 처리

4차년도 자료에 대한 클리닝 및 에디팅을 수행한 후, 1·2·3차년도 자료와 연동하여 자료의 종단적인 일관성을 검증하는 1·2·3·4차년도 종단자료 에디팅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 한다.

라. 5차년도 조사 준비 및 실시

4차년도 조사 결과 검토 및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4차년도 질문지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CAPI 로직 구성을 개발한다. 5차년도에 시행될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내년 심층조사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한다.

마. 4차년도 자료 가중치 산출 및 부여

4차년도 자료의 무응답 및 표본 마모(sampling attrition) 등에 따른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무응답 보정 및 사후가중치 조정 방법을 개발하여 4차년도 횡단 가중치 값을 산출한다.

바.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육아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많은 정책적인 제언이 공유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홍보 강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논문들 및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탑재하고,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들이 신문 및 TV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자료를 지속적으로 탑재한다.

아. 패널 관리 및 추적

패널 부모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부모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 및 육아정보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탑재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주소지 변경에 대한 자발적 신고 시, 이사 선물 제공, 2개월마다 주기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조사완료 후 경품 행사 등을 유지한다.

참고문헌

- 김승국·김옥기(1995).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연하·김양은(2008). Bandura의 교사자기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도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영환·김지혜·오상우·임영란·홍상황(2001).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은설·최 진·조혜주·김경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미·신희선(2006). **아동발달검사(K-CD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박혜원·조복희(2006).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 II 해석지침서**. 서울: 키즈팝.
- 서문희·김은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나종혜·김은영·이계운·이원선·송신영·신희연(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희선·한경자·오가실·오진주·하미나(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 여광응·김영환·김춘일·문태영(1996). **KISE-KOHS 카이제-코스 정신발달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육아정책연구소편(2011). **한국 1세 아동의 현주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서울: 저자.
- 이영·박경자·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0).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이숙·박혜원·나중혜(2010).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김지형(2011). **한국아동패널 부가조사보고서 - 2010년도 출생아 가구 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허계형·Squires, J.·이소영·이준식(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Bandura, A.(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pp. 307-337). Greenwich, Connecticu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rassard, M. R., & Boehm, A. E.(2007). *Preschool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Guilford Press.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Caldwell, B. M., & Bradley, R. H.(1984).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Revised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 Caldwell, B. M., & Bradley, R. H.(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Elder, G. H., Jr.(1998). *Life course dynam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lder, G. H., Jr.(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New York: Wiley.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Hebbeler, K., & Spiker, D.(2011, April). *Program,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from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 (NEILS)*. Paper presented at CEC 2011 Convention and Expo, National Harbor, Maryland.
<http://www.sri.com/neils/whatsnew.html> (2011, 7,7)에서 인출
- Holloway, S. D., & Reichhart-Erikson, M.(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u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2.
- Kim, J., Wang, Y., Song, S., & Lee, J.(2011, March). *Predictors of infant mental development: Maternal value of children,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temperament, parental style, and attach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SRCD 2011 biennial meeting, Montreal, Quebec, Canada.
- Lee, J., Kim, J., Song, S., & Wang, Y.(2011, April).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developmental delay in infancy: Role of marital satisfaction,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SRCD 2011 biennial meeting, Montreal, Quebec, Canada.

National Children's Study(2010, 6, 3/ 2011, 7, 6).

<http://www.nationalchildrensstudy.gov/Pages/default.aspx>를 인출.

The National Early 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y(2010, 6, 3).

<http://www.sri.com/neils/>를 인출.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5). *Child care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NY: Guilford.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401.

Riggs, I. M., & Enochs, L. G.(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부 록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11년도 일반조사 안내문

부록 2.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부록 3. 한국아동패널 2011 발달 리플렛

부록 4.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브로슈어

부록 5. NCS 기관 방문 사진

부록 6.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화면

부록 7. 2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11년도 일반조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리서치의 패널 조사팀입니다.
2008~2010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1년 6월부터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는 지난 조사에 참여하였던 귀댁의 자녀가 38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귀 댁을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 귀 댁 방문에 앞서 우송해 드린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는 미리 작성하셔서 면접원이 방문할 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두 가지 종류의 검사(REVT, HOME)가 새롭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당일 면접원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 ◆ 4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는 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조사를 마친 후에는 소정의 사례(2만원 상당의 상품권)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6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2011년 한국아동패널'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패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오픈 <http://www.kicce.re.kr/panel/>
- ※ 이사 간 주소,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아동패널연구, 그리고 아이 육아에 관한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글을 남겨주세요. [부모방]
- ※ 아이 양육 및 육아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398-7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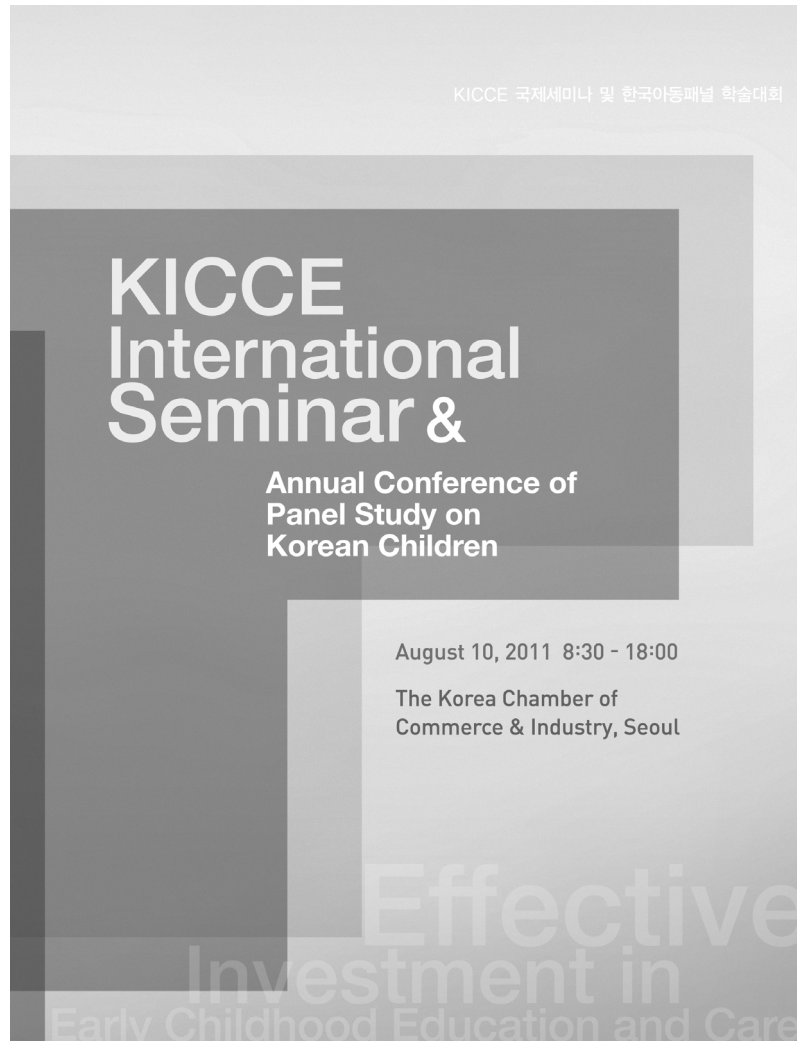
●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인국빌딩 10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398-7700, FAX) 02-730-3313

조사 수행기관 :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3 국제전자센터 24층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 02)3488~2783

부록 2. KICCE 국제세미나 및 제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가. 자료집 표지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ponsored by Samsung Welfare Foundation

나. 프로그램 및 일정

프로그램

KICCE 국제 세미나 : 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

08:30 ~ 09:00	등 록
09:00 ~ 09:30	개 회 식 개 회 사: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학교 교수)
09:30 ~ 10:30	기조강연 1 James Heckman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30 ~ 10:45	휴 식
10:45 ~ 11:45	기조강연 2 Edward Melhuish (영국 런던 버벡대학 교수)
11:45 ~ 13:30	오 찬

유아보육교육 정책 &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13:30 ~ 14:50	Session 1 정책 연구 1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 연구 2 :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 이슈 패널 연구 1 : 후속 출산 1 패널 연구 2 : 아버지 변인 패널 연구 3 : 영아기질과 양육
14:50 ~ 15:00	휴 식
15:00 ~ 16:20	Session 2 정책 연구 3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정책 연구 4 : 읽기 교육에의 정책 영향력/ 아버지 양육 실제 패널 연구 4 : 후속 출산 2 패널 연구 5 : 영아 발달 패널 연구 6 : 영아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6:20 ~ 16:40	휴 식
16:40 ~ 18:00	Session 3 정책 연구 5 : 말레이시아와 홍콩, 미국의 정책 이슈 패널 연구 7 : 어머니 취업 관련 변인 패널 연구 8 : 발달 위험 요인 패널 연구 9 : 자녀양육행동 패널 연구 10 : 육아지원서비스
18:00 ~	폐 회

부록 3. 한국아동패널 2011 발달 리플렛

**만 3세가 된
우리 아이의 발달과 지도는?**

한국아동패널 2011년 제2차 심층조사는
부모를 대상으로 1종류의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발달 전반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차 심층조사는 2012년 5-9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내년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아동패널 2012년 제2차 심층조사는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4종류의 검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1종류의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발달 전반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차 심층조사는 2012년 5-9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내년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패널은 국민연구기관인 한국아동패널연구소에서
영양, 인지, 정서, 발달, 학습 등 50여종의 심층
위험아 산출하기까지 반복적으로 조사는
계속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and Adolescent Studies

본 조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비도 동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11층 401연구관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396-7713, 7716, 7734, 7797 FAX. 02-396-3317, 3319
E-mail: panel@kiccs.or.kr, Homepage: www.kiccs.or.kr/panel

육아정책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and Adolescent Studies

부록 4. 한국아동패널 국문 및 영문 브로슈어

가. 국문 브로슈어



나. 영문 브로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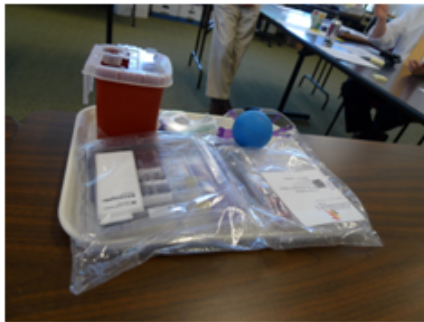
부록 5. NCS 기관방문 사진

가. 생물학적 요인 검사 도구

Biospecimen Samples – Urine, Vaginal Swabs



Biospecimen Samples - Blood



나. 환경적 요인 검사 도구

Environmental – Dust Wipe



Environmental - Vacuum



부록 6.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화면

가.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메인 화면)

- 홈페이지 URL : <http://www.kicce.re.kr/panel/>

HOME | ENGLISH | BTEAMP | CONTACT US | MY PAGE | LOGOUT

한국아동패널 | 조사실적 | 발간자료 | 자료신청 및 용역 | 임원명 | 부보명

인사팀 | 소개 | 연구진 | 한국아동패널포럼

한국아동패널연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종단연구입니다.

공지사항

- [학술대회] 국제세미나 및 한국아동패널... 2011-07-01
- [에이저] 한국아동패널 에이저 신화 판... 2011-08-29
- [2011-04-20] 2011년 한국아동패널 중학... 2011-08-29
- [2011-01-31]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표 2011-08-29

육아정보

- [놀이] 3세 주먹아이, 어떻게 놀아줘야... 2011-08-21
- [지식] 아버지가 함께 하면 육아로 즐거... 2011-08-17
- [질학] 만 8세 글루카제 도입 관련 Q&A 2011-08-17
- [놀이] 심오놀이, 날마다 즐겨하세요 2011-08-17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자료집

- [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2011-08-17
- [2010]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 2011-08-17
- [2010]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실증조사보... 2011-08-17
-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2011-08-17

일문지 | 코덱북 | 도구자료파일 | 사용자지원서

백로그기 > | 백로그기 > | 백로그기 > | 백로그기 >

[관리자] 닉

로그아웃

발달검사결과확인 >

한국아동패널의 주소 연락처 변경 >

자료신청 >

패널 소식지 >

유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illwardBrown

[110-73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곡로 33 한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TEL. 02-398-7713 FAX. 02-730-3319
E-mail: panel@kicce.re.kr COPYRIGHT(C)2011 한국아동패널. All right reserved.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나.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패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화면)

HOME | ENGLISH | STEWARD | CONTACT US | MY PAGE | LOGOUT

한국아동패널 | 프사실적 | 발간자료 | 자료신청 및 활용 | 알림받 | 부모방

한국아동패널연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종단연구입니다.

My Page

- 데이터 내려받기
- 회원정보수정
- 한국아동패널의 주소 연락처 변경

주소 연락처 변경 홈 > My page > 한국아동패널의 주소 연락처 변경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필수 항목

보호자(부모) 이름 *		관리자	
아름(자녀) 이름		<input type="text"/>	
이사(예정) 일		<input type="text"/>	
이메일		admin@kicpe.re.kr	
이전 전화번호	유선	1111 - 1111 - 1111	바뀐 전화번호 *
	휴대		휴대
현재 살던 주소		111	
이사 갈(갈) 주소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검색"/> <input type="text"/> 상세주소 <input type="text"/>	
메시지		<input type="text"/>	

다.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자료신청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website's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HOME, ENGLISH, SITEMAP, CONTACT US, MY PAGE, LOGOUT. A secondary menu includes 한국아동패널, 조사세계, 발간자료, 자료신청 및 활용, 알림판, and 부모방. The main navigation bar contains 데이터 내려받기, 다운로드파일, 사용자 지원서, 질문지, and 코드북.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itle '한국아동패널연구' and the subtitle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종단연구입니다.' Below the banner, the '자료신청 및 활용' section is active, showing a left sidebar with menu items: 데이터 내려받기, 다운로드파일, 사용자 지원서, 질문지, and 코드북.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데이터 내려받기' and includes a breadcrumb trail: 홈 > 자료신청 및 활용 > 데이터 내려받기. A box titled '한국아동패널 자료신청' contains four bullet points: 1. Downloading the '연구계획서' after logging in. 2. Verifying the application status on the 'My Page' after approval. 3. Receiving the data after approval. 4. Contacting the helpdesk at panel@kicpa.re.kr. Below this, a '자료신청 결과 안내' section shows a four-step process: 1. 연구계획서 작성 (Research Plan Writing), 2. 신청서 작성 (Application Form Writing), 3. 자료사용 승인 (Data Use Approval), and 4. 데이터 내려받기 (Data Download). Each step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quired action.

부록 7. 2차년도 일반조사 도구 프로파일

구 성

No.	도구명	해당변인	페이지
1	아동의 건강특성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장애, 병력, 만성질환	94
2	임신	산모 신장, 산모 체중, 임신방법, 재태기간	1차년도
3	출산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1차년도
4	K-ASQ	아동 발달특성(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101
5	한국형 Denver II	아동 발달특성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	106
6	EAS 기질척도: 부모용	기질	110
7	기본생활습관 (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수면, 수유, 배변/씻기	113
8	알코올 사용 장애 식별검사(AUDIT)	건강특성(음주)	115
9	니코틴 중독 자가 검사(FND)	건강특성(흡연)	118
10	임신/출산관련특성 (Your Pregnancy)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계획된 임신 여부	1차년도
11	임신/출산 관련 태도 및 부모교육	기대성별,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부모교육 여부, 내용 및 교육기관	121
12	자녀 가치	부모됨의 태도	125
13	양육스타일(PSQ)	양육실제	127
14	양육지식(KIDI)	양육지식	130
15	양육신념	양육신념	133
16	자녀의 미래기대	자녀의 미래기대	135
17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	138
18	아버지 특성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141

No.	도구명	해당변인	페이지
19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	자기 효능감	144
20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147
21	Kessler 우울 척도(K6)	우울	150
22	어머니의 취업/학업 특성	* 공통: 취업/학업 상태, 취업/학업 계획 * 취업모: 근로복귀시기, 직업/직무만족도,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 학업모: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 학업시간, 등학교시간 * 미학업/미취업모: 취업/학업 경험여부, 휴직/휴학시기, 근로/학업중단이유	154
23	결혼만족도(RKMSS)	결혼만족도	160
24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162
25	사회적 지원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165
26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학력, 종교, 건강특성	169
27	가계경제요소	소득, 소비, 자산, 부채	176
28	가족생활사건(FILE)	가족생활사건	178
29	주거 환경 특성	주택 소유형태, 주택 유형	180
30	기초생활수급 여부	사회보장지원 수혜 여부	182
31	육아지원 정책 수혜	재정지원 수혜, 서비스지원 수혜	183
32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주양육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미이용 이유, 최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계획	186
33	개인 대리양육자 및 서비스 특성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및 알게 된 경로,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 대리양육 이용만족도	188

No.	도구명	해당변인	페이지
34	어린이집 및 서비스 특성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입지조건, 어린이집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평가인증 통과 여부	190
35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및 특성	육아지원기관 외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193
36	최초 대리양육 특성	최초 대리양육 유형 및 최초 대리양육 시작 시기	1차년도
37	지역사회특성 (일반적특성, 물리적특성, 육아관련특성)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195
38	육아지원정책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198

1. 도구명: 아동의 건강특성

2. 해당 변인: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장애, 병력, 만성질환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체중, 신장, 두위: 체중, 신장 및 두위는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기초적 지표로서,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검사임. 각 아동의 상대적인 신체적 특성은 '신체발육표준치'를 참조하여 체중, 신장, 두위의 백분위(percentile)를 알아볼 수 있으며,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초로 제작된 '표준성장곡선'을 참고하여 정상적인 발달 수준 내에 위치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음.
- 출생 후 건강상태: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 신생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신경계 진단을 위해 목기울기와 척추의 이상을 살피고, 심장, 폐 및 장의 이상을 청각적으로 체크 검사하며, 황달 여부 판별을 위하여 피부색을 진단하는 등의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함.¹⁹⁾
-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사회적으로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개별 아동 측면에서는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표준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질병관리본부, 2005). 예방접종은 보건 측면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필수적 처치 중 하나인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방임에 해당되므로,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의 지표가 될 수 있음(Pinheiro, 2006). 예방접종 누락과 관련한 종단자료 결과 건강상의 문제 이외에도 발달 중인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등)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됨(보건복지부, 2005).
- 모유수유: 일생을 통하여 성장률이 가장 빠른 시기인 영아기의 건강 및 영양 상태는 이후의 성장발달의 기초가 되고, 정신발달과도 밀접

19) 출생 직후 신생아의 위험상태를 알아내는 계량화된 도구로 '아프가 검사(Apgar test)'가 널리 이용되는데, 이는 신생아의 피부색(appearance), 심장박동수(pulse), 반사능력(Grimace), 근육상태(activity), 호흡(respiration)에 대한 5개 반사 작용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임. 신생아는 생후 1분과 5분, 총 2회에 걸쳐 검사를 받게 되고 각 척도마다 0점, 1점, 2점을 주어 최종점수를 합산함. 7-10점은 정상으로 판단하며, 4-6점은 원활한 호흡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점 이하는 신생아의 생존이 의심스러운 위급한 상태로 판단하여 집중치료를 받게 됨(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중혜, 2010).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음(Blanc, 1981).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 및 영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Entwistle, 1991).

- 장애: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장애나 장애위험은 발달의 특정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다양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Serna et al., 2000; Sprauge & Walker, 2000). 또한 장애 아동의 가족은 자녀의 특수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 및 의학,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양육의 책임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Webster, Feiler & Webster, 2003).
- 병력 및 만성질환: 질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아동기에 경험하는 만성 신체 질환 및 장애는 잠재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 및 발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Pless & Pinkerton, 1975). 만성 질환을 앓는 아동은 질환 자체로 인한 고통외에도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심한 불편감 및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외관상의 변화(흉터, 비만, 탈모 등) 및 영구적인 신체 기형이나 성장지연 등도 경험할 수 있어 아동의 신체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Garralda & Palanca, 1994), 반복적인 치료 및 입퇴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또래관계를 맺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가 어려움(최승미, 신민섭, 정진엽, 김종술, 2000, 재인용).

4. 도구 출처

- 체중, 신장: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자체제작
-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 (2005). **표준예방접종일정표**. http://www.cdc.go.kr/webcdc/menu05/1_prevention/1_prevention.jsp에서 2007년 5월 14일에 인출.
- 모유수유: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준으로 자체제작
- 병력, 만성질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건강설문 조사표: 소아**. <http://knhanes.cdc.go.kr/>에서 2009년 3월 30일에 인출.

5. 도구 특성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체중, 신장, 두위, 모유수유: CAPI & PAPI
-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체중, 신장, 두위: 병원용 질문지 2-2)~2-4)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2~4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출생 후 건강상태: 어머니대상 질문지 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1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예방접종: 어머니대상 질문지 5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모유수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25~27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8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체중, 신장, 두위, 모유수유: CAPI
 - 예방접종, 장애, 병력, 만성질환: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체중, 신장, 두위: 어머니대상 질문지 43~45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예방접종: 어머니대상 질문지 46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모유수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27~29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장애: 어머니대상 질문지 41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병력: 어머니대상 질문지 38~40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만성질환: 어머니대상 질문지 42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6. 비고

- 체중, 신장, 두위
 - 체중, 신장 및 두위 수치 해석의 기준이 되는 '신체발육표준치'는 성장기에 있는 대상 인구 집단의 통계적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서, 1960년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1998년도까지 10년 주기로 발표되어 왔음. 가장 최근에 발표된 표준치는 지난 2007년 10월 18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가 발표한 '2007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임(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2007).²⁰⁾
 - 신체발육표준치 이외에 조사 대상 아동의 체중, 신장, 두위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성장 도표가 있는데, 이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각국 상황에 맞게 만든 성장 도표와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만든 성장 도표 두 가지가 활용 가능함.

20) '신체발육표준치'는 흔히 '성장도표'라고 불리며, 성장 곡선(Growth curve)과 표(Growth table)로 제공됨.

-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초로 제작된 '표준성장곡선'은 각 아동의 신장과 체중의 증가상태의 기준이 되는 성장곡선의 패턴과 비교하여 비만 또는 저체중 여부, 성장 이상, 영양 장애 여부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음. 두위 자료는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소두증 또는 대두증 등의 뇌발달 이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정희정, 2004), 두개골의 융합이 완전히 끝나는 만 2세까지는 정상 발달의 여부를 측정하는 변인이 됨.
- 각 아동의 체중, 신장, 두위 수치는 원점수 이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 가능함. 첫 번째는 체중, 신장, 두위의 원점수를 백분위수로 환산하여 각 아동의 발달수준을 종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두 번째는 '신체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체중, 신장, 두위의 원점수가 정상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만을 체크하여 이용될 수 있음. '신체발육표준치'상의 정상은 해당 연령 인구집단의 95.4%(±2×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백분위수로 2.3~97.7백분위수 범위에 해당함. 전통적으로 3~97백분위수를 질병 진단의 근거로서 활용하나, 새로운 2007년 성장도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상을 5~95백분위수로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 체중, 신장, 두위는 2회(출생 직후, 출생 후 4개월)에 걸쳐서 조사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출생 후 12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각 시점별 자료는 산부인과 기록 또는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육아수첩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기록을 토대로 수집함.
- 출생 후 4개월과 12개월의 체중, 신장, 두위 자료는 해당 시점을 전후하여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실제 해당 시점의 신체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생 후 건강상태
 - 아프거나 검사가 출생 후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신뢰로운 도구이나, 신생아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자료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음.
 - 출생 직후 신생아 입원실 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출생 후 건강상태를 가늠함. 입원실 치료는 일반적인 경증 질병 치료를, 중환자실과 인큐베이터를 모두 포함한 집중치료실 치료는 장애 또는 중증 질병 치료를 의미함.
 - 1차년도에만 조사되는 문항으로서, 입원실 또는 집중치료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 각실에서 지낸 일수를 추가로 조사하였음.
- 예방접종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종류를 조사 범위로 하고,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이용되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의 예방접종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개별 아동의 예방접종 관련 자료를 수집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나 고위험군 아동에게만 접종이 권장되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예방접종 일정표는 다음과 같음(질병관리본부, 2005).

월령	비씨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디피티)	소아마비 (폴리오)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 뇌염	조사년도
0개월	1회	1차						2008
1개월		2차						
2개월			1차	1차				
4개월			2차	2차				
6개월		3차	3차	3차				2009
12개월					1차	1회	1차, 2차	2010
15개월			추가4					
18개월								2011
24개월								
36개월							3차	
만4세			추가5	추가4	추가2			2014
만6세								
만11세			추가6					2019
만12세								추가5

* 해당 조사년도에 예방접종 문항이 포함됨을 의미함.

- 1차년도의 경우 4개월 시점, 2차년도의 경우 12개월 시점의 예방접종 여부를 조사하였으므로,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음.
- 모유수유
 - 전국적으로 3년 주기로 수행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의 모유수유 관련 문항을 기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가장 큰 차이점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인공유와 혼합하여 모유를 수유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반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모유만을 수유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산모는 모유수유 시도를 그만둘 때까지를 모유수유 기간으로 보았음. 따라서 며칠에 한번 아주 소량이라도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 모유수유 중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음.
 - 1차년도의 경우 생후 4개월까지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주단

위로 자료를 수합하였음. 이때 출산 후 모유수유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하였음.

- 2차년도의 경우 1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보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월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 모유수유 중단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보기가 추가되었음. 추가된 보기는 '⑦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⑧ 아이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⑨ 저절로'의 3개임.
- 장애
 - 2차년도 조사부터 추가된 문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분류된 15개 장애 중 대상 아동이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음. 장애 여부는 장애급수 판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음.
- 병력
 - 2차년도 조사부터 추가된 문항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건강설문(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의 경우 만 1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아를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 중 손상 및 사고중독, 입원, 외래이용에 해당하는 문항 중 발생 여부와 발생 빈도에 해당하는 문항만 활용하였음.
- 만성질환
 - 2차년도 조사부터 추가된 문항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건강설문(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의 '소아조사표'에서 질환에 해당하는 문항임. 원 질문지에서는 질환별로 진단받은 만 연령을 조사하였으나,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의 경우 대상아동의 연령이 모두 만 1세이므로 질환별로 진단받은 월령을 조사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건강설문 조사표: 소아**. <http://knhanes.cdc.go.kr/> 2009년 3월 30일에 인출.
- 보건복지부.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2005**. 서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007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지침: 의사지침서**. 서울: 질병관리본부.
- 정희정. (2004). 소아의 발달장애. **소아과**, 47(2), 131-139.
-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중혜. (2010). **아동발달**. 서

- 울: 신정.
- 질병관리본부. (2005). **표준예방접종일정표**. http://www.cdc.go.kr/webcdc/menu05/1_prevention/1_prevention.jsp에서 2007년 5월 14일에 인출.
 - 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서울: 저자.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Blanc, B. (1981). Biochemical aspect of human milk comparison with bovine milk. *World Review of Nutrition Dietetics*, 36, 1-89.
 - Entwistle, F. (1991). The most natural function. *Nursing Times*, 87(18), 25-26.
 - Pinheiro, P. S. (2006).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 이양희(역).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도구 프로파일 4

1. 도구명: 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K-ASQ)
2. 해당 변인: 아동 발달특성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발달선별검사임. ASQ와 K-ASQ의 질문지는 총 5가지 발달 영역,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운동(gross motor), 소근육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수합할 수 있음.
 - K-ASQ는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2006년에 표준화하였고(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전국의 영유아 3,22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절선점수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도구임.
 - 부모가 작성하는 유아 모니터링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이 이해하기 쉽고 질문지 작성이 용이함. 보호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점수화하는 것이 간단명료하므로 특별한 훈련 없이도 적용할 수 있음.
4. 도구 출처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DT
 - 응답자: 어머니(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K-ASQ의 5개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부모는 '예(영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함.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음. 5개 영역별로 6개 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산출하였음.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 영역별로 0점~60점임.

- K-ASQ는 발달선별검사로서, 해당 연령의 전체 영유아 가운데 보다 심층적인 발달의 평가가 필요한 소수의 영유아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고, 발견된 고위험군 집단에 대해서 발달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K-ASQ의 결과는 영역별로 원점수와 함께 각 원점수가 선별의 기준이 되는 영역별 기준의 2표준편차 아래인 경우를 '절선점수 미만 여부'로 별도 코딩하였음.

6. 문항 양호도

- K-ASQ에서는 총 3,220명의 영유아와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자료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로 신뢰도를 산출하였음. '의사소통'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40\sim.91$ (평균 = .75), '대근육운동'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57\sim.90$ (평균 = .85), '소근육운동'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42\sim.90$ (평균 = .74), '문제해결' 영역의 경우 Cronbach $\alpha = .41\sim.91$ (평균 = .72), '개인-사회성' 영역의 경우 Cronbach $\alpha = .30\sim.88$ (평균 = .65)이었음.
- K-ASQ의 재검사 신뢰도는 36개월과 48개월을 대상으로 3~4주 간격으로 총 80명에게 재검사를 시행한 후 두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음. 개월별 상관관계수를 보면 36개월은 .78~.88이고, 48개월은 .66~.80이었음.
- 부모가 평가한 K-ASQ의 결과는 공인타당 도구의 시행에 의한 분류와 의사의 장애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음. 36개월 미만은 한국판 Denver II(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를 이용 하였고, 36개월 이상에서 60개월까지는 K-DIAL-III(전병운, 조광순, 2003)을 이용하였음. 그 결과 27~60개월 사이의 동의율(percent agreement)이 27개월은 97%, 33개월은 81%, 36개월은 93%, 42개월은 85%, 48개월은 83%, 54개월은 98%, 60개월은 93%로 나타났음.

7. 비교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해당연령을 고려하여 1차년도에 경우 4, 6, 8개월에 해당하는 검사가, 2차년도에 경우 10, 12, 14, 16, 18개월에 해당하는 검사가 사용되었음.
 - 검사를 위해 사용된 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이 아니라 K-ASQ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재태기간을 고려한 교정연령임. 단, K-ASQ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은 Denver-II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과 다르며, K-ASQ의 검사는 개월별로 제작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 아동에 따라 검사별 교정연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상 아동의 교정연령에 해당하는 검사지가 없는 경우, 즉 교정연령이 홀수 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원문 ASQ 지침서에 따르면 이용할 수 있는 검사지는 1개 이상일 수 있음. 예를 들어 교정연령이 5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는 4개월용과 6개월용 검사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음.²¹⁾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는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해 보다 선별될 확률이 낮은 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홀수 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월령보다 낮은 월령의 검사지를 활용하였음. 즉, 교정연령이 5개월 또는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4개월 또는 6개월용 검사지를 활용하였음. 반면 1차년도 기초분석 결과 K-ASQ의 표준화 작업에 따른 평균 및 절선점수에 비해 한국아동패널 대상 영아의 평균 및 절선점수가 월등하게 높았으므로, 2차년도 부터는 홀수 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월령보다 높은 월령의 검사지를 활용하여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수행하였음. 즉, 교정월령이 13개월 또는 15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4개월 또는 16개월용 검사지를 활용하였음.
- K-ASQ 검사 점수는 영역별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 원문 ASQ 지침서에 따르면, 절선점수에 해당하는 -2표준편차는 분할표 조건부 확률과 ROC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한 분석에 기초하여 권고된 것으로, 부가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1표준편차나 -1.5표준편차를 개별 아동에 대한 기타 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²²⁾
 - ASQ의 경우 전체 점수 수준에서는 개별 아동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한국아동패널 자료 또한 K-ASQ 총점은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원문 ASQ의 지침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절선점수(-2표준편차)보다 낮은 경우 '의뢰'하고, 절선점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추후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에 영역별 점수와 절선점수 대비 결과를 기초로 '양호', '의뢰', '추후검사'로 구분하여 분석 가능함.²³⁾ 단, 도구의 특성상 원점수가 5의 배수이므로 영역별 원점수가 절선점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음. 이에

21) 4개월용을 사용하는 근거는 대상 아동의 월령이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6개월용을 사용하는 근거는 대상 아동의 월령이 4개월과 6개월 중 6개월에 가깝기 때문임.

22)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보고서인 '한국아동패널 2009(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립, 최윤경, 송신영 외, 2009)'에서는 K-ASQ 사용 지침서에 제시되어있는 절선점수(-2표준편차)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제공과 더불어 부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자료의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23) 각 영역에서 절선점수(-2표준편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모가 종합판에 염려하는 바를 적은 경우 또한 '추후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음.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K-ASQ 지침서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절선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경우 '추후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연령에 따른 영역별 절선점수 및 추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점수는 다음과 같음.

연령	발달영역	평균	표준편차	-2표준편차 (절선점수)	-1.5표준편차	-1표준편차	추후검 사 점수
4개월	의사소통	51.9	8.4	35.1	39.3	43.5	40
	대근육운동	51.0	11.1	28.8	34.4	39.9	30
	소근육운동	45.8	14.0	17.8	24.8	31.8	20
	문제해결	52.9	11.0	30.9	36.4	41.9	35
	개인-사회성	48.6	11.2	26.2	31.8	37.4	30
6개월	의사소통	46.7	8.6	29.5	33.8	38.1	30
	대근육운동	46.5	11.2	24.1	29.7	35.3	25
	소근육운동	46.1	14.2	17.7	24.8	31.9	20
	문제해결	46.6	13.5	19.6	26.4	33.1	20
	개인-사회성	47.3	11.9	23.5	29.5	35.4	25
8개월	의사소통	39.8	12.8	14.2	20.6	27.0	15
	대근육운동	49.0	12.7	23.6	30.0	36.3	25
	소근육운동	48.9	13.2	22.5	29.1	35.7	25
	문제해결	48.0	10.5	27.0	32.3	37.5	30
	개인-사회성	48.8	11.3	26.2	31.4	37.5	30
10개월	의사소통	43.4	14.3	14.8	22.0	29.1	15
	대근육운동	51.9	12.8	26.3	32.7	39.1	30
	소근육운동	52.4	9.5	33.4	38.2	42.9	35
	문제해결	51.2	11.5	28.2	34.0	39.7	30
	개인-사회성	41.8	14.4	13.0	20.2	27.4	15
12개월	의사소통	44.4	13.0	18.4	24.9	31.4	20
	대근육운동	52.9	12.2	28.5	34.6	40.7	30
	소근육운동	49.9	12.1	25.7	31.8	37.8	30
	문제해결	49.1	13.2	22.7	29.3	35.9	25
	개인-사회성	42.7	12.5	17.7	24.0	30.2	20
14개월	의사소통	46.1	13.2	19.7	26.3	32.9	20
	대근육운동	56.2	9.9	36.5	41.4	46.3	40
	소근육운동	43.9	13.2	17.5	24.1	30.7	20
	문제해결	45.8	13.6	18.6	25.4	32.2	20
	개인-사회성	44.8	12.0	20.8	26.8	32.8	25
16개월	의사소통	40.9	12.8	15.3	21.7	28.1	20
	대근육운동	58.7	5.1	48.5	51.1	53.6	50
	소근육운동	48.9	12.4	24.1	30.3	36.5	25
	문제해결	48.9	13.6	21.7	28.5	35.3	25
	개인-사회성	45.5	12.3	20.9	27.1	33.2	25

연령	발달영역	평균	표준편차	-2표준편차 (절선점수)	-1.5표준편차	-1표준편차	추후검 사 점수
18개 월	의사소통	37.0	13.0	11.0	17.5	24.0	15
	대근육운동	56.8	6.9	43.0	46.5	49.9	45
	소근육운동	48.4	12.7	23.0	29.4	35.7	25
	문제해결	44.3	11.8	20.7	26.6	32.5	25
	개인-사회성	48.8	7.7	33.4	37.3	41.1	35

- 조사대상 부모가 홈페이지에서 K-ASQ 검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이는 패널유지 차원에서 발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필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패널설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매년 보고받는 것이 검사 대상자인 아동으로 하여금 검사 내용을 학습하게 할 뿐 아니라 어머니 또한 검사에 민감해지는 오염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발달검사 결과보고서 조회 여부를 변인으로 포함하였음.

8. 참고문헌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지침서**. 서울: 현문사.
- 전병운, 조광순. (2003). **한국판 DIAL-III**. 서울: 특수교육.
-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외.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 도구명: 한국형 Denver II
2. 해당 변인: 아동 발달특성(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1967년에 처음 미국의 Frankenburg에 의해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DDST)로 개발되었으며, 1990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Denver II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 가장 최근판인 Denver II검사가 2002년도에 국내에서 재표준화 되었으므로 한국아동패널 조사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기에 적절함.
 - 0세부터 만 6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임. 특히 한국아동패널의 연구 대상인 만 4개월 영아도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대상 영아가 조산아로 출생했을 시 조산 연령을 고려한 발달 검사가 가능함. 또한 동일한 도구로 만 6세까지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
 - 주양육자가 아닌 제 3의 검사자가 아동의 수행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수행평가(child performance-based evaluation)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보고에 의한 자료 수집 도구인 K-ASQ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다른 검사 도구에 비해 비교적 쉬운 훈련과정을 거치므로 검사자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도구임.
 -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적응 발달, 언어 발달 및 전체운동 발달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발달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음.
 - 현재 Denver II검사는 12개국 이상에서 표준화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DT
 - 응답자: 훈련된 검사자가 아동의 수행 또는 부모에게 질문한 후 획득

한 응답을 바탕으로 채점

• 점수화 방식

- 각 항목에 대한 검사자의 결과 표시는 '통과(pass)', '실패(fail)', '기회 없음(no opportunity)' 또는 '거부(refusal)'로 구분됨. 각 항목은 규준집단 중 해당 항목을 통과한 아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상(normal)', '주의(caution)' 또는 '지연(delayed)'으로 구분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총평에 해당하는 검사 전체 결과를 해석함. 이에 한 국아동패널에서는 항목별 결과 표시를 다음과 같은 코딩체계에 맞추어 세 가지 변인으로 구분하여 코딩함.

항목	코딩값	변수값 설명
항목별 실시 결과	1	통과 & 연령선 미만
	2	통과 & 규준집단 75%~90% 해당
	3	통과 & 규준집단 25%~75% 해당
	4	실패 & 연령선 미만
	5	실패 & 규준집단 75%~90% 해당
	6	실패 & 규준집단 25%~75% 해당
	7	거부 & 연령선 미만
	8	거부 & 규준집단 75%~90% 해당
	9	거부 & 규준집단 25%~75% 해당
	10	기회 없음 & 연령선 미만
	11	기회 없음 & 규준집단 75%~90% 해당
	12	기회 없음 & 규준집단 25%~75% 해당
항목별 해석 결과	1	정상('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1, 2, 3, 6 또는 9로 코딩된 경우)
	2	주의('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5 또는 8로 코딩된 경우)
	3	지연('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4 또는 7로 코딩된 경우)
	4	기회 없음('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10, 11 또는 12로 코딩된 경우)
아동별 검사 결과	1	정상발달('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들 중 4 또는 7로 코딩된 항목이 없고, 5 또는 8로 코딩된 항목이 1개 이하인 경우)
	2	의심스런 발달('정상발달'로 코딩되지 않은 그 외의 경우)

-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과 '항목별 해석 결과'는 개별 아동이 Denver II검사를 실시할 때 수행하였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자료가 코딩되어 있으며, '아동별 검사 결과'는 Denver II검사에 대한

전체 결과로서 개별 아동이 단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음.

6. 비교

- Denver II검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Denver II검사는 24개월 이하는 월별로,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연령이 구분되어 있음.
 - Denver II검사는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적응 발달, 언어 발달, 전체운동 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해 아동의 교정연령별로 연령에 해당하는 문항과 연령 이전 문항, 연령 이후 문항으로 구성됨. 즉, 각각 표준화 작업을 위한 기준집단의 25%만이 통과한 연령을 하한선으로, 90%가 통과한 연령을 상한선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영역별로 실시하여야 할 문항을 결정함.
 - 원 Denver II검사는 본래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준화된 한국형 Denver II검사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영역 27문항으로 구성됨.
- Denver II검사와 관련된 변인 사용 시 다음의 사항에 주의가 요구됨.
 - ‘항목별 실시 결과’에서 1로 코딩된 경우는 실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즉, Denver II검사 실시 요강에 따르면 기준집단 90%이상이 통과한 항목인 연령선 아래 항목은 일차적으로 3개만 실시하도록 하며, 3개를 모두 통과한 경우 그보다 더 쉬운 항목은 실시하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 통과한 항목들 중에는 실제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아동별 검사 결과’ 변인은 Denver II검사 실시 요강에 제시된 검사 결과 해석 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원 Denver II검사 실시 요강에 따르면 ‘정상발달’과 ‘의심스러운 발달’ 이외에 ‘검사 불능’이 있음. 이는 ‘검사 불능’에 해당하는 아동 중 ‘주의’ 및 ‘지연’ 항목의 원인이 ‘실패’가 아닌 ‘거부’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로 임상 맥락에서 사용하는 해석에 해당하며, ‘의심스러운 발달’이라는 해석 결과와 상호배타적으로 코딩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검사 불능’을 코딩규칙에 포함하지 않았음. 이에 ‘검사 불능’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Denver II검사 실시 요강에 따라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을 이용하여 별도로 재코딩이 요구됨.²⁴⁾

24)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보고서(조복희 외, 2009)에서는 Denver II검사의 아동별 결과를 ‘정상’, ‘의심스런 발달’, ‘검사 불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Denver II검사 실시 요강에 따르면 ‘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에서 ‘기회 없음’으로 코딩된 경우(항목별 실시 결과 변인=10, 11 또는 12)는 전체 검사 해석 시 고려되지 않음. 따라서 ‘아동별 검사 결과’에서 ‘정상’으로 코딩된 경우(아동별 검사 결과=1)에는 항목을 실제 통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 검사를 위해 사용된 연령은 아동의 생활연령이 아니라 Denver II검사 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재태기간을 고려한 교정연령임. 단, Denver II검사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은 K-ASQ의 교정연령 계산 방식과 다르며, K-ASQ의 검사지는 월별로 제작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 아동에 따라 검사별 교정연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원 Denver II 검사지침서에 따르면, 각 항목에 대한 수행 능력은 ‘정상’, ‘주의’, ‘지연’ 외에 ‘월등(advanced)’으로 항목 해석이 가능함. ‘월등’ 항목은 규준아동의 25%미만만이 수행에 성공한 항목, 즉 연령 이후 항목을 통과하는 것으로서, 선별적인 기능보다는 개별 아동의 최대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 주로 사용함.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검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별 아동의 최대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 하였으므로, ‘월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실시되지 않았 음.
- 조사대상 부모가 홈페이지에서 Denver II 검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이는 패널유지 차원에서 발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필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패널설계의 경우, 검사결과를 매년 보고받는 것이 검사 대상자인 아동으로 하여금 검사 내용을 학습하게 할 뿐 아니라 어머니 또한 검사에 민감해지는 오염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발달검사 결과보고서 조회 여부를 변인으로 포함하였음.

7. 참고문헌

- 신희선. (2002). 아동발달 사정-Denver II를 중심으로. **대한아동간호학회지**, 8(4), 482-484.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Denver II 발달검사를 이용한 한국과 미국의 아동발달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89-97.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외. (2009). **한국아동 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1. 도구명: EAS 기질척도: 부모용(The EAS: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2. 해당 변인: 기질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기질은 각 아동이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서, 영유아 연구에 필수적인 변인임.
 - 영유아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이 다른 환경적 요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차를 유발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음.
 -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의 경우,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 이 중, 부모평정형 EAS는 1세~9세까지 사용 가능한 도구임.
 - 부모평정형 EAS는 네덜란드(Boer & Westenberg, 1994), 독일(Spinath & Angleitner, 1997), 노르웨이(Mathiesen & Tambs, 1999) 등에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7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임. 단, EAS 중

-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이 요구됨.
- 1, 2차년도의 EAS는 정서성과 활동성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역별 점수의 총합을 산출하여 사용 가능함.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영역별로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함(표 참조).

문 항 내 용	하위 영역	역코딩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정서성	
2)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활동성	
3)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정서성	
4)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활동성	○
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활동성	
6)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정서성	
7)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활동성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정서성	
9)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활동성	○
10)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정서성	

6. 비고

- 원 EAS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5개, 5개, 10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사회성 영역의 경우 2세 미만 영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사회성 10개 문항은 제외되었으며, 삭제된 문항은 아래 표와 같음. 역코딩 문항에 해당하는 1, 7, 8, 9번을 채점한 경우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함.

-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 2)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3)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 4)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 5)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 6)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 7)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 8)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 9)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 1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7. 참고문헌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최영희. (1993).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 (1) :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17-226.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er, F., & Westenberg, P. M. (1994).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uss and Plomin EAS Temperament Survey (parental ratings) in a Dutch sampl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3), 537-551.
- Goldsmith, H. H., Buss, K. A., & Lemery, K. S. (1997). Toddler and childhood temperament: Expanded content, stronger genetic evidence, new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81-905.
- Mathiesen, K. S., & Tambs, K. (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 431-439.
- Spinath, F. M., & Angleitner, A. (1998). Contrast effects in Buss and Plomin’s EAS Questionnaire: A behavioral-genetic study on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assessed through parental rating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947-963.

도구 프로파일 7

1. 도구명: 기본생활습관(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2. 해당 변인: 수면, 수유, 배변/씻기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습관은 일정한 행동이 반복되어 주위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형성되어지는 행동의 패턴으로서, 영아기의 기본습관은 이 시기에 몸에 익혀야 할 과업의 하나임. 특히 영아기의 기본습관은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지녀야 할 기본생활습관의 기초가 되므로, 영아기 기본습관의 형성은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기본이 됨. 따라서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여부는 청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김희진, 이승연, 이승화, 1996; 콕노의, 최민수, 김규수, 김경철, 유구중, 1997).
4. 도구 출처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 Allen. K. E., & Martoz. L. R. (2007).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5th ed.). Florence, KY: Cengage Learning.
5. 도구 특성
 -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 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22~2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수면 5문항, 수유 5문항, 배변/씻기 3문항의 총 13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3점~65점임.
 -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 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35~37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 중에

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수면 3문항, 식습관 4문항, 배변/씻기 4문항의 총 11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점~55점임.

6. 비교

- 1차년도는 Allen과 Martoz의 제4판을, 2차년도는 제5판을 출처로 하였음.
- Allen과 Martoz(2003)의 원도구는 각 연령에서 아동이 하고 있는 기초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개발하였음.
- 1차년도는 1~4개월 영아가 완수하여야 할 기초과업에 해당하며 수면, 수유 및 배변/씻기 습관으로 구성됨. 2차년도는 만 1세 영아가 완수하여야 할 기초과업에 해당하며,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으로 구성되었음.
- 수면 습관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1차년도의 경우 수면 습관에 관련한 문항은 수면 시간뿐 아니라 취침 전 수유, 잠들기 전 행동 등으로 문항이 구성됨.
 - 1차년도 22-1번 문항에서 취침 전 수유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수유를 의미하며, 밤중 수유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낮 시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자는 취침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 1차년도 22-4번 문항에서 손가락을 빨려는 행동은 협응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안행동(comforting behavior)의 출현에 관한 것임.
- 수유 습관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1차년도 23-1번 문항에서 1회 먹는 우유의 양은 약 140~160ml 정도로 추정하도록 함.

7. 참고문헌

- 김희진, 이승연, 이은화. (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6(2), 161-177.
- 곽노의, 최민수, 김규수, 김경철, 유구종. (1997). 유아 기본생활습관 평가도구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39-166.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 Allen. K. E., & Martoz. L. R. (2007).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5th ed.). Florence, KY: Cengage Learning.

도구 프로파일 8

1. 도구명: 알코올 사용 장애 식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2. 해당 변인: 건강특성(음주)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산모의 음주는 저체중아 출산 등 신생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UNICEF & WHO, 2004). 건강상의 영향 이외에도 부모의 만성적인 음주는 문제 행동,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쳐 가족 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Farrell, Barnes, & Banerjee, 1995; Leonard & Eiden, 2007),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음(Bennett, Wolin, & Reiss, 1988; Green, MacIntyre, West, & Ecob, 1991; Plant, Orford, & Grant, 1989).
- 음주는 여러 건강 및 생활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음주율은 83.3%로 세계 최고 수준임(오명주, 송종임, 박상민, 조비룡, 2009).
- AUDIT는 WHO에서 개발한 음주문제의 정도 평가 도구로서 음주량 3문항, 음주행태 3문항, 정신-사회학적 문제 유무 4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Babor, Higgins-Biddle, Saunders, & Monteiro, 2001). AUDIT는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DSM-IV의 기준이 만성적인 형태의 문제 음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강하지 못한 음주(unhealthy drinking)를 다루는 초기의 위험성 있는 음주 선별 도구이므로 활용 가치가 더 높음.
- AUDIT는 김종성, 오미경, 박병강, 이민규, 김갑중, 오장균(1999)에 의해 국내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어 한국판 AUDIT의 선별 기준이 마련된 바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3기 조사부터 AUDIT가 사용됨에 따라(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가수준의 실태조사에서 사용되어오고 있으므로, 한국판 AUDIT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음.

4. 도구 출처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Geneva, Switzerlan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 (2005)-총괄**. 서울: 저자.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11~1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7~9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15~17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8~10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부모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원 AUDIT는 총 10개 문항(음주량 3문항, 음주행태 3문항, 정신-사회학적 문제 유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음주량에 대한 1, 2번 문항만 발췌하여 사용하였음. 특히 음주량 문항에 해당하는 3번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3기 조사표에서 원 AUDIT와 상이하게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제외하였음.
- 원 AUDIT는 음주 여부에 대한 문항이 별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 문항의 보기로 음주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평소에 음주를 하나 가족주기상 임신, 출산 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예상되므로, 음주 여부에 대한 문항을 단독 문항으로 수정, 제작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종성, 오미경, 박병강, 이민규, 김갑중, 오장균. (1999). 한국에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 통한 알코올리즘의 선별 기준. *가정의학회지*, 20(9), 1152-115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 (2005)-총괄**. 서울: 저자.
- 오명주, 송종임, 박상민, 조비룡. (2009).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의학회지*, 30(11), 64-76.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Geneva, Switzerlan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Bennett, L. A., Wolin, S. J., & Reiss, D. (1988).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school-age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85-190.
- Farrell, M. P., Barnes, G. M., & Banerjee, S. (1995). Family cohesion as a buffer against the effects of problem-drinking fathers on psychological distress behavior and heavy drin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77-385.
- Green, G., MacIntyre, S., West, P., & Ecob, R. (1991). Like parent like child? Associations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ur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6(6), 745-758.
- Leonard, K. E., & Eiden, R. D. (2007).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the context of alcohol use and alcohol disorder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3, 285-310.
- Plant, M. A., Orford, J., & Grant, M. (1989). The effect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of parents' excessive drinking: An international review. *Public Health Reports*, 104(5), 433-442.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Low birth weight: Country, regional and global estimates*. New York: Author.

1. 도구명: 니코틴 중독 자가 검사(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Test, FND)
2. 해당 변인: 건강특성(흡연)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전통적으로 부모의 흡연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임신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음. 즉, 흡연을 하는 임신부의 아기는 저체중인 경향이 있으며(Ong, Preece, Emmett, Ahmed, & Dunger, 2002), 심장 손상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김경희, 2003),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달을 저해하여 ADHD 등의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신현균, 김진숙, 2000; Thapar, Fowler, Rice, Scourfield, van den Bree, Thomas, Harold, & Hay, 2003).
4. 도구 출처
 -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and Throat Journal*, 69, 763-765.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14~2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문항 10~16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18~2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문항 11~17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를 다음의 괄호 안의 점수로 채점하여 니코틴 의존도 점수를 산출할 수 있음.

- 1)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5분 이내(3) ② 6-30분 이내(2) ③ 31-60분 이내(1) ④ 한 시간 이후(0)
- 2)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1) ② 아니오(0)

3)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기상 후 첫 담배(1) ② 그 외의 담배(0)

4)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① 10개비 미만(0) ② 11-20개비(1) ③ 21-30개비(2) ④ 31개비 이상(3)

5)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① 예(1) ② 아니오(0)

6)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1) ② 아니오(0)

-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10점임.
- 산출된 총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함.

1~2점: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3~4점: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5점: 중간 수준의 니코틴 중독
6~7점: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8~10점: 매우 높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6. 비교

- 부모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원검사의 문항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ND 검사에 앞서서 흡연 여부에 대한 문항을 추가시켜 흡연자만 본 도구에 응답하도록 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음.

7. 참고문헌

- 김경희. (2003).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신현균, 김진숙. (2000).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서울: 학지사.
-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and Throat Journal*, 69, 763-765.
- Ong, K. K. L., Preece, M. A., Emmett, P. M., Ahmed, M. L., & Dunger, D. B. (2002). Size at birth and early childhood growth in relation to maternal smoking, parity and infant breast-feeding:

Longitudinal birth cohort study and analysis. *Pediatric Research*, 52(6), 863-867.

- Thapar, A., Fowler, T., Rice, F., Scourfield, J., van den Bree, M., Thomas, H., Harold, G., & Hay, D. (2003).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in offspr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60(11), 1985-1989.

도구 프로파일 11

1. 도구명: 임신/출산 관련 태도 및 부모교육
2. 해당 변인: 기대성별,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부모교육 여부, 내용 및 교육기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기대성별: 남아선호사상은 가문계승과 노후보장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현대 사회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자녀성별기대에 대한 풍조로 여겨져 왔음(이성용, 2004). 그러나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실제 출생 성비는 1998년 110.2명에서 2008년에는 106.4명으로 낮아져, 자연적 출생 성비인 103~107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남아선호에 기인한 선택적 여아낙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더욱이 가문계승을 위한 남아선호가 사회규범적인 특성을 지닌 것에 반해, 노후보장을 위한 남아선호는 개인의 차별적 기대에 근거한다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여아선호가 두드러짐. 이로써 남아선호사상이 희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출산한 자녀의 성별이 기대했던 성별과 차이가 있는 경우 산후관리(김중임, 2007), 어머니 역할수행 등(정은순, 한명은, 1999)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기대자녀 수와 이상자녀 수는 자녀가치관 및 출산행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임. 이상자녀 수는 응답자가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주관적인 자녀규모를 밝히는 가치관임. 기대자녀 수는 지금까지 실제 출생자녀수에다가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자녀 수를 합한 개념으로 완결출산력의 의미를 가지며, 이상자녀 수와 달리 미래의 출산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및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임. 특히 부모는 자녀가 접하는 최초의 교육적 환경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이재연, 김경희, 1989).

4. 도구 출처

- 임신/출산 관련태도
 - 기대성별: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기대자녀 수, 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교육기관: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기대성별: 병원용 질문지 11~1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어머니대상 질문지 9~10번
(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향후 출산 계획: 어머니대상 질문지 8~8-2)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5-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면접조사용 질문지 2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어머니대상 질문지 7~7-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4~4-1)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향후 출산 계획: 어머니대상 질문지 5~5-5)번, 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기대성별
 - 1차년도에만 조사하였음.
 - 기대성별 문항은 아동발달백서의 '임신 중 원하던 성'의 부분을 발췌하여 대상아동의 성별이 바라던 것이었는지에 대해 어머니와 배우자의 생각을 구분하여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음.
- 기대자녀 수, 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계획
 - 1차년도에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차년도 부터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향후출산계획의 문항에는 신규 4문항 추가되었으므로 1차년도와 함께 이용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함(신규문항: 어머니대상 질문지 5-2번,

5-4번, 5-5번, 6번).

- 원칙도는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관하여 6개 영역(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가치관, 가족, 건강, 기타)에 관한 24개의 보기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삼식 외(2005)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률이 낮은 문항의 보기(예: 주택마련, 직장차별, 사회활동 지장, 가족수발, 부부불공평 분담 등)를 제외하였음.
- 원칙도에서 '소득이 적어서'라는 이유를, 자녀를 그만 낳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높았으나,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의 보기와 중복되는 의미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음.
- 이상자녀 수를 묻는 문항 중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없이 입니까?"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기대를 묻는 문항으로, 자체 제작한 문항임.
- 부모교육 여부 및 내용, 교육기관
 -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되므로, 1차년도에만 조사하였음.
 - 문항의 구성은 부모교육 여부, 부모교육을 받은 내용, 부모교육 실시주체에 대해 나누어 질문하였음.
 - 부모교육의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전반적 내용과 실제 산모들이 이용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되는 내용을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구성하였음.
 - 부모교육의 실시 주체는 임신부를 포함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영리, 비영리 기관과 단체를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구성하였음. 이 때 인터넷 또는 서적 등의 기타 자료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것은 부모교육에서 제외하였음.
 - 부모교육 내용과 실시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은 실제 실시되는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기타'의 항목을 넣어 질문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중임. (2007). 출산여성의 산후관리수행의 관련요인. **여성간호학회지**, 13(2), 98-104.
- 문명진, 정지훈, 최준식, 안현경, 류현미, 임하정 외. (2003). 계획임신율과 계획임신에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대한산부회지**, 46(9), 1741-1745.
- 이성용. (2004). 성선호 원인에 대한 한국과 자메이카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109-141.
- 이재연, 김경희. (1989).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

-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순, 한명은. (1999).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5(1), 79- 88.
 -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도구 프로파일 12

1. 도구명: 자녀 가치
2. 해당 변인: 부모됨의 태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됨의 동기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유안진, 김연진, 1997), Wollett (1991)은 부모됨에 대한 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시작과 그 전부터 그 기원을 둘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임.
4. 도구 출처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1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1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7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35점임.
6. 문항 양호도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주축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총 두개의 요인이 추출됨. 개념적으로 자녀의 가치에 대하여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두 요인으로 구분됨.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정서적 가치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구적 가치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각 요인의 고유치는 정서적 가치 요인이 3.24, 도구적 가치 요인은 1.18이었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6.33%, 16.81%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63.1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0$ 이었음.

7. 비교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2005)의 원도구는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되어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되어 사용되었음.
- 원도구는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라는 보기가 포함되어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문항의 경우 자녀 양육의 부담이 매우 큰 출산 직후의 가정에는 변별력이 없는 문항일 뿐만 아니라 개념상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

8. 참고문헌

- 유안진, 김연진. (1993).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Wollett, A. (1991). Having children: Accounts of childless women and women with reproductive problems, In A. Phoenix, A. Wollett, & E. Lloyd (eds.), *Motherhood: Meanings, practices and ideologies (Gender and psychology series)* (pp. 47-65). London, UK: Sage Publications.

도구 프로파일 13

1. 도구명: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2. 해당 변인: 양육실제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영아기는 생애 최초의 경험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중요함. 또한 그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아와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데,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 부모의 양육 스타일임. 영아의 경우 신체적, 지적, 인성발달이 다른 연령 단계와는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부모의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는 양육행동의 측정도구를 사용해야함. 이에 PSQ는 영아가 갖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도구로서 가치가 있음. 그러나 PSQ는 20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 중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사회적 양육유형' 관련 문항만이 적절함(아래 '비교' 참조).
4. 도구 출처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5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6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 스타일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Bornstein(1989)의 PSQ 개발 연구에서 20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222명을 대상으로 PSQ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64$ 였음.
- Bornstein et al.(1996)의 연구에서 20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102명을 대상으로 PSQ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68$ 이었음.
- 이형민(2006)의 연구에서 5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31명을 대상으로 PSQ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양육유형'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0$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75$ 였음. 비교적 낮은 신뢰도 점수로 인해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주축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6개의 문항 중 각각 3개의 문항이 요인으로 묶여 총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2.74, 요인 2는 1.04였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6.33%, 16.81%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62.9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요인별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항	요인 1	요인 2
1)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10	.72
2)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14	.69
3)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18	.39
4)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50	.07
5) 나는 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79	.08
6)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71	-.07

- 위의 2개 요인에 대하여, 요인 1은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므로 '온정성', 요인 2는 어머니가 실제로 반응하는 정도를 보여주므로 '반응성'이라고 명명함.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간략형 PSQ는 두 가지 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함.

7. 비교

- PSQ는 총 17문항으로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 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 setting)'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적 양육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고, '가르치는 양육유형'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학습하고 모방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해 자극을 주는 정도를 의미함. '한계설정 양육유형'은 영아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를 의미함.
- PSQ는 20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므로, PSQ의 3개 요인 중 신생아 부모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하였음. 사회적 양육유형의 9개 문항 중 만 2세 이하 부모에게 적절하지 않은 3개 문항을 제외하였음.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외된 PSQ의 문항은 대상 아동이 20개월이 넘는 3차년도 조사 시 포함될 예정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
|---|

- 문항 진술을 1차년도에는 '나는 내 아이와...'로 되어있었으나, 2차년도에 '나는 우리 아이와...'로 변경하였음.

8. 참고문헌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1. 도구명: 양육지식(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2. 해당 변인: 양육지식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의 수준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참조의 틀로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하고(MacPhee, 2002),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기대로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Sommer, Whitman, Borokowski, Schellenbach, Maxwell, & Keogh, 1993). 이러한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KIDI는 아동의 발달 과정과 발달 규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어 표준화된 도구임.
4. 도구 출처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7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총 문항 중에 정답 수의 비율을 산출함.
6. 비고
 - KIDI는 영아용과 유아용(KIDI-P)으로 구분되는데, '양육행동(parenting)' 8문항, '발달원리(principles)' 15문항,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9문항, '발달 규준 및 지표(norms and milestones)' 26문항의 총 58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KIDI의 58개 문항 중 전반부의 39개 문항(1번~39번)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반부의 19개 문항(40번~58번)은 '그렇다',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이후에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이 중 후반부의

19개 문항은 ‘발달 기준 및 지표’ 영역 중 발달 지표(milestones)에 해당함.

- KIDI 매뉴얼에서 MacPhee(2002)는 영역별로 점수화하는 것보다는 총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패널조사에서 사용하기에는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발달원리’ 영역의 문항만이 사용됨. 이로써 ‘발달원리’ 영역의 15문항이 1차로 선정되었으며, MacPhee의 1981년 17개 문항과 2002년 15개 문항을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만을 사용하였음. 2002년도 문항에서 제외된 2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아기가 부모에게 강하게 애착이 형성되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심하게 붙어 있으려 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 아기는 태어나기 이전에 들었던 음악이나 이야기를 인식한다.

- KIDI에서 infant, newbor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아기’로, child, children, kids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아이’로 해석됨.
- 양육지식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음.

문항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
4) 아기가 자라온 양육 방식은 그 아기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5)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아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6) 동생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게 되기도 한다.	√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
8)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주면 익숙해질 때까지 그 음식을 대부분 뱉어낼 수 있다.	√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

문 항 내 용	그렇다	아니다
11) 아기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 함으로써 모든 언어를 배운다.		√
12) 소음이 심하거나 볼 것이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7. 참고문헌

- Bornstein, M. H., Cote, L. R., & Park, S. Y. (2002). *Mother-child interaction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Manuscript.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Sommer, K., Whitman, T., Borokowski, J., Schellenbach, C., Maxwell, S., & Keogh, D. (1993). Cognitive readiness and adolescent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389-398.

도구 프로파일 15

1. 도구명: 양육신념

2. 해당 변인: 양육신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니는 양육신념은 부모 행동의 근원으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과 아동행동 사이를 조정하는 중재요인으로 기능을 함. 따라서 부모의 양육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
- 부모의 신념은 부모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여 형성되므로 부모들이 속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기타 준거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양육신념 또한 차이가 있음. 특히 최근의 저출산과 급격한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겪고 있고,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부모의 양육신념이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의 양육신념에 관한 변화를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아동발달의 제반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신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요구됨.
- European Values Systems Study Group(EVSSG)에 의해 총 15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 처음 시작된 European Values Study(EVS)에서는 각국 조사 대상의 여러 가치관과 신념 중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EVS에서 사용된 양육신념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4. 도구 출처

- Halman, L. (2001). *The European Values Study 1999: A third wave - Source book of the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 <http://www.europeanvalues.nl>에서 2007년 8월 26일 인출.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2~2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2~3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9~1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2~3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6. 비교

- EVS는 1970년대 말 EVSSG에 의해서 고안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한 대규모의 비교국가 종단연구로, 유럽인들의 사회 정치적인 제도와 통치 행동의 기저에 있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1981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15개 유럽 국가가 처음으로 연구에 참여한데 이어 1990년 21개국, 1999년 26개국, 그리고 2008년 39개국이 참여하는 연구로 성장하였음.
-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양육신념 2개 문항은 EVS 2차년도에 해당하는 1990년부터 포함된 것으로, EVS 1차년도에 해당하는 1981년도에는 상이한 형태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즉, EVS 1차년도에는 양육신념과 관련된 2개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문항인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11개 특성보다 5개 많은 16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EVS에서 사용한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Good manners
 - ② 독립심: Independence
 - ③ 근면함: Hard work
 - ④ 책임감: Feeling of responsibility
 - ⑤ 상상력: Imagination
 -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Tolerance and respect for other people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Thrift, saving money and things
 - ⑧ 결단력과 끈기: Determination, perseverance
 - ⑨ 종교적 신념: Religious faith
 - ⑩ 이타심: Unselfishness
 -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Obedience

7. 참고문헌

- Halman, L. (2001). *The European Values Study 1999: A third wave - Source book of the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 Retrieved from <http://www.europeanvalues.nl>에서 2007년 8월 26일 인출.

1. 도구명: 자녀의 미래기대(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2. 해당 변인: 자녀의 미래기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모의 양육 및 훈육방식 등을 기초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왔음. 최근 들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써 부모의 기대를 연구하기 시작함(신건호, 구본용, 2004).
- 부모의 기대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자녀의 발달, 학습 및 행동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정소영, 권순태, 2008; 한유미, 권희경, 2006), 비교적 현재 또는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루고 있음.
-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개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속한 거시적, 미시적 체계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최근 부모-자녀관계를 인간관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로 구분하여 이러한 특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를 예측해보도록 하려는 시도가 생겨남(문연심, 2004; 신건호, 2004; 신건호, 구본용, 2004).
- 일본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NWEC)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에 대한 특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이 중 자녀의 미래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가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NWEC에서 사용된 자녀의 미래기대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4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1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5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주어진 보기의 '매우 원한다(1점)'부터 '전혀 개의치 않는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6. 비교

- 본 변인의 경우 각 항목 별로 응답자가 원하는 정도를 해석하게 되므로, 본 변인의 총점은 산출하지 않음.
- NWECC의 국제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의 개별 항목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음.
 - ① 돈을 잘 번다: High earnings
 - ②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Fame or celebrity status
 - ③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High status
 - ④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Willingness to help others
 - ⑤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A happy home
 - ⑥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Put more emphasis on hobbies and leisure than work

7. 참고문헌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준 및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신건호. (2004).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감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2), 143-159.
- 신건호, 구본용.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부모의 자녀성적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자아개념 및 미래기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2(2), 30-41.
- 정소영, 권순태. (2008). 연관규칙과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중도탈락자 예측모형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6(5), 202-210.
- 한유미, 권희경. (2006).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의 성취 및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아동권리연구*, 10(4), 751-769.
- 현정환. (2005). 한국과 일본 부모의 아동관 및 양육태도, 아동의 생활 실태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9(2), 163-177.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1. 도구명: 양육스트레스 척도

2. 해당 변인: 양육스트레스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대표적인 양육스트레스 척도인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이외에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 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개발되었음. 자녀 연령 측면에서는 영아가 포함되었으며, 어머니의 특성 측면에서는 취업모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음.

4. 도구 출처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5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에서 6세 이

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 2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척도' 총점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8$ 이었으며, 이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9$ 였음. 또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Goldberg(1980)의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와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척도' 총점과의 상관은 $.41(p < .001)$ 이었으며, 이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과의 상관은 $.47(p < .001)$ 이었음.

- 조지은(2006)의 연구에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153쌍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아내는 Cronbach $\alpha = .90$, 남편의 Cronbach $\alpha = .92$ 였음.
-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 289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였음.

7. 비교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PSI는 '부모 영역(parent distress)', '아동 영역(difficult child)', '부모-자녀 상호작용 영역(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처음으로 표준화된 1983년도 판(Abidin, 1983)은 총 1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도 판(Abidin, 1990)에서 총 36개 문항의 간편형이 제작되었으며, 이후 원 PSI 또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오고 있음(Abidin, 1995).
 -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32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케 되는 것을 반영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이 양육하는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함.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음.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

개 문항과 영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을 제외하였음. 이에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조지은. (2006).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부모기 전이 부부를 대상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편은숙.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Abidin, R.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oldberg, S., Morris, P., Simmons, R., Fowler, R., & Levinson, H. (1990). Chronic illness in infancy and parenting str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5, 347-358.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도구 프로파일 18

1. 도구명: 아버지 특성

2. 해당 변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핵가족화된 현대사회로 오면서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이숙희, 고인숙, 최향숙, 2003).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이 증명되었고, Gilbert, Hanson과 Davis(1982)에 의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때 유아 발달의 여러 측면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음.
- Belsky와 Isabella(1985)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시간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함. 이정순(2003)은 손이 많이 가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의 발달을 넘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특히 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도구적 지지에 해당하는 자녀양육 참여뿐만 아니라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정서적 지지로서 기능을 하여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Taylor & Spencer, 1989).

4. 도구 출처

- 강희경. (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9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6$ 이었음.

7. 비교

- 원척도의 문항에서 '아이'로 표현된 문항을 '아기'로 표현을 수정하여 질문함.
- 한국아동패널 1차, 2차년도 문항에서는 패널 대상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원척도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원척도	한국아동패널(1차, 2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8. 참고문헌

- 강희경. (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유호용. (2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숙희, 고인숙, 최향숙. (2003). 현대부모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순.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Gilbert, G., Hanson, R., & Davis, B. (1982). Perception of parental

- role respo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Family Relations*, 31, 261-269.
- Taylor, J. & Spencer, B. (1989). Lifestyle patterns of university women: Implications for family/career decision modeling. In E. Goldsmith (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265-277). Newbury Park, CA: Sage.

1. 도구명: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

2. 해당 변인: 자기 효능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Bandura(1977)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였음. 즉,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일어난다고 강조하였음.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음.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높은 내적합치도와 비교적 작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로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 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에 인출.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

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PSID-CDS 1차년도 조사(Hofferth et. al., 1998)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214명을 대상으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76$ 이었음.
-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 Grodsky, 2006)에서 5세-18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885명을 대상으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79$ 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였음.

7. 비교

- PSID-CDS는 PSID에 패널로 참여하는 가구 중 가구에 아동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 조사로서, 2,394가구의 0세-12세 3,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년도 조사(이하 PSID-CDS I)와 2,017 가구의 5세-18세 아동 2,908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년도 조사(이하 PSID-CDS II)가 있음²⁵⁾.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PSID-CDS I과 PSID-CDS II에서 모두 사용되었는데, PSID-CDS I에서는 7개 문항이 이용된 반면, PSID-CDS II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3개 문항이 제외되어 4개 문항이 이용됨.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PSID-CDS II에서 이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함.
- PSID-CDS II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4점 척도였으나,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였음.

8. 참고문헌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25) PSID-CDS I은 1997년에, PSID-CDS II는 2002년부터 2003년에 자료가 수집되었음.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에 인출.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1. 도구명: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2. 해당 변인: 자아존중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 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점 및 이해 수준이 달라지며, 이는 양육태도와 양육실제에 영향을 주게 됨.
 -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Baker, Keck, Mott, & Quinlan, 1993),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 Grodsky, 2006) 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함.
4. 도구 출처
 - Rosenberg, Morris.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y/research/rosenberg.htm> 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40점임. Rosenberg 자

자존중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이 요구됨.

-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문항내용	역코딩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6. 문항 양호도

- PSID-CDS 1차년도 조사(Hofferth et al., 1998)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202명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83$ 이었음.
-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2006)에서 5세~18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889명을 대상으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85$ 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였음.

7. 비교

- 원도구의 10번 문항의 경우, “At times I am no good at all”로 기술된 원 문항을 이상균(1999)은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의 의미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그러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원문의 의미가 쓸모없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으며, 원도구 지침서(Rosenberg, 1986)에서도 10개의 문항을 개발한 근거인 Stouffer

et al.(1953)의 6개 문항 중 6번째 문항이 본 자아존중감 도구의 9번과 10번 문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9번 문항이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인 것으로 볼 때 10번 문항의 경우 쓸모없다고 해석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10번 문항은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로 수정하여 활용하였음.

8. 참고문헌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Baker, P. C., Keck, C. K., Mott, F. L., & Quinlan, S. V. (1993). *NLSY child handbook*. Columbus, OH: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versity.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1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y/research/rosenberg.htm> 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1. 도구명: Kessler 우울 척도(K6)

2. 해당 변인: 우울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징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족한 사회적 기술임(Downey & Coyne, 1990).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평가와 함께 과대 혹은 과소평가, 감정표현의 부족 등이 부부관계에서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Hammen, 1992). 이로 인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행동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Beardslee, Bemporad, Keller, & Loerman, 1983; Fendrich, Wamer, & Weissman, 1990).
-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은 산모의 약 50~70% 정도가 경험하며, 발생 시기는 산후 수일 이내인 분만 후 3~5일 사이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정균, 1990). 이러한 산후 우울은 모자관계 성립에도 영향을 주어, 분만 후의 우울증은 영아에 대한 낮은 민감성, 부모 효능감의 약화, 향후 1년 말에 나타나는 아기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Cramer, 1993).
-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된 'K6'은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ormand, Walters와 Zaslavsky(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임. DSM-IV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구임.

4. 도구 출처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병원용 질문지 9번, 전화조사용 질문지 2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문항 3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문항 3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6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 19점~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됨.

6. 문항 양호도

- PSID-CDS(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1차년도 조사(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에서 0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일차양육자 2,160명을 대상으로 K6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이었음.
- Kessler et al.(2006)의 연구에서 15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K6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9$ 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9$ 였음.

7. 비교

- 산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울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 방문 시 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병원에서도 실시하였음.
- Kessler, et al. (2007)에 따르면 원 K6의 점수화 방식은 '전혀 안 느낌'을 가장 낮은 점수인 0점으로, '항상 느낌'을 가장 높은 점수인 4점으로 코딩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부터 24점임. 이에 정상수준은 0점~7점, 경도/중등도 우울은 8점~12점, 중도 우울은 13점~24점으로 분류되었음(Kessler, Galea, Jones, & Parkerd, 2006).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K6 결과의 원점수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우, 원 도구와 동일한 방식으로의 재코딩이 요구됨.
- 2007년 예비조사 시에는 K6의 본 문항 6개와 추가 문항 3개를 모두

사용하였음. 추가 문항의 경우 조사 참여자의 응답에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우울 정도의 점수화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조사 시 어머니대상 질문지에서 제외하였음.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A. 지난 30일 동안 귀하께서 느끼신 위의 느낌들은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 ① 평소보다 더 느꼈음. ⇨ A-1번으로
 - ② 평소보다 덜 느꼈음. ⇨ A-1번으로
 - ③ 평소와 비슷하였음. ⇨ B번으로
- A-1.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슷하였습니까?
- ① 평소보다 아주 많이 (더 또는 덜) 느꼈음.
 - ② 평소보다 꽤 (더 또는 덜) 느꼈음.
 - ③ 평소보다 약간 (더 또는 덜) 느꼈음.
- B. 위와 같은 느낌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① 많이 지장 받음.
 - ② 어느 정도 지장 받음.
 - ③ 거의 지장 받지 않음.
 - ④ 전혀 지장 받지 않음.

8. 참고문헌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이정균. (1990).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Cramer, B. (1993). Are postpartum depressions a mother-infant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 283-297.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s,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Fendrich, N., Wamer, B.,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Hammen, C. L.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model of

-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essler, R. C., Galea, S., Jones, R. T., & Parkerd, H. A. (2006).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2), 930-939.
 - Kessler, R. C., Barker, P. R., Colpe, L. J., Epstein, J. F., Gfroerer, J. C., Hiripi, E., Howes, M. J., Normand, S.-L. T., Manderscheid, R. W.,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7). Screening for serious mental illness in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184-189.

1. 도구명: 어머니의 취업/학업 특성

2. 해당 변인

- 공통: 취업/학업 상태, 취업/학업 계획
- 취업모: 근로복귀시기, 직업/직무만족도,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 학업모: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 학업시간, 등하교시간
- 미취업/미취업모: 취업/학업 경험여부, 휴직/휴학시기, 근로/학업중단이유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일반적인 시기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기와 육아기로서(김영옥, 최숙희, 전기택, 이선행, 2007), 어머니의 직업계획을 출산 전과 후, 그리고 육아기에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위축되거나 회복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 어머니의 직업계획은 출산 및 육아가 경제활동 자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취업 또는 학업으로 인해 대리양육이용과 직결되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 여부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가 요구됨.
- 자녀 출산은 취업 및 학업과 같은 기혼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주된 원인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는 대상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여부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은 전반적인 가구 소득 등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대상 아동을 위한 대리양육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과 가족의 양육 특성 전반에 중요한 변인이 됨. 이에 취업 및 학업의 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됨.

4. 도구 출처

- 취업/학업 상태, 취업/학업 계획(병원용 질문지):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HD). (1999). *NICH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Manuals*. <http://secc.rti.org/manuals.cfm>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 휴직/휴학시기, 근로/학업복귀시기, 취업/학업 경험여부, 취업/학업 계획(면접조사용 질문지), 재택시간: 자체 제작
- 근로/학업중단이유: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

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직업/직무만족도: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7). **한국노동패널(KLI) 9차년도 설문지-개인공통(취업)**. <http://www.kli.re.kr/>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5. 도구 특성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1, 4, 1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취업/학업 계획: 면접조사용 질문지 5, 7, 8, 14, 15, 2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취업/학업 경험여부: 면접조사용 질문지 1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 복귀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6, 1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휴직/휴학 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13, 1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 중단이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17, 19, 2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시간: 어머니대상 질문지 41-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직업/직무 만족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2, 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2, 3, 15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취업/학업 계획: 면접조사용 질문지 4, 8, 9, 20, 21, 2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취업/학업 경험여부: 면접조사용 질문지 22, 2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 복귀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5, 1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휴직/휴학 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19, 2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 중단이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25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시간: 면접조사용 질문지 6, 17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출퇴근/등하교시간: 면접조사용 질문지 7, 1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직업/직무 만족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12, 1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6. 비고

-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 상태는 취업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음. 먼저, 면접조사용 질문지 및 거부가구대상 질문지의 취업 또는 학업상태의 주양육자가 어머니로부터 대리양육자로 바뀌는 조건인 '근무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또는 무급 가족업 종사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취업 상태로 보았음. 이는 어머니의 육아가능 시간과 이에 따른 대리양육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어머니 취업을 NICHD의 SECCYD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동일하게 하여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
 - 반면 어머니대상 질문지에서의 취업/학업 상태는 '수입'을 기준으로 각 가족구성원의 취업 유무를 조사한 가구원대상 질문지와 동일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시간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무급으로 가족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다 낮은 기준인 주당 '18시간'을 기준으로 소득활동 여부를 판단하였음. 이러한 기준은 한국노동패널을 포함한 국내 주요 패널들과 동일한 것임.
 -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에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또는 학업 상태는 주당 '18시간'을 기준으로 한 자료만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음. 상근직 근로자 이외에 프리랜서, 무급 가족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취업 중으로 간주하였음.
 - 휴직과 휴학은 모두 취업과 학업 중인 상태에 포함되어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음.
 - 1차년도의 어머니대상 질문지 및 2차년도의 면접용 질문지를 통한 취업/학업 상태 자료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의 직업 문항에도 해당됨(도구 프로파일 26번 참조 요망).
- 취업/학업 경험여부
 - 조사 당시 취업 또는 학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결혼 후 취업 또는 학업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함.
 - 2차년도 부터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취업 또는 학업 중이었다가 이를 중단한 어머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 또

- 는 학업을 중단할 당시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함.
- 근로/학업 복귀시기
 - 조사 당시 취업 또는 학업 상태를 대상 아동의 출산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유지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것임.
 - 1차년도는 출산 직후이므로 언제 취업 또는 학업에 복귀하였는지를 질문하였으며, 2차년도는 기존 직장 또는 학업에의 복귀에 신규 취업 또는 입학에 추가하여 조사함.
 - 휴직/휴학 시기
 - 취업모의 경우는 출산과 더불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학업모의 경우는 방학이 포함되지 않는 한 휴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업모만을 대상으로 휴학시기를 조사함.
 - 조사 당시 미취업/미학업 상태이나, 결혼 후 취업 또는 학업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근로와 학업을 중단한 시기를 조사함.
 - 근로/학업 중단이유
 - 조사 당시 미취업/미학업 상태이나, 결혼 후 취업 또는 학업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중단이유를 조사함.
 - 1차년도에는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별로 중단이유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중단한 시기에 따라 각각 중단이유를 조사함. 반면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3개 문항을 한 문항으로 통합하고, 1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특성을 보기에 추가하여 조사함. 이에 2차년도 문항의 보기는 총 11개임.
 - 취업/학업 계획
 - 현재 상태에서의 향후 취업 또는 학업에 대한 계획으로서, 1차년도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계획은 병원조사와 면접조사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음.
 - 1차년도 병원 조사는 실제 출산 이후 출산 전 계획하였던 어머니의 취업/학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한국아동패널 구축 당시 취업모 가구의 과표집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해당함. 취업 및 학업 기준은 NICHD의 SECCYD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동일하게 문항을 진술하였으며, 1차년도에만 향후 1년 이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음.
 - 1차년도 면접조사는 면접 당시의 취업 또는 학업에 대한 계획으로, 취업 또는 학업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입 또는 시간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현재 취업 또는 학업 상태에 변동을 계획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변동 이유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으며, 2차년도에도 동일한 질문이 조사에 포함되었음. 단, 2차년도의 취업 또는 학업 상태의 변동 이유에 대한 추가 질문의 경우 이유에 해당하는 보기 문항이 일부 추가되었음.
 - 1차년도 면접조사는 휴직 또는 휴학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근로

또는 학업 계획에 해당하는 복귀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월 수를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2차년도의 경우는 복귀 시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잘 모르겠음'을 보기에 포함하였음. 또한 미취업/미학업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2차년도부터 향후 계획에 '6개월 이내/6개월~1년 이내/1년~2년 이내/2년~3년 이내/3년~5년 이내/5년 이후/동생 출산 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근로/학업시간, 출퇴근/등하교시간
 - 1차년도의 경우 근로 또는 학업에만 순수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음. 2차년도에는 근로시간 이외에 가정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을 알기 위하여 취업모와 학업모 모두를 대상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을 추가하여 별도로 조사하였음.
 - 1차년도의 어머니대상 질문지 및 2차년도의 면접용 질문지를 통한 근로/학업시간 자료는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의 직업 문항에도 해당됨(도구 프로파일 26번 참조 요망).
- 직업/직무 만족도
 -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본 도구는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와 전반적 직무만족도(global measure)로 이루어져 있음.
 -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대학교 직업심리연구소의 미네소타 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과 Hulin(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으로 작성한 것임. 문항 2-1번부터 2-7번의 7문항은 임금·비임금 근로자 모두에게 응답하도록 하였고, 2-8번과 2-9번의 2문항은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도록 하였음.
 -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기존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과정에서 설문 문항이 '일', '직장', '업무', '직무', '일자리'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정확한 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이에 9차년도 조사에서는 직무만족에 대한 전체적인 어휘를 '일(직무)'로 통일하고,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한하여 응답자가 '일자리'와 '일'을 이질적인 측정도구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자리'와 '일'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본 연구 또한 질문의 목적이 직무만족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7. 참고문헌

- 김영옥, 최숙희, 전기택, 이선행. (2007).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

- 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7). 한국노동패널(KLI) 9차년도 설문지-개인공통(취업). <http://www.kli.re.kr/>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면. (2006). 노동패널의 직무만족의 측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http://www.kli.re.kr/_FILE/TECHPANELBOARD/ab288bdee6db5ffe50a68b31a20dc677.pdf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 Smith, P. C., Kendall, L. M., & Hulin, C. L. (1969).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Rand McNally.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Manuals. <http://secc.rti.org/manuals.cfm>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1. 도구명: 결혼만족도(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
2. 해당 변인: 결혼만족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로서, 부모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성장·발달과 성격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 중 문항 수가 적어 비교적 실시하기가 용이하며, 단일차원의 척도로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된 바 있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Chung(2004)이 KMSS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이용하였음.
4. 도구 출처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5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6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정현숙(1997)의 연구에서 4~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235쌍을 대상

으로 RKMSS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아내가 Cronbach $\alpha = .91$, 남편이 Cronbach $\alpha = .90$ 이었음.

- 정현숙(2001)의 연구에서 28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RKMSS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94$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93$ 이었음.

7. 비교

- RKMSS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에서 평정하는 7점 척도였으나,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였음.
- 2차년도부터는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이혼, 별거 등에 해당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기에 '해당 없음'이 추가됨.

8. 참고문헌

- 정현숙. (1997).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 (12), 205-224.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1. 도구명: 부부갈등 척도

2. 해당 변인: 부부갈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부부갈등은 결혼관계의 고유한 부분으로 갈등을 잘 다루면 의사소통과 화해를 통해 결혼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에게 대인 간 갈등 대처를 학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갈등이 잘 다루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부부갈등은 부부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자녀의 행동문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Kitzmann,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가 밝혀져 있음. 하나는 아동이 부부갈등에 노출되기만 해도 유해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부갈등의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가 부부갈등으로 발생한 부부간의 분노를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함으로써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임(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Kitzmann, 2000). 특히 여러 부부갈등 척도 중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척도는 문항 수가 적어 비교적 실시하기가 용이하며, 이혼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된 바 있음(Bradbury, Fincham, & Beach, 2000).

4. 도구 출처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6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

상 질문지 7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6. 문항 양호도

- 정현숙(2004)의 연구에서 이성 파트너가 있는 미혼남녀 163명,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142명, 결혼 20년 이상 부부 79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 .96$ 이었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음.

7. 비교

- Markman 등의 부부갈등척도는 부부가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기술을 증진시켜 부부간의 관계악화, 갈등 및 이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전에 관계 개선을 돕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인 '결혼문제예방 및 결혼생활향상 프로그램(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이하 PREP)'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임(Markman et al., 2001). 원 Markman 등의 부부갈등척도는 프로그램 참여 부부의 디스트레스와 이혼의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8개의 문장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도록 문항이 제작되었음.
- 정현숙(2004)은 Markman et al.(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6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수정·번안하였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정현숙의 연구에서 수정·번안된 부부갈등척도를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였음.
- 2차년도부터는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이혼, 별거 등에 해당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기에 '해당 없음'이 추가됨.

8. 참고문헌

- 정현숙. (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Bradbury, T., Fincham, F., & Beach, S.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64-980.
- Cummings,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도구 프로파일 25

1. 도구명: 사회적 지원

2. 해당 변인: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을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음.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지원이었음(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사회적 지원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으로(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도구적 욕구 충족에 도움을 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매우 의미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권소영, 강유진, 옥선화, 최새은, 2004; 이재림, 옥선화, 2001).

4. 도구 출처

-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1차년도: CAPI & PAPI
 - 2차년도: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29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28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2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6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6. 문항양호도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 = .89$ 였음.
- 개념적으로는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이재림, 옥선화, 2001).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주축요인추출을 실시한 결과 도구적,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주로 하나의 요인으로, 사교적, 정보적 지원이 주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총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4.65, 요인 2는 3.92였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3.48%, 7.65%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51.1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단, 사교적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 3과 11은 도구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묶였음.

문항	해당 변인명	요인1	요인 2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정서적	.55	.07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69	.28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사교적	.71	.35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정서적	.84	.20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56	.35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도구적	.50	.49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정보적	.40	.45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정보적	.28	.64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22	.64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사교적	.27	.78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사교적	.62	.25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사교적	.08	.57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는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였음.

7. 비교

-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는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망의 구성원을 친척, 친구, 이웃으로 구분하여, 각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 중 가장 친밀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을 한 명씩 기입한 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함. 그러나 본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사회관계망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요소로부터 받은 도움의 합으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방식과 같이 가족 외 모든 사람과 단체(예: 교회, 복지관 등) 등을 포괄하였음. 즉, 구성원의 유형이나 지원체계에 상관없이,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음. 이에 친인척 중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원 제공자로 포함하지 않았음.

-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는 정서적 지원 2개와 사교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각각 4개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정서적 지원 문항의 경우, 위 논문에서도 원래 4개로 구성되었으나, 문항 간 상관성이 높지 않은 문항 2개가 이미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2개 문항 또한 실제 지원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 제작한 문항으로 대체되었음. 또한 사교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문항들 중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경조사가 많고, 모임 및 여행 등이 어려운 신생아 가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은 문항이 제외되거나 통합·수정되었음. 수정,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음.

원 문항	해당 변인명	비고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준다.	정서적	1)번 문항으로 대체
내가 상심에 빠졌을 때 위로해준다.	정서적	4)번 문항 대체
우리 집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준다	도구적	문항 제외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9)번 문항으로 통합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정보적	8)번 문항으로 수정
휴가나 여가 때 같이 놀러간다.	사교적	12)번 문항으로 수정

-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는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하였음.

8. 참고문헌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권소영, 강유진, 옥선화, 최새은.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이재립,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Norbeck, J. S., Lindsey, A. M., & Carrieri,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도구 프로파일 26

1. 도구명: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2. 해당 변인: 가구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학력, 종교, 건강특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일반적으로 일차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 이외의 가구원은 아동을 돌보는 인력이 되거나 또는 부모의 돌봄을 받는 이가 되어 부모의 양육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조용학, 2000). 즉,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한 가구원은 아동을 돌보는 추가 인력으로 기능하여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되며, 반대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은 가구원은 오히려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추가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가구원이 중증 장애인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족들은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김금순, 최희정, 서문자, 김인자, 조남옥, 2000; 이익섭, 정소연, 1997). 따라서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 건강특성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가구원의 직업 유무와 직업의 종류 등 직업과 관련된 변인은 이들의 가용 시간, 즉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변인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가구원은 부모에게 육체적 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력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학력은 가구원의 지적 특성으로서 부모에게 아동 양육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추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어 변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국적 및 귀화여부는 각 가정에 속한 아동의 언어적 발달 및 문화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정은희, 2004).
 - 종교는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 등 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원이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 또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가구원의 종교 유무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4. 도구 출처

- 직업/종사상 지위
 - 이경상, 김기현, 조주연, 김현희, 박영실. (2006). **한국 청소년패널 조사(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외. (2005). **한국교육 종단연구 2005(I)-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종학력
 - 유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외. (2005). **한국교육 종단연구 2005(I)-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결혼상태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거여부
 - 통계청. (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 대전: 저자.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외. (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종교
 -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meta.nso.go.kr/img/metafile/josa/주택총조사/주택총조사200501Y/2005%20인구주택총조사%20표본조사표.pdf>에서 2006년 5월 14일에 인출.²⁶⁾
- 건강특성
 - 김미곤, 여유진, 이봉주, 손창균, 김계연, 김문길 외. (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Site 변경. <http://kosis.kr> 2010년 6월 21일.

5. 도구 특성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가구구성원, 연령,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수입활동여부, 결혼상태, 동거여부, 직업/종사상 지위, 국적/귀화여부, 종교: PAPI
 - 취업/학업 상태: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가구구성원: 가구원대상 질문지 표지, 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8~69, 7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표지, 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연령: 가구원대상 질문지 3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6, 62, 69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7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37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3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성별: 가구원대상 질문지 2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2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최종학력: 가구원대상 질문지 8~10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60~61, 66~67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2~23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42~43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8~10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건강상태: 가구원대상 질문지 12~1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5~26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44~45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2~13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수입활동여부: 가구원대상 질문지 6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8, 64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0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40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6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결혼상태: 가구원대상 질문지 11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2~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4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6~7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1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동거여부: 가구원대상 질문지 5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7, 63, 70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9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39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5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직업/종사상 지위: 가구원대상 질문지 7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9, 65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1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41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7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1번, 4~8번(취업모), 10~15번(학업모), 16~21번(미취업/학업모), (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국적/귀화여부: 가구원대상 질문지 4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8번, 어머니대상 질문지 38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4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종교: 가구원대상 질문지 14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7번, 어머니대

상 질문지 46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4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가구구성원, 연령,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수입활동여부, 결혼상태, 취업/학업 상태, 아버지 근로/학업시간, 재택시간, 출퇴근/등하교시간: CAPI
 - 부모 동거여부, 국적/귀화여부, 종교: PAPI
 - 직업/종사상 지위: CAPI &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가구구성원: 면접조사용 질문지 76, 77, 78, 79-1, 79-2, 79-3, 80-1, 80-2, 80-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연령: 면접조사용 질문지 79-4, 79-5, 80-4, 80-5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성별: 면접조사용 질문지 79-6, 80-6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최종학력: 면접조사용 질문지 79-7, 79-11, 80-7, 80-1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건강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79-8, 79-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수입활동여부: 면접조사용 질문지 79-1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결혼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1~1-1번, 3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동거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57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9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직업/종사상 지위: 면접조사용 질문지 10~11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1~22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2번, 3~9번(취업모), 15~21번(학업모), 22~26번(미취업/학업모), 31번(배우자), (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국적/귀화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56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8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종교: 어머니대상 질문지 58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0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아버지 근로/학업시간, 재택시간, 출퇴근/등하교시간: 면접용 질문지 32~3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가구구성원의 정의 및 범위
 -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으로 정의되었음. 즉, 대상 아동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부 등)을 가구원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까지 포함되었음. 또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목적에 따라 가구원이 아닌 따로 사는 아기의 생부 또는 생모 또한 가구원 조사에 포함되었음. 이에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과 하숙생 등 비혈연 동거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었으며,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또한 가구원에서 제외되었음.

- 원활한 면접 조사를 위해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가구원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유를 추가로 조사함.
- 가구원의 동거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하였음. 단, 대상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음.
- 1차년도의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한 인구학적인 정보를 가구원조사와 동일한 양식으로 함께 조사하였으나, 정보 제공에 대한 저항이 크므로 2차년도부터 제외되었음.
- 대상 아동과의 관계 관련한 문항은 2차년도에 보기가 일부 수정되었으며, 가구원의 수 및 가구원 변동 사유는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임.
- 대상 아동이 타 가구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위탁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가구원 조사가 동일하게 수행되었음.
- 1차년도의 대상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구원에 해당하지만, 조사 수합의 편의성을 위하여 가구원대상 질문지 및 위탁가구대상 질문지를 통해 수합하는 대신, 어머니대상 질문지와 아버지대상 질문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합하였음. 그러나 2차년도 자료수집 결과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인 정보는 면접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음. 이에 일반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정보 외의 문항은 어머니대상 및 아버지대상 질문지에 포함되었음. 일반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정보 외에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수집한 인구학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결혼상태: 1차년도에는 모든 가구원과 위탁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 부터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는 대상 아동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를 어머니의 기준으로 하였음. 특히 2차년도 부터는 현재 결혼상태의 기준 시점을 진술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결혼상태 변동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특히 2차년도 부터는 현재 남편이 1차년도 조사 시의 남편/동거자와 동일 인물인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함으로써, 결혼상태가 동일하

다고 하더라도 남편/동거자가 변화하였을 경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거여부: 대상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동거 여부를 각각 조사하였음. 특히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음.
- 직업/종사상 지위: 가구원의 직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업의 종류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사후 코딩하였음. 직업에 대한 설문작성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5)의 진술방식을 따르고, 직업의 유형분류는 통계청의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분류하여 코딩하였음. 이 때 직업 코딩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하는 일, 사업체 내에서의 직위를 개방형문항으로 조사하였음. 1차년도에의 경우 가구원 및 위탁가구원의 직업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코딩의 어려움으로, 2차년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질문 문항을 보강하여 실시하였음.
- 취업/학업 상태: 어머니 취업/학업 상태에 해당하는 질문임(도구 프로파일 22번 참조 요망). 가구원 중 아버지에게만 이 문항이 질문되었으나, 이는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활동여부 변인과 동일한 문항으로, 아버지의 근로/학업시간 및 출퇴근/등학교시간 질문을 위한 유도문항으로 2차년도에 신규로 추가됨.
- 아버지 근로/학업시간, 재택시간, 출퇴근/등학교시간: 어머니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질문으로(도구 프로파일 22번 참조 요망), 가구원 중 아버지에게만 동일 문항이 조사되었음.
- 국적/귀화여부, 종교: 2차년도 부터 대상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만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
 - 1차년도의 경우 최종학력을 별도로 조사하고, 가구원 중 학생인 경우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과 학년을, 미취학 가구원은 이용 중인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학원 등)을 조사하였음.
 - 2차년도의 경우 최종학력 문항에 미취학 가구원의 이용 중인 기관을 보기로 포함하여 문항을 통합하였으며, 학생인 경우에 한해서 학년을 추가 조사함.
 - 미취학 가구원의 경우는 현재 기관/시설 이용 여부에 있어서 정규 기관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외의 유사육아지원기관(영어 및 각종 학원 등)도 기관/시설 이용자로 분류하였음.
- 건강특성
 - 장애여부/급수 및 희귀난치성 질병 여부를 조사하였음.
- 소득활동

- 가구원의 소득활동 분류에 있어서 평소 소득 활동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취업 및 실업의 기준은 주당 18시간으로 하였음. 가구원의 소득활동 분류에 있어서 입시 및 취업학원생은 학생이 아닌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주부이면서 정규학교(초중고대 및 대학원)를 다니는 경우는 학생에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7. 참고문헌

- 김금순, 최희정, 서문자, 김인자, 조남옥. (2000). 뇌졸중 환자 가족 간 호자의 우울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6), 1531-1542.
- 김미곤, 여유진, 이봉주, 손창균, 김계연, 김문길 외. (2006). **2006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외. (2005).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외. (2006). **한국 교육 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상, 김기현, 조주연, 김현희, 박영실. (2006).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익섭, 정소연. (1997). 소득보장정책의 근거를 위한 장애아동가정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1), 112-142.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용학. (2000). 정신지체아 가족의 양육부담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산정논총**, 1, 277-297.
-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meta.nso.go.kr/img/metafile/josa/주택총조사/주택총조사200501Y/2005%20인구주택총조사%20표본조사표.pdf> 에서 2006년 5월 14일에 인출.
- 통계청. (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 대전: 저자.

1. 도구명: 가계경제요소

2. 해당 변인: 소득, 소비, 자산, 부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지표로써, 소득 수준을 통해 물질적 가용 자원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소득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 및 형태가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가구 경제 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됨. 특히 다양한 가구 유형 및 자녀 유무에 따라서 소비성향 및 지출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여운경, 양세정, 1999).
- 소득 및 소비지출뿐 아니라 가구 소득 대비 저축,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통해 가정 경제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경영되고 있는지와 가구의 미래 경제적 지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양세정, 1997), 아동이 속한 경제 환경의 안정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변인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4. 도구 출처

- 소득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최기산. (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비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전: 저자.
- 자산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대전: 저자.
- 부채: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71~78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51~55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62~6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2007년 예비조사에서 소득관련 문항은 소득의 5개 유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별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제작되었음.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득 관련 응답에 대한 저항이 심하였으므로, 2008년 본조사 질문지에는 '한국 교육고용패널(2006)'의 가구설문지 소득 문항에 기초하여 평균 소득을 응답하도록 문항을 수정함.
- 소득 및 자산의 경우 응답에 대한 저항이 심할 수 있으므로, 관련 3개 문항에 무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식 첨부 문항을 추가하였음.
- 1차년도 조사에서는 지출관련 문항에 '아기'만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작성하도록 하여, 가구의 지출내역 중 조사 대상이 되는 신생아만을 위한 실제 비용을 산출하도록 함. 특히 대상 아동에 대한 지출에 대한 월평균 금액을 1차년도에는 출산 후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지출액으로 응답한 반면, 2차년도 부터는 다른 지출 산정 기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지출액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통계청(2000)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포함시켜 분석한 바 있음.

7. 참고문헌

- 양세정. (1997). 가계저축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 **가정문화연구**, 11, 3-15.
- 여운경, 양세정. (1999). 가구유형과 가계소비지출구조. 한국소비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사이버마케팅시대의 소비문화**, 81-98. 5월 22일, 부산: 경성대학교.
- 유한구, 김안국, 민주홍, 류지영, 신동준, 손희전, 최기산. (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전: 저자.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대전: 저자.

1. 도구명: 가족생활사건(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2. 해당 변인: 가족생활사건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일반적으로 생활사건의 불예측성의 정도 및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통제가능 정도,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생활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남(강혜원, 한경혜, 2005). 가족생활사건은 가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적으며, 유발되는 상황이나 정서가 부정적임. 따라서 가족생활사건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활사건의 경험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우울로 연결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예측변수임(Ensel & Lin, 1991).
 - 가족생활사건 중 규범적 사건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사건을 뜻하며, 비규범적 사건은 규범적으로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는 비규범적 사건이 규범적 사건에 비해서 더 높음.
4. 도구 출처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35~36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28~2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지난 1년간' 대상 가족이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별로 '경험함'에 응답하였을 경우 1점으로 하여 채점함.
-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을 구분하여 조사함. 규범적 사건 16문항, 비규범적 사건 11문항, 총 27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규범적 사건 0~16점, 비규범적 사건 0~11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해 동안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의미함.

6. 비교

- 규범적 사건의 원칙도는 총 17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대상과 맞지 않는 1개 문항(예: '자녀가 고3이나 재수생이 되었다')을 제외하여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또한 원칙도의 문항내용 중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라는 문구내용은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로 수정하고, '부인'으로 되어 있던 내용은 '나 또는 배우자'로 일부 수정하여 질문하였음.
- 비규범적 사건의 원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신생아 가구와 맞지 않는 1개 문항(예: '식구 중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을 제외한 총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 2007년 예비조사에서는 면접조사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가구조사 시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자의 응답 시 저항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아동패널 본조사에서는 어머니대상 질문지에 포함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확정함.
-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아니오'가 아닌 '경험함'에 응답하도록 하여 경험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였음.

7. 참고문헌

- 강혜원, 한경혜. (2005).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배우자 지지와 정신건강. *대한가정학회지*, 43(8), 55-68.
- 최연실. (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Ensel, W., & Lin, N. (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21-341.
- McCubbin, H., Patterson, J., & Wilson, L.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9).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 도구명: 주거 환경 특성

2. 해당 변인: 주택 소유형태, 주택 유형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생존권은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인 생활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보건복지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괄함(김광혁, 2010; 박향아, 2002; 이용교, 천정웅, 안경순, 2006;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5)
- 특히 아동의 생존권 중 주거환경은 아동의 생존 및 일상생활, 그리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아동은 주거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게 됨. 따라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이봉주, 임세희, 2008)
- 주택 소유형태: 아동이 속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 혹은 임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거주 공간의 안정성과 아동에게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의 감소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특히 주택 소유를 위해 부채가 발생되었을 때의 경제적 압박은 가구의 다른 소비 지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주택 유형뿐 아니라 소유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택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놀이 공간, 안전성, 소음도 등 물리적 환경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유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특성일 뿐 아니라 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취향 등의 가구의 특성을 드러내는 변인으로 볼 수 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주택 소유형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33~3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주택 유형: 면접조사용 질문지 35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주택 소유형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73~7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주택 유형: 면접조사용 질문지 75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주택 유형 및 주택 소유형태는 대리양육을 위해 다른 가구에 위탁된 경우에도 원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7. 참고문헌

- 김광혁. (2010). 한국 아동의 생존권: 빈곤 및 가족, 주거 환경, 안전, 건강 및 의료의 실태 및 변화 추이. **아동과 권리**, 14(1), 1-39.
- 박향아. (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12(2), 103-120.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봉주, 임세희. (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보건복지포럼**, 11, 43-50.
- 이용교, 천정웅, 안경순. (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5).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London: SCF.

1. 도구명: 기초생활수급 여부

2. 해당 변인: 사회보장지원 수혜 여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아동이 속한 가구가 빈곤 가구인지의 여부는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정 내 자원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가족 관계상의 문제, 부모의 실직이나 유병, 문화적 경험의 결핍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음. 이에 가구의 빈곤여부는 아동의 성장·발달, 학업 성취, 비행 행동의 예측 등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정익중, 2002).
-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가구의 빈곤 여부를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선정되므로,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를 선별해낼 수 있는 변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여부를 선정함.

4. 도구 출처: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1차년도: CAPI & PAPI
 - 2차년도: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30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2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7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 (2002). Developmental predictors of divergent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and non-poor children. *사회복지연구*, 19, 173-199.

도구 프로파일 31

1. 도구명: 육아지원 정책 수혜

2. 해당 변인: 재정지원 수혜, 서비스지원 수혜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임. 대표적인 재정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을 장려하고 가정 내 가용 경제적 자원의 사회적 활용을 증대시키는 연쇄적이고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의 간접적인 지원 외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서비스 등의 또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임.
- 육아와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 이외에 중앙정부에서 육아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됨. 이에 한국 아동패널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육아지원과 일-가정양립 정책 등의 제도적인 보안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구별 특성자료를 조사하기로 하였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재정지원 수혜: 면접조사용 질문지 31번, 68~6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서비스 지원 수혜: 면접조사용 질문지 9, 9-1~9-10번, 32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재정지원 수혜: 면접조사용 질문지 58~58-1, 7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서비스 지원 수혜: 면접조사용 질문지 14, 14-1~14-10번, 72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재정지원 수혜
 -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 까지는 해당 연령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 서비스는 어린이집만이 해당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살펴봄.
 - 농어민 가정 육아비는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농어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서비스이므로, 보육료와 상응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수혜여부를 조사함.
 - 보육료 지원금과 농어민 가정 육아비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나, 예비조사 시 일부 응답자가 중복수혜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이 경우 실제 중복수혜 중인지 혹은 잘못 응답된 것인지를 추가 조사하는 것이 요구되나, 한국아동패널 본조사 시 패널 탈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행하지 않기로 함. 이에 농어민 가정 육아비와 보육료 지원금 자료 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 보육료 지원금의 경우 2차년도부터는 직장에서 보조 받는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항에 명시하고, 하위응답별로 구체적으로 보조 가능한 보육비 금액을 명시하여, 정부로 받은 지원금만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서비스지원 정책
 - 서비스지원 정책의 경우 일가정 양립정책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수행됨.
 - 일가정 양립정책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정책별로 소속 직장에서의 시행여부,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용여부,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이에 해당하는 정책 중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어머니가 이용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시행여부만을 조사하였음.
 - 일가정 양립정책에 포함된 보육비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비가 아닌 개별 사업장에서 지원되는 보육비 지원에 해당함.
 - 아이돌보미는 이용 가구별로 이용 금액이 다르므로, 이용 여부만을 조사함.
 - 아이돌보미의 경우, 1차년도에는 산모도우미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나누어 질문하였으나, 2차년도에서는 아이돌보미에만 제한하여 질문함으로써, 후속 자녀 출산 등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를 배제하였음.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도구명: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2. 해당 변인: 주양육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미이용 이유, 최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계획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영아기 자녀를 부모 자신이 직접 양육하지 않고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음으로써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간의 차이를 조사해볼 수 있음.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와 시설보육이 아닌 개인 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서로 다른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해 볼 수 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1차년도: CAPI & PAPI
 - 2차년도: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50~51-3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31~32-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34~38-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육아지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이므로 본 변인의 조사에서는 대리양육이란 용어를 이용하였음. 대리양육자는 부모보다 아동을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정의하였으며, 조부모,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 어린이집의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하였음.
 - 대리양육자 유형은 조부모, 친척,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 어린이집 및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어린이집), 그리고 개인 대리양육자

와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하는 유형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음.

-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는 대상 아동이 만 4개월의 시점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조사 당시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에 한하여 최초대리양육을 시작한 시기와 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양육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2차년도부터는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월별로 이용한 서비스를 응답하도록 하였음.
-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함. 첫째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 주요한 이유이며, 둘째는 대리양육자 유형(개인 대리양육자 이용, 어린이집 이용, 두 가지 함께 이용)에 따른 이용 이유를 각각 조사함. 특히 이용 이유의 경우 대상 아동의 연령 증가와 1차년도 기타 응답을 기초로 일부 보기가 2차년도에 추가되었음.
- 2차년도 부터는 대리양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또한 미이용 이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음. 특히 미이용 가구의 경우 육아를 위하여 친인척 등으로부터 간헐적인 무상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실태를 추가하였음.
- 2차년도 부터는 조사시점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계획을 추가로 질문하였음. 이 때 육아지원 서비스는 개인 대리양육이 아닌 기관 형태로 제한하였으며, 공식 육아지원 서비스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외에도 각종 학원 및 선교원을 포함하였음.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도구명: 개인 대리양육자 및 서비스 특성
2. 해당 변인: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및 알게 된 경로,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 대리양육 이용만족도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알게 된 경로: 대리양육의 특성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대리양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구대회, 1998; 정문숙, 1996). 따라서 대리양육을 담당하는 양육자의 인구학적인 특성, 혈연여부 등 아동과의 관계, 혈연이 아닌 경우 알게 된 경로 등 대리양육자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및 동거여부: 영유아기의 대리양육에 있어 서 대리양육 서비스를 하루 중 이용하는 시간, 이용해온 기간, 대리양육자의 동거여부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애착 형성, 정서적 교류, 부모-자녀간의 서로에 대한 인지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이용비용에 따라 대리양육 서비스 이용의 다른 특성, 즉 이용시간이나 동거여부, 이용해온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용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대리양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용만족도: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 취업의 지, 업무에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또한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이후의 대리양육자 교체 여부 등 주양육자의 안정성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1차년도: CAPI & PAPI

- 2차년도: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52~59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33~4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39~47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본 도구에서 개인 대리양육과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대상 아동과 개인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친인척은 혈연 및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함.
- 개인 대리양육 이용시간의 경우, 신생아의 밤중수유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상 아동이 밤중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경우는 이용시간에 포함시킴. 1차년도 조사 결과 전적으로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4시간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2차년도 부터는 수면시간을 제외한다는 설명을 문항에 추가함.
- 개인 대리양육과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본 도구 응답자에 포함됨.
- 1차년도의 경우 개인 대리양육자가 2인 이상인 경우(예: 조부모가 함께 대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복수의 개인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1인에 한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음.
- 2차년도부터 개인 대리양육자에 대한 비용 관련 문항이 2개 추가되었음. 비용 관련 문항은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로 구성되었음.

7. 참고문헌

- 구대회. (1998). 유아기 정서·행동 및 애착기능 발달의 유해환경 요인 분석. **정서·학습장애 연구**, 14(2), 157-174.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아동양육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22, 201-227.
- 정문숙. (1996). 취업모의 자녀양육 실태, 대리양육자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경험정도. **경북의대지**, 37(4), 517-533.

1. 도구명: 어린이집 및 서비스 특성
2. 해당 변인: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입지조건, 어린이집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평가인증 통과 여부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별로 인적, 물리적 보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유희정, 1998; 원영미, 2000), 이러한 설립 유형별 차이는 이용 어린이집 선택 시 부모의 선호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최지현, 박혜원, 2000).
 -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접근성: 육아지원기관의 입지조건 및 집에서 이동 거리는 부모가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아동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Taylor, 2001). 특히 육아지원기관의 입지조건과 접근성은 이용 대상인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됨. 영아를 가진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접근성의 문제가 어린이집 대신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보고되고 있음(서문희, 최혜선, 2007).
 - 어린이집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기간, 어린이집 이용 전의 다른 대리양육 형태 이용 여부, 이용 정도(하루 이용시간 등), 비용은 아동의 성장·발달뿐 아니라 부모의 만족도, 이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부모의 연령, 취업여부, 보육상황 등 여러 가지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현은강, 최혜란, 1996),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과 직장에서의 업무 집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4. 도구 출처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1차년도: CAPI & PAPI
 - 2차년도: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60~67번, 70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41~47번, 5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48~57-1번, 5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본 도구에서 개인 대리양육과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 및 서비스 대상 유형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가 어린이집의 유형을 알기 어려우므로 실제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를 응답하도록 한 후 추후 코딩되어 변수가 생성되었음.
- 질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코딩하였음. 단, 코딩은 1차년도의 경우 2009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2차년도의 경우 2010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한 것임. 이에 한국아동패널의 응답자가 응답 당시의 실제 평가인증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차년도 부터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의 내역을 문항에 추가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정확한 비용을 조사하고자 하였음. 또한 지불하는 비용 금액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음.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최혜선.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유희정. (1998).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3, 287-314
- 원영미. (2000). 보육시설 유형별 인적, 물리적 보육환경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1, 307-334.
- 이수연, 이정원, 김영미. (2003). 아동양육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국민기초생

- 활보장제도 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22**, 201-227.
- 최지현, 박혜원. (2000). 보육환경이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문집*, **2**(1), 73-87.
 - 현온강, 최혜란. (1996). 유아기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부모의 보육 인지도와 보육만족도. *한국영유아보육학*, **8**, 145-172.
 - Tayler, B. J. (2001). *Early childhood program management: people and procedures* (4th ed.). Columbus, OH: Merrill/Prentice Hall.

도구 프로파일 35

1. 도구명: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및 특성
2. 해당 변인: 육아지원기관 외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교과목으로 분리되어 구조화된 경험보다는 통합된 생활주제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영유아기의 활동 경험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통합된 놀이 경험은 발달 특성상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이영, 김온기, 2000;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옥, 2001).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특정 도구 또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 또한 유아에서 영아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임(이미화, 김은영, 2007).
 - 현재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각종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은 기존 육아지원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체하거나 육아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유형별 차이 및 효과 범주에 포함되어 조사될 필요가 있음.
4. 도구 출처: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4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2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6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고
 - 공식적인 육아지원기관 이외의 프로그램 이용을 '주기적으로 다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으로 정의하였음. 여기에는 가정방문, 성인의 동반 참여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하였음.
 - 1차년도의 경우, 프로그램명, 월별참여횟수, 회별 참여시간, 월별비용만 응답한 후 프로그램 내용은 사후 코딩하였음. 그러나 1차년도 조

사 결과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명만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후 코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2차년도 부터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여부, 월별 참여횟수, 회별 참여시간, 월별 비용, 참여기간을 질문으로 포함하였음.

7. 참고문헌

- 이미화, 김은영. (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영, 김은기. (2000).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3), 67-84.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옥. (2001). 탐색 및 놀이 활동 중심의 1,2세 영아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2), 133-154.

도구 프로파일 37

1. 도구명: 지역사회특성(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 육아관련 특성)
2. 해당 변인: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현 거주지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하는지는 향후 이사 여부 등 자녀 양육의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부모가 평가하는 현 거주지의 특성이 실제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변인으로 선정함.
 -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 시행,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법제화 하였음. 특히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과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 조성을 구축하고자 함(법제처, 2007).²⁷⁾
4. 도구 출처
 - 가구 소재지,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27) 박성신, 이원아, 김혜란, 류전희(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환경에 대한 이해를 인문사회적 환경과 건축도시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음. 인문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는 가족친화문화,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사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물리적 공간을 다루는 건축도시적 측면에서는 가족친화시설, 가족친화적 공간, 가족친화마을환경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삶의 질과 함께 물리적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가족친화환경은 이용자인 가족의 다양한 요구가 존중되고, 가족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1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면접조사용 질문지 36~45번, 위탁가구대상 질문지 15~2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CAPI &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47~55번, 면접조사용 질문지 81~9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6. 비교

- 가구 소재지
 - 해당 가구의 거주 지역과 거주 지역의 규모를 추후 코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음.
- 거주기간
 - 1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원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조부모와 함께 3대가 같이 사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에 2차년도부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지역사회 의 입지적 특성
 - 문항 보기 중 1차년도에 상가지역으로 제시된 보기가 기타 응답을 고려하여 2차년도 부터는 상가·회사지역으로 수정하였음.
-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 각 문항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의 정의 및 특성을 문항 아래에 서술하여 각각 질문함.
 -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일명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 기타 유사 육아지원기관을 유치원으로, 선교원을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들 시설이 학원에 포함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문회 외(2005)의 원 문항을 수정함.
 - 보기 진술이 1차년도에는 '매우 충분함(1)'에서 '매우 불충분함(5)'까지 5점 척도로 제시되었으나, 2차년도부터는 '매우 불충분함(1)'에서 '매우 충분함(5)'으로 역진술하였음.
- 지역사회 양육적절성
 - 문항 중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의 편이성' 관련 문항은 농·어가지역에서는 문항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해석상 주의가 요구됨.
 - 보기 진술이 1차년도에는 매우 충분함(1)에서 매우 불충분함(5)까지 5점 척도로 제시되었으나, 2차년도 부터는 매우 불충분함(1)에서 매우 충분함(5)으로 역진술하였음.

- 지역사회특성과 관련한 내용은 대상 아동이 위탁된 경우는 본 가구와 위탁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7. 참고문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성신, 이원아, 김혜란, 류전희. (2009).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가로 연구. **가족과 문화**, 21(1), 151-174.
- 법제처. (200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에서 2008년 2월 13일 인출.

1. 도구명: 육아지원정책 방향

2. 해당 변인: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3. 변인 및 도구 선정 이유

- 지난 20년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600만명(1985년)에서 1,000만명(2006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업모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출산·육아기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김혜원, 옥우석, 정미애, 2007).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낮출 뿐 아니라 가임여성의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것(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과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됨. 이에 이들 제도를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요구됨.
- 더욱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 및 노령화 현상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가족 내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로 공보육 구현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하는 여성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육아지원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수적임.

4. 도구 출처

-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서문희, 최혜선.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자체 제작

5. 도구 특성

1차, 2차년도

- 자료수집 방법
 - 1차년도: CAPI
 - 2차년도: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1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46~48번, 거부가구대상 질문지 3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2차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12~1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6. 비교

-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응답자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시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 여부는 각 직장의 근로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을 요구하였음.
- 문항의 내용 중 예비조사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요구되었던 문항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차출근제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당해연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질문지에 포함하였음.

7. 참고문헌

- 김혜원, 옥우석, 정미애. (2007).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서문희, 최혜선.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11-25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91-2